검소한 여행 · 알찬 서비스
혜초여행사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수속
안국동 로타리(조계사 앞) 종로구 수송동5번지 동일B/D 3층
전화 : 代 (02)733-3900

현대불교

人蔘의 약효!
원비·디®

회장: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 / 논설고문:고은 / 편집국장:최정희 / 인쇄인:김규석 / 등록번호: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737-8881 / 편집국:722-4162 FAX:737-0698 / 광고국:737-0692 / 구독신청: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1월 28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60 호

"미래 부처님을 키우자"

전국교사불련 창립 청소년 포교사단으로 부상



금모으기 불심 장사진 조계종과 한국불교 종단협의회가 주최한 나라살리기 금모으기 법회가 22일 낮 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렸다. 3백여 불자들이 동참한 법회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전국신도회장 송재건씨가 소지하고 있던 금제품을 내놓았다. 이날 정오에는 도선사에서도 금모으기 법회가 열려 2백여 신도가 참여했다. 〈관련 기사 23면〉

'미래의 부처님, 청소년 포교 우리가 맡는다'

조계종 포교원 직할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 · 인터뷰 3면)가 18일 전북 김제 금산사 대적광전에서 창립됐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2백여명의 교사불자들은 이날 창립법회에서 회칙을 제정하고 임완숙 이화여고 교사를 초대회장에 선출하는등 임원진 선출을 마치고 일선 교육현장에서 청소년 포교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포교원장 성타스님은 법어를 통해 "과중한 학업과 가치관의 미정립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불법은 고통의 강을 건네 주는 훌륭한 뗏목"이라면서 "학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낌없이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창립법회는 지난 96년 조계종의 '청소년의 해' 선포에 이은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현근)의 창립, 같은 해 7월 주최 제1회 교사불자연수회 개최 등으로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한 전국적인 교사불자 모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년6개월여의 산고끝에 얻어진 결실. 이로써 교사불자련을 바른 신행과 수행정진을 통한 교육현장의 불법외호와 청소년불자 양성에 조직적인 힘을 모으게 됐다.

교사불자련은 앞으로 광역자치단체별 지부와 시 · 군 · 구별 지회, 학교별 분회를 조직함으로써 전국 8백만 학생(초 · 중 · 고)을 지도하는 25만(불자 6만여명 추산)여 교사의 불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사불자들의 인격도야와 화합을 통해 시대정신을 창출하는 참된 스승이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청소년교화와 민족정기 함양에 힘을 쏟게 된다.

이를 위해 同회는 파라미타청소년협회와의 연대 또는 조직의 단일화를 유도하면서 파라미타 지부 · 지회를 창립,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인 포교사 역할을 수행키로 했다.

또 △사찰순례를 통한 전통문화 애호활동 △불교관련 교내써클을 통한 간접포교 △포교자료 개발 및 간행 등으로 불교학생회의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재경 기자〉

문화재 관리 지자체이관 '반대'

교계, 정부 개편안에…공원공단도 환경부로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위원장 박권상)는 문체부의 구조조정과 관련 문화재관리국의 기구축소와 일부 문화재관리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골자로 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불교계와 문화 학술계는 문화재관리국의 기능을 축소 분산시키는 것은 민족 문화유산 보존과 계승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관련기사21면〉

또 정부조직개편심의위는 내무부의 자연보호운동 및 국립공원 관리기능등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구조조정안도 마련 26일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문화재관리국의 기능 축소와 일부 문화재관리업무의 지방자치제 이양,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환경부 이양등에 대한 종단의 입장을 금명간 밝힐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미 문화재위원회와 한국고고학회등도 조직개편위에 건의문과 성명을 통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해인골프장 경북도 승인 원인무효"

사찰환경포럼서 전재경교수 주장
대법원 '취소부당' 판결 법리상 위배

해인골프장 건설과 관련 대법원 판결이 법리적으로 위배되고 경북도지사의 골프장 사업승인이 원인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골프장 건설허가에 대한 법적용이 자연공원법이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에 적용되는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허가된것은 잘못이라는 것.

이같은 주장은 21일 해인골프장건설 추진과정과 문제점, 향후대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 제1회 사찰환경포럼에서 나왔다.

전재경교수(한국법제연구원)는 "설립허가 자체부터 법적용이 잘못됐다"며 "내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인골프장 사업승인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조사국장은 '국립공원 해인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과 대책'을 통해 "골프장 건설이 생태계와 국립공원 보존체계를 파괴하고 팔만대장경등 문화유산을 훼손할 것"이라며 "재정부는 해인골프장을 백지화하여 국립공원을 보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총무원장등 교계인사들이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전달하여 대통령령으로 내무부장관이 골프장 건립을 직권취소토록 종용하는 방안과 국회법사위를 통한 문제제기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음력설' 축소 검토 교계 반대여론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음력설을 축소하는 대신 양력설을 쇠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교계의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음력 위주의 생활풍습이 우리민족에게 체질화된 것을 굳이 양력에 따를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 교계의 여론이다.

특히 스님과 신행단체장들은 "음력설의 급작스런 축소는 민족정서의 혼란을 부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일부 불교 교학자들도 음력문화의 장점을 살려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한 일간신문의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5%가 음력설 축소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마다 'IMF 쉼터' 마련 23면

열린마당 '문화재관리 지자체 이관' 21면

"한국불교에 반했어요" 9면

현대불교 명예기자 모집

현대불교신문은 보다 생활과 밀착된 살아있는 불교정보를 제공하고 신심을 북돋우기 위해 명예기자제를 운용합니다. 각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생활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취재하여 정보를 제공해 주실 활동력 강한 명예기자를 찾습니다.

- 자 격: 주부, 각 직장 및 불교단체종사자(지역 무관)
- 인 원: 00명
- 활동내용: 취재 및 제보
- 대 우: 채택된 기사 원고료 지급

97년도판 현대불교 합본집

1997년 한해동안 발행된 현대불교신문을 묶은 〈97년도판 합본집〉이 나왔습니다.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제시해 온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에는 97년도 불교사의 흐름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매주 만나는 큰스님들의 법문, 시사불교와 이해하기 쉬운 교리등 삶의 지혜와 신행의 갈잡이가 필요한 불자들에게 좋은 신행지침이 될 것입니다. 한 권씩 소장하시고 또 이웃에게 법보시하시기를 권합니다.

- 수록내용: 1997년 1년분(109호~156호)
- 가 격: 6만원(우송의 경우 할도의 발송비가 추가됩니다)
- 문 의: 현대불교신문사 기획관리부(02)737-8881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장애인 톱드 사람들



"장애인들의 자녀는 소년 · 소녀가장 못지 않게 정신적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올바로 교육시키며 사회로 진출할때 장애인 가정의 자립도 이룩될 수 있습니다."

15일 노원구민회관에서 열린 곰두리차량봉사협회가 주최한 장애인 자녀 장학금 전달식에서 중학생 12명 고교생 23명 대학생 5명등 40명에게 8백여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되고 위안잔치가 함께 베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풀어졌다.

이날 참석한 2백여명의 장애인 부모와 자녀들은 코메디언 엄용수씨(장애인 위문봉사단장)의 진행과 어머니봉사단이 준비한 다과를 들며 모처럼 함께 어울렸다. 노래도 부르고 게임도 하는 이들의 얼굴에 핀 웃음에는 IMF한파가 끼어들 수 없었다.

이 행사는 나경선법사(전국장애인불자련 회장)가 동분서주하며 노원구청 · 미도파 연예인봉사단의 후원을 받아 어렵게 마련된 것. 특히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자선바자회를 열고 장애인회원들에게 1만원씩 모금을 하는 것까지 나법사가 묵묵히 해왔다.

사회참여가 아직은 미흡한 장애인들이 가장 부담느끼는 것이 자녀들의 절망과 방황, 교육비 부담이라는 사실을 알고 90년부터 매년 장애인 자녀들에게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있다.

또 매년 3월에는 65세 장애인 무의탁노인 보살핌행사인 '효실천 한마당'을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중식제공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나법사는 식당을 마련하여 각 신행단체들이 대중공양을 펼쳐줬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문의(02) 952-4025〉

나법사는 81년 리비아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장애를 입고 83년 장애인포교를 염원하며 장애자협회에 일반회원으로 가입해 장애인불자들을 모아 법회를 시작했다. 타종교와 달리 지원도 못해주면서 처음에는 장애인의 불자화를 위해 무던히 움직였다는 나법사는 장애인 생존이 급박한 현실임을 깨닫고 장애인 자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원우 기자〉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설연휴로 161호 2월11일字 발행

• 불탄성지 네팔 룸비니원 대성석가사 법당 건립을 위한 『1인 1만원 만인 수희동참 권선문』 •

귀의 삼중삼보하옵고

불탄성지 네팔 룸비니원 국제사원구역내 한국사원인 대성석가사 제1요사 1층 261평, 2층 261평, 3층 261평 도합 783평의 완공단계와 법당 1층 1016평, 2층 780평, 3층 483평, 옥상 290평 도합 2569평의 기초 공사를 마치게 된 것은 네팔 카트만두 주재 코네코 사장 보광 정현일 거사님 내외분과 녹다산 룸비니개발위원회 전 위원장님 내외분, 백용성 조사 유훈실현 후원회 수승행 한명옥 회장님 용천 박시민 고문님 내외분과 강 금강업, 나 관음행, 박 대원경, 전 대심행, 강 무량화, 박 대명심, 김 관음주, 노 선생당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 고문님의 설판 시주와 서울 종로 대각사, 서울 서초동 우면산 대성사, 경주 금오산중 고위산 천룡사, 천룡사 부산포교원의 관심 있는 불자 등의 성원과 국내의 뜻 있는 고승 대덕 스님네와 선남자 선여인의 동참으로 이룩되었으므로 이 지면을 통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이 기반을 통하여 룸비니 대성석가사 법당 건립을 위하여 1인 1만원 만인 수희 동참으로 이 거룩한 불사를 수행하고자 하옵니다.

이 IMF 경제 한파를 극복하고 이 대복전에 복덕 자비 지혜의 씨앗을 던지는 계기로 삼아 땅에 쓰러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 일어나서 성불인연 되어지이다.

• 부처님이 탄생하신 네팔 룸비니원 대성석가사에서 불탄절에 『1인 1등 1만원 만등불사 권선문』 •

삼중삼보님께 귀의하나이다.

이곳 부처님이 탄생하신 네팔 룸비니원 국제사원구역내 한국사원인 대성석가사에서 국내외 4부대중 제위의 성원으로 제 1요사가 완공 단계에 있고 대웅보전 기초공사가 끝났습니다.

남방불교의 준례에 따라 부처님이 탄생하신 무인년(서기 1998년)음력 4월 15일 불탄절 법회에 국내외 3만여 명의 대중이 운집하여 법요를 거행하고 이날 저녁에는 1인 1등 1만원 만인동참 1만 관등불사를 봉행하나이다.

이에 수희 동참하시어 만대의 복전을 이룩하시옵소서

네팔 싯타르타나가르 루판데히 룸비니 대성석가사
조실 석가여래부촉법 제70세 법사 佛心 道文 주지 覺賢 法信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 회 장 고문진 합장

● 연 락 처 ●

- 서울 종로구 봉익동 2번지 **대각사** 전화 02)765-0972 팩스 02)742-2126
-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산 140번지 백제불교초전법륜성지 전통사찰 **우면산 대성사** 전화 02)583-1475, 582-0108 팩스 02)583-2700
- 네팔 P.O.Box 37 (Korean Buddhist Mahabodhi Society Daesung Shakya Sa Temple)Siddhartha Nagar Rupandehi Lumbini Nepal 전화 001-977-71-29474
- 경주시 내남면 용장3리 금오산중 고위산 **천룡사** 전화 0561)748-8815 팩스 0561)748-8818
- 부산 서구 남부민2동 443 **천룡사 부산포교원** 전화 051)242-4234 팩스 051)244-8468

이 광고 비용은 부산거주 소생 김관음주가 보시할 수 있는 복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생은 어제 날짜로 백용성 조사 유훈실현후원회 경주 금오산중 고위산 천룡사 부회장으로 추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 회장님과 고문진의 지도하심에 따라서 이러한 선근인연을 짓는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무인년(서기 1998년) 3월의 독립운동가 백용성조사의 양력3월, 음력3월(양력4월)의 행사 준비에 힘쓰시는 회장님과 고문진의 노고에 대하여 정중히 위로하는 바입니다.

◆ 계좌번호 086-14-0009-164 (예금주 임윤화)
국민은행 서초남지점

사 설

"포교는 곧 교육"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창립에 기대

지난 18일 금산사에서 전국교사불자연합회가 창립된 것은 여러 모로 뜻깊은 일이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수많은 인연과 부처님의 가호가 있었다. 96년 여름방학을 맞아 조계종 포교원이 마련한 불자교사연수회를 계기로, 이듬해인 97년 직지사에서 열린 2차 연수회에서 불자교사들은 전국적인 규모의 모임을 조직하자고 건의했다. 8월 서울 경기 지역 교사불자 모임의 창립을 시발로 광주 대전 등지의 불자교사들이 연대를 확대해 나갔다. 이들의 결실이 모여 새해 벽두 마침내 전국적인 교사불자회의 결성을 보게 된 것이다.

프교원장 성타스님은 축사를 통해 미래불교의 희망인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들의 전국적인 불자회 활동에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 스님은 "과중한 학업과 가치관의 미정립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이끌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이화여고의 임완숙 선생은 인사말에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위기는 무분별한 서구사상과 서구종교의 도입으로 인한 민족정신 말살과 뿌리없는 교육의 결과라고 전제하고, 도덕불감증과 극도의 이기주의를 극복하여 '더불어 사는 불국토'를 만들기 위해 교사불자들이 합심 노력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바다로 흘러드는 혼탁한 강물을 맑게 하려면 강으로 흘러드는 시냇물을 맑혀야 하듯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가슴에 보리(菩提)의 싹을 틔우는 일이야말로 이 사회 이 나라를 구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불교계의 기대속에 창립된 교사불자연합회는 명실공히 청소년 포교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종단 또한 이 점을 인정하여 교사불자회를 포교원의 직할단체로 두기로 했다. 이로써 교사불자연합회가 미래 청소년 포교의 중심으로 종단의 전폭적 지지를 받을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 연합회는 교사들의 인격도야와 친목도모, 사찰순례를 통한 전통문화 애호, 포교자료 개발 및 간행, 그리고 민족정기함양을 위한 바른 교육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불자교사들은 전문직 종사자라는 점을 자각하고 "포교는 곧 교육"이라는 사명감을 투철하게 갖기를 기대한다. 일반 포교사들이 불교 교리나 신행 그리고 의례에 치중한다면 교사불자회는 청소년 교육의 현장에서 불교적 사유와의 연속성을 발굴하고, 또 교육에 있어서 불교적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본격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 사업에 종단과 신행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종단은 필요한 행정과 재정을, 그리고 신행단체들은 혹 불거질지도 모를 학교 내의 타종교 집단과의 불필요한 소모와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는데 힘을 모아 주어야 한다. 각 본사와 말사는 사찰과 그 부속물들을 청소년 수행과 심신도야의 도량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배가해야 한다.

이런 지원에 힘입어 교사불자회는 불교 본연의 수행과 신행을 엄정하게 닦고 지켜나가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수행의 깊이와 정신적 지도력이 없다면 청소년 포교는 모래 위에 지은 누각일 뿐이다. 오계(五戒)를 정갈하게 수지하고, 예배와 독경에 게으르지 않으며, 열심히 정진하는 모습을 통해 교사불자회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잠재적인 신도들을 그 품으로 끌어들여야 할 것이다.

아이들은 어른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자란다는 점을 교사불자회는 다시금 새길 것을 당부한다.

명예포교사제 도입 포교원
스님전산교육 실시 교육원

조계종 포교원 · 교육원 올 주요사업 발표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은 20일 신도교육의 해 사업의 주도적 실시 등 올해 추진할 9개항의 주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포교원의 올해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신도교육의 해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시, 종단의 신도교육 및 양성의 틀을 다짐 △포교행정 체계의 강화 △군포교 활성화 및 신행단체 지원 및 관리 강화 △청소년사업 대폭 강화 △명예포교사제 시행 △신도등록 체계화, 홍보활동 강화 △각종 연수 통해 포교인력 양성, 관광가이드 연수 5월중 첫 실시 △포교종책 개발 및 자료발간 △관람료사찰 포교방안 수립.

포교원은 포교종책 개발과 관련, 인터넷을 이용한 '깨달음과 불성' 주제의 국제학술회의를 백양사와 함께 개최한다는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3월경 일정 등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명예포교사제를 시행하여 포교활동에 공적이 있는 국내외의 불자를 종단의 포교자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대상에는 종립학교 교장, 저술을 통해 불법을 홍보한 .사람, 포교원력이 있는 환속자, 해외에서 포교활동을 하는 불자 등이다.

교육원 원장은 올해 사업방향을 '승가교육의 내실화'로 정하고 전통교육과 현대교육의 조화를 통한 승가교육체계 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교육원이 20일 발표한 주요사업은 모두 14가지로 대부분 지난해까지 결처왔던 종단교육체계 및 승가위계 확립과 관련된 것들이다. 올해 새롭게 실시될 사업으로는 스님대상 전산교육과 선원사, 청규, 역대선사행장 등을 묶은 〈선원총람〉 발간을 2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한편 〈삼국유사〉를 현토본으로 간행해 승가대학원과 기본교육기관 교재로 활용토록하고 전국 대학도서관에도 배부할 방침이다. 또 올 3월 열릴 14기 행자교육원부터는 종전 교육후 평가에서 입방전 행자고시를 치르기로 했다. 〈정성운 · 한명우 기자〉

'교과서위원회' 구성키로

조계종포교원 초중고 교육과정 개편대비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은 2천년부터 시행될 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 대비해 (가칭)교과서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포교부장 원혜스님은 20일 교과서위원회 구성 당침을 밝히고, 위원회에는 교법사단과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동국대 사범대학 교수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월초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원혜스님은 새로 개편되는 교육과정에 쓰일 중·고교 불교교과서 집필은 교법사단이 맡으며, 기존 초·중·고등학교 각종 교과서에 나타난 불교왜곡과 미흡한 기술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부분은 전국교사불자연합회에 담당토록 한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교육과정은 2000년 초등교를 시작으로 2001년 중학교, 2002년 고교 과정에 적용된다.

종단마다 종책투명화 '바람'

조계 · 태고 · 진각종등 사업계획 일반공개

조계종, 태고종 등 각 종단들이 신년사업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나서면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종단정책 투명화'가 새로운 풍속도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종단정책 공개는 종단살림 및 종무행정 효율화 차원에서 발전적인 변화로 평가되고 있다.

조계종은 총무원이 13일 5대 기조 6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금년 종무계획을 밝히며 종책과 시류를 반영한 운영방침을 천명했다.

12일 진각종 성초 통리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복지사업 등 올해 사업계획을 내놓으면서 종단구조 개혁의지를 밝혔다.

태고종 역시 19일 인곡 총무원장스님 기자회견을 통해 종단 사업방향을 제시했다. 동방대 건립과 분규정립 등 9개 주요사업계획을 밝힌 인곡스님은 "주요사업계획 외에도 조직개편 및 승려의식 개혁 등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라며 종단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를 승려 자질향상을 위한 원년으로 삼겠다"며 종단 체질개선 의지를 밝혔다. 사업계획으로는 제7차 국제불교학술대회 개최 및 총본산 묘각사 복원불사, 천안 보명사 소재 교육원 4월 완공 등을 제시했다.

총지종은 16일 총지화 통리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포교, 사회복지 등 7개 분야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총지화 통리원장은 "종단홍보와 밀교교학전파에 주력할 생각이며, 이와 관련한 출판사업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종단 외에도 원융종, 원효종, 일붕선교종, 미타종 등 7개 종단이 사업계획을 내놓으면서 체계적인 계획아래 종단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기존 질서나 체계를 벗어난 새로운 방향을 투명성과 짜임새를 통해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방송광고공사 폐지 재검토해야"

BBS 성낙승사장 주장

대통령직 인수위의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공사) 폐지 검토, KBS MBC 등의 공사 폐지 주장 등 공사 존폐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자 불교방송 성낙승 사장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사의 생존 필요성을 역설했다.

성사장은 우리 광고시장의 환경과 구조는 서유럽과 유사하기 때문에 인수위 측이 주장하는 미국식 시장경제원리 도입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사가 없어지면 생길 문제점으로 △방송의 공공성·독립성 훼손 △특수방송 및 지역민방의 존립기반 와해 등 8개항을 지적했다.

종교방송 3사는 조만간 사장단 회의를 갖고 공사 폐지에 대해 협력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혀 이번 존폐논란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천태종 학술회의

천태불교문화연구원(원장 이재창)은 20일 타워호텔에서 '현대사회와 천태사상'을 주제로 제1회 한중일 천태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천태종 전운덕 총무원장, 원융종 송보인 총무원장, 총지종 총지화 통리원장, 한국불교 법화종 김광태 총무원장,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 자민련 이양희 의원, 동국대 서윤길·권기종 교수 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BBS-btn 제휴설 사실 아니다"

불교방송노조, 불교TV에 사과 요구

불교방송 노동조합(위원장 신창현)은 최근 불교TV가 보도를 통해 불교TV와 불교방송이 각종 교류에 합의한 것처럼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고 불교TV에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해당 뉴스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보도 자제 당부 △교계 일부 다른 매체의 동일 보도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을 밝혔다.

노조측이 문제로 삼은 부분은 16일 불교방송 사장 성낙승씨가 취임인사차 불교TV 사장 정우스님과 상견례 자리에서 나눈 대화내용이다.

이에 대해 불교TV 사장 정우스님은 "불교방송과 불교TV가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나운서·방송자료 교류를 생각했고, 비록 구체적인 사안까지 진행되어 실무진이 구성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노조의 반응은 상상 밖이다"고 피력했다.

이에 반해 불교방송 사장은 "이번 일과 관련해서 불교TV 이태행 방송전문위원에게 신중한 보도자세를 요청했다"고 밝히고 "아나운서·방송자료 교류에 대해 좋은 생각이라는 것에는 공감했지만 섣불리 합의할 사안도 합의한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중앙신도회 올 예산 4억7천만원

조계종중앙신도회(회장 송재건)는 20일 서울정동 신도회회의실에서 제3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4억7천1백여만원(임대료 1억7천만원 포함)의 올해 예산을 통과시키고, 사업으로 △창립 1주년 기념법회 △봉축의 밤 및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 △수련대회(년 2회) △회보발간(월간) △미조직 본말사 신도회 창립 독려 및 지원 △대의원 총회 △회장단 수련대회(년 2회)를 실시키로 했다.

중앙신도회의 지난해 결산액은 4억1백만원으로, 이 가운데 송회장이 3억7천만원(임대료 1억5천만원 포함)을 기부금 형식으로 출연했다고 신도회사무국은 밝혔다. 재정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적립하고 있는 부회장 및 이사 등의 임원회비는 19일 현재 3천1백여만원이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스님, 힘을 주세요"



예산 최소화 / 효과 최대화

'나눔'의 행사로

조계종 올 봉축행사 전망과 과제

핵심소재 '燈' 선정…국민체험 유도 '희망심기'

작년비해 예산 27% 줄여 '고통 함께 나눈다'

'예산은 최소화, 효과는 최대화'에 올해 조계종 봉축행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경제난의 고통을 국민과 함께 나누며 부처님 오신 뜻을 기리는 축제를 어떻게 펼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올 봉축위의 화두인 셈이다.

조계종 봉축위원회(위원장 월주)는 21일 △희망의 등, 나눔의 등, 지혜의 등 밝히기 △전통종교축제로의 정착 △포교 조직강화 기여 △참가자 중심의 행사등을 골자로 하는 봉축행사 기획 기조를 밝혔다. 조계종의 봉축기획 기조는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인 고통을 함께 나눔으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맞는 부처님 오신날의 의미를 최대한 승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처님의 자비로 이웃과 함께"라는 표어를 확정한 봉축위는 등(燈)을 핵심 봉축소재로 선정하고 전국적인 등밝히기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등 밝히기 운동은 부처님 오신뜻을 알리는데 가장 적합한 소재이기 때문. 희망과 염원의 상징으로 등을 부각시켜 경제 위기 극복과 자비의 실천 의지를 극대화 한다는 것이 봉축위의 의도다.

연등축제와 법요식, 전통등 복원, 디자인 개발을 통한 불교 이미지 홍보, 외국인 참여확대, 봉축 노래개발등이 올 봉축행사의 기본틀. 봉축위는 올 봉축행사 예산을 작년의 5억여원에 비해 27%정도 줄일 방침이다. 한해동안의 물가상승과 IMF체제 속에서의 경제 현실을 고려할때 봉축위의 예산은 상당히 축소된 것이다. 때문에 화려한 장엄을 통한 외적인 분위기 조성은 지양되고 행사규모를 축소해 참여효과를 극대화 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수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봉축위는 불자와 일반 시민이 폭넓게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봉축행사를 '보는 행사'에서 '체험하고 느끼는 행사'로 전환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른 것이다. 작년까지 화려한 무대와 공연 위주로 기획했던 연등축제 회향식도 놀이마당 형식으로 무대를 최소화하고 불자와 시민들이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마당을 열 계획이다.

그러나 봉축위는 몇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난으로 냉각된 사회 분위기를 녹여 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과제다. 봉축행사의 국민축제화가 얼만큼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 불교의 사회적 기여도가 가늠된다는 측면에서 올 봉축행사는 불자위주의 행사보다는 비불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신선한 프로그램들로 꾸며져야 할 것이다.

또 올해가 종단이 선포한 '신도교육의 해'인 점을 감안 봉축 프로그램이 비불자들에게 불교를 이해하고 귀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간 도외시 되어온 강좌나 불교문화 체험이 가능한 답사, 불교의 사회적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복지관련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언론등 매체를 통한 봉축효과의 극대화도 고민하지 않으면 안될 과제로 꼽힌다. 신문 방송등 언론매체들이 부처님 오신날을 전후로 불교의 사상과 문화를 담은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도록 봉축위가 기본적인 틀을 제공함으로 보다 적극적인 매체효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는 것. 각 지방간의 유기적인 행사교류 지원과 경비절감 논리에 묻혀 지나치게 초라해지는 행사가 없도록 살피는 일도 봉축위가 안은 중요한 과제다.

임연태 기자

승가교육체계 내실화 자신감 비쳐

조계종 교육원 올 사업계획 분석

5개년 계획 수립
'선원 총림' 등 발간

조계종 교육원(원장 암도)이 올해 사업방향으로 설정한 '승가교육의 내실화'는 출범이후 4년간 펼쳐왔던 각종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와 함께 교육원의 입지도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배여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종단교육체계 및 승가위계질서 확립과 기본교육기관 미이수자 대책 등 교육개혁의 총론을 마련했다면, 지금부터는 각론으로 파고들어가 세세한 것까지 완성도를 높여 명실상부한 종단교육틀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상당부분 교육원의 '힘'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교육원의 위상강화는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는 흐름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행자기초교육기간 3주에서 4주로 연장 △기초교육 개선안 마련 △본말사 주지 연수교육의 새 전형 창출 △스님 대상 전산교육 실시 등 교육원이 내놓은 이들 주요사업계획은 승가교육체계가 어느정도 섰다는 자신감과 함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다.

또 이번 사업계획안에 포함된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이나, 교육위원회 등 교육원 직할기구와 각 교육기관 교수·본사 교무국장을 포함한 종단 교육지도자회의 개최(3월중), 교직자회의 정례화 등은 지금까지 본사의 입김에 다소 우왕좌왕했던 전례를 미리 차단하고 모든 것을 교육원이 주도하겠다는 복안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지난해 발간된 〈강원총람〉에 이어 〈선원총람〉을 발간하고 〈삼국유사〉 현토본을 간행해 전국 대학도서관에 배부하겠다는 계획은 한국불교의 맥을 정확히 짚고, 사회적으로도 불교의 우수성 및 역사성을 제고시키는데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명우 기자

목어

설날

설날은 우리민족에게 어떤 날인가.

단순하게 음력으로 한해를 시작하는 첫날만은 아니다. 우리는 설날에 차례를 모시며 조상님네와 만난다.

부모님과 친지들에게 세배를 올리고 가족·친척들이 모여 화목을 다진다. 아이들은 설빔을 입고 윷놀이·제기차기·널뛰기를 하며 설날 노래를 한다.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설날새벽에 까치소리를 먼저 들으면 그해에 운수대통한다는 속설도 있다.

이처럼 설날에는 꿈과 희망 그리고 효(孝)와 화합이 깃들여있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공휴일 축소를 거론하면서 음력설대신 양력설 쇠는 방안을 제기하자 국민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은 알고있다. 이중과세가 큰 낭비라는 것을. 그리고 연간 69일이나 되는 공휴일이 많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이중과세를 피하고 공휴일을 줄이자는 국민의 목소리는 다양하다.

"연말 12월31일에 쉬면서 차분히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여 1월1일에 시무식을 하자. 신정연휴를 없애고 설연휴를 3일에서 2일로 줄이자."

"국경일을 쉬지 않더라도 '설날'은 살려야 한다."

우리는 양력설을 쇠라는 일제의 강압에도 고유의 명절 설을 지켜왔다. 정부수립후 양력설 연휴를 지내면서도 이중과세는 없어지지 않았다. 결국 85년에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아래 공휴일로 정했다. 89년 '설날'로 연휴화 하여 1일 휴일을 3일로 늘렸다.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고 설날을 없애고 양력설을 쇠는것을 국민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대를 이어온 설날은 우리 민족의 혼과 전통문화풍속이 살아 숨쉬는 명절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에온 프랑스의 문명비평가 기 소르망(53)교수는 말했다.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문화입니다. 문화 이미지는 역사의 산물에서 구축됩니다. 한국인은 다양한 문화적·종교적 영향속에서 잠재적 창의력을 지니게 됐습니다. 내가 정책결정자라면 문화의 힘을 외면 않겠습니다."

설날은 세계화 시대에 보존해야할 문화유산이며 자산이 아닐까.



수요 인터뷰

전국교사불자련 임완숙 초대회장

"안으론 수행 밖으론 청소년포교"

전국교사불자연합회가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스님) 직할로 1년6개월여의 준비 끝에 돛을 올렸다. 18일 미륵부처님 도량인 김제 금산사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한 전국교사불자련의 출발은 미래의 부처님, 청소년을 키울 교사불자들의 방향을 가늠케 했다. 대적광전 행사장에서 임완숙(이화여고 교사) 초대회장을 만났다. 〈편집자 주〉

- 먼저 축하드립니다. 앞으로의 포부를 밝혀주시죠.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보현행원의 원력으로 불자교사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안으로는 바른 신행활동과 수행정진에 힘쓰며, 밖으로는 불법을 외호하고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서구사상의 무분별한 유입과 위정자들의 그릇된 종교관이 우리 민족정신의 근간을 이루는 불법을 왜곡, 폄하시켜 민족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뿌리 없는 교육을 자행해 왔어요. 가치관의 혼란에서 오는 도덕불감증, 개인주의로 인한 이기심과 탐욕심, 심성의 황폐화 등이 지난 한 세기 교육정책의 과보예요. 이제 교사불자들이 나설 때 입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가슴에 보리(菩提)의 싹을 틔우는 일이야말로 이 사회 이 나라를 구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불자화가 선행돼야 할 것 같은데요.

▲창립을 전후해 회원이 5백여명으로 크게 늘어났어요. 홍보가 잘 된다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리라 봅니다. 학교별 분회, 시·군·구별 지회, 광역자치단체별 지부 조직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예요. 또 정기법회와 가족·야외법회 등을 통해 회원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불교교양대학·초청법사를 활용, 교사님들의 불교공부와 수행정진을 도울 계획입니다.

지역·학교별 조직 강화
파라미타와 긴밀 협조

-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전국교법사단과의 연계활동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파라미타 지회 설립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협조가 필수적이지요. 앞으로 파라미타의 교내·외 활동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전문불교교육을 담당하는 전국교법사단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야죠. 교법사단이 교과서 개정작업에 참여하고, 본회는 교과 모니터활동등을 펼칠 수 있겠지요.

- 천태종에는 전국교원불자회가, 진각종에는 종립학교 교사연수회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범불교적인 청소년포교와 교육현장의 불교외호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연대하겠습니다.

김제=김재경 기자

조계종 신도교육 어떻게 하나

교리·예절 등 입문교육 6개월과정 마쳐야 수계·신도등록 '가능'

앞으로 조계종의 모든 사찰은 신도교육 과정을 개설, 운영해야 한다. 조계종은 올해를 '신도교육의 해'로 정하고 각 사찰마다 입문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포교원은 입문 및 이후의 중급과정을 각 6개월의 교육과정으로 개설토록 한다는 방안이다. 입문과정은 96년 출간된 〈불교입문〉을 교재로 매주 1회 교육을 기준으로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는 불교의 기본예절과 기초교리, 부처님의 생애 등을 배운다. 입문자는 최소한 6개월의 교육과정을 거쳐 불자가 되는 수계를 받을 수 있다. 입문과정 이후의 중급과정은 2월 출간되는 〈신도교리서〉를 교재로 6개월 과정으로 운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표 참조〉

이와 함께 포교원은 신도교육을 담당할 지도자 교육도 준비하고 있다. 〈신도교육 지침서〉를 토대로 본말사 주지연수와 초임주지 연수 등에서 신도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시행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포교원은 모든 조계종 사찰에서 일시에 신도교육을 실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교재에 따른 커리큘럼을 제시하고 각 사찰에서 융통성있게 활용하도록 한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포교부장 원혜스님은 "획일적으로는 안된다. 종령도 당장 제정하지는 않는다. 자칫 일선 사찰의 사정을 무시한 행정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산중사찰은 신도교육 과정을 개설하기 힘들다. 고정 신도가 적을 뿐만 아니라 사찰의 유지·관리 인원 외에 신도교육을 담당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지역연합 또는 교구본사 차원에서 불교대학을 설립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남원의 경우 지역사찰이 공동으로 남원불교대학을 설립, 신도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불교세가 미미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법도량을 지정, 종단차원에서 교육기관 개설을 지원키로 했다.

정성운 기자

◇ 신도교육 과정(안)

단계	입 문	중 급
명칭	입문강좌	불교학교
교재	〈불교입문〉	〈신도교리서〉
조건	의무	의무
목표	기본예절숙지, 불교신행에 동참토록 교육	신행원리 및 믿음의 공덕 이해
시간	주1회 20회(6개월)	주 1회 20회(6개월)
교육내용	사찰안내 및 예법, 기초교리, 신도의 권리와 의무, 신행의 의미와 방법, 사찰의 구조와 의미	종교일반의 이해, 불교의 근본교리, 중국과 한국의 불교, 불교의 실천윤리
수료후	오계수지, 신도등록	보살계 수지

※ 이 안은 지난해 12월 중앙종회 포교분과위가 제시한 교육과정(안)과 포교원의 방침을 종합해 정리한 것임.

中央僧伽大學校 '98학년도 신(편)입생 추가모집

본교는 '79년 2월에 개교하여,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법 제67조에 의해 종단에서 운영하는 「승려 기본교육기관」으로서, 개교이래 700여명을 배출하였으며, 교육부로부터 '91년 3월 각종 학교로 4년제 대학학력을 인정 받았고, '96년 12월 안암교정에서 정규대학으로 개편인가 받아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대학교로서, '97년 2개학과 증설, 군법사 지원대학 인가 등 제반구비 및 학풍이 정착되어 한국불교 승가교육의 정립을 위한 김포교정 신축이전과 함께 명실상부한 「승가교육의 중심도량(道場)」이 되고 있습니다.

모집학과 및 인원

구분 / 학과	신 입 학	2학년 편입	3학년 편입
불 교	○명	○○명	○○명
역 경	○○명		
포교사회	○○명		
사회복지		○명	○명

※ 제2지망을 할 수 있으며, 출신고교와 본교 지원학과 간의 동일계(비동일계)에 대한 가(감)점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특차모집 합격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원자격 및 전형방법

▣ 신입학 시험
- 지원자격 :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로서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고교 중요과목 성적 40%와 교리 및 상식고사 성적 40%, 면접고사 성적 20%로 선발 함.

▣ 편입학 시험

〈 2학년 〉
- 지원자격 : '98.3.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납 2년이상 승려로서 4년제 대학 졸업자(각종학교 포함) 및 1년 이상 수료자나 (35학점 이상 취득)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모든 전공, 계열에서 지원 가능)

(전문대는 졸업자, 방송대, 산업대(개방대)는 2학년(80학점)이상 수료자)
※ 단 전적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자격이 없음.
※ '98-2학년 편입생은 정규대학생으로 졸업시 학사학위 수여함.

〈 3학년 〉
- 지원자격 : '98.3.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납 3년이상 승려로서 4년제 대학 졸업·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수료자 (70학점 이상 취득)(모든 전공, 계열에서 지원 가능)

※ 단 전적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자격이 없음.
※ '98-3학년 편입생은 졸업시 대학 졸업학력 인정함.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전적대학 성적 40%와 교리 및 상식고사 성적 40%, 면접고사 성적 20%로 선발 함.

추가모집 일정

- 원서교부 : '98. 1. 23.(금)~2. 6.(금) 17:00 교학처 (토·일·공휴일은 수위실에서 교부함)
- 원서접수 : '98. 2. 4.(수)~2. 6.(금) 17:00 교학처 ※ 전화 교부신청, 우편 교부·접수(마감시한 이전 도착 - 등기우송) 가능함.
- 예비소집 : '98. 2. 9(월) 13:00 (음 1. 13.) ※ 원서 교부증 및 승려증(신분증) 필참.
- 교리 및 상식고사 : '98. 2. 9.(월) 13:30~14:30
- 면접 및 인성검사 : '98. 2. 9.(월) 15:00~17:00
- 합격자 발표 : '98. 2. 13.(금) 15:00 본교 게시판 및 전화안내
- 등록기간 : '98. 2. 18.(수)~2. 20.(금) 16:30 (음1. 22.~1. 24.)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 출신교 직인 등 날인
※ 출석 및 중요과목성적 기록과 작성 교직원 서명, 날인 후 테이프 부착
※ 고교졸업(예정)증명서 기록 날인 (입학원서 뒷면)
※ 대입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 원본 및 사본과 성적증명서 각 1부. (시·도 교육청 발급)(원본은 대조 확인후 반환)
나. 고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98년 졸업예정자 외
다. 승적증명서 1부 : (총무원 발급 - 최초 수계일 기록)
라. 최종 수계증(또는 계첩) 사본 1부.
마. 건강진단서 1부 : (대학입시 또는 입사용 - 보건소, 병의원 발급)
바. 은사 추천서 1부 : (은사, 사숙 등)
사. 호적 등본 1부.
아. 주민등록 등본 1부.
자. 칼라사진(오조가사 수한 반명함판 3×4Cm) 4매 제출, 3매 원서부착
차.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1) 원서대 및 입시요강 : 3,000원
(2) 전 형 료 : 55,000원

※ 이 추가모집 공고외의 사항은 기 배포된 정시모집 요강에서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학처로 문의바람.

학교법인 승가학원 中央僧伽大學校

135-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56
교학처 ☎ (02)925-5507~9,926-4377(내선 202~5) FAX (02)928-4302



도영스님 조계종 포교원 표창패 받아

조계종 제 17교구 금산사 주지 도영스님(사진 우)은 18일 금산사에서 열린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수계식에서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으로부터 전북지역 군·청소년 포교에 진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패를 수여받았다.

도영스님은 육군 제2훈련소 호국연무사 등 4개의 군법당 신·증축에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전북 지역에 파라미타지회를 결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금산사 산하 전북불교회관 등을 활용 지역포교에 앞장서 왔다.

"신문지로 다보탑 만들었다"

신문지 재활용 공예가 심우출씨



신문지 공예가 심우출씨(37)는 요즘같은 IMF시대에 참으로 유용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다보고 난 신문지를 이용해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품들을 척척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2년전 버려져 쌓여있던 신문 뭉치를 보고 '아까운 저 신문용지로 뭔가 쓸모있는 걸 만들 수는 없을까?' 하고 고민하던 중 자신의 손재주를 이용해 신문지 공예라는 생소한 분야에 뛰어들었다.

"우리주변에 널려있는 폐신문지 한 장이 이렇게 훌륭한 소품이 될 거라고는 아마 생각지도 못할겁니다. 하지만 신문지로 만든 소품들은 무척 튼튼하고, 정교하며 실용적입니다"

불자인 그가 첫작품으로 제작한 것이 다보탑. 꼼꼼하고 섬세하게 만들어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발한다. 이후 독서대 겸 찻상, 두레박, 물지게, 어린이자전거, 하트벽걸이, 초가, 장승 등을 만들었는데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하고 실용적이다. 그는 "앞으로 이 탑옆에 신문지로 만든 소나무도 한그루 심고, 지극정성으로 탑돌이를 하는 여인들의 모습도 신문지를 이용해 만들어 세울 생각"이라고 말한다. (02)678-8904

이은자 기자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 291,080원 △윤필자 157,500원 △김경영 150,000원 △구본준 80,000원 △이순애 50,000원 △장보혁 50,000원 △박준자 50,000원 △오영찬 50,000원 △사기순 50,000원 △전수연 42,500원 △송준영 30,000원 △문홍만 30,000원 △성정자 30,000원 △한영해 30,000원 △배학남 30,000원 △도세미 25,000원 △한 주 한끼굶기 864,000원 〈1월21일 현재 총 903,280,009원〉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교차로

통도사 본말사 주지회의



월파 통도사주지는 23일 감로당에서 본말사주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97년 결산 및 각종 종무현안등이 진행됐다.

안양교도소서 떡국공양



현성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회장 스님은 28일 안양교도소를 방문, 3천5백여명의 재소자들에게 떡국공양을 베풀고, 선망부모님께 올리는 법회의식을 봉행했다.

관음사 신년법회 봉행



이두 청주 관음사주지는 23일 청주불교방송국 10층 문화센터에서 신년법회를 봉행했다.

부천 청소년 예술제 열어



영달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부천지회장 스님은 19일 부천시민회관 소강당에서 '맑은 세상, 청소년 세상, 부처님 세상'을 주제로 1주년 기념식 및 청소년예술제를 개최했다.

불교TV에 1억원 지원



현해 원정사 주지는 18일 제4교구 본말사 주지모임을 갖고 불교TV에 1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결의사항은 교구종회의 최종결의를 거쳐 시행될 방침이다.

종교인 평화회의 신년하례

정각 부산종교인평화회의 공동대표(미륭사 주지)는 22일 YMCA 16층에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6개 종교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예천군 사암련 회장에

법용 예천 용화사주지스님은 10일 개최된 예천군불교사암연합회 임시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됐다.

황희문화상 대상 받아



원철스님(시인)은 24일 오후2시 예술의 전당 미술자료영상실서 열린 '98년 자랑스럽고 빛나는 황희문화상' 시상식에서 시 '바람' '붉은색 염주' 등으로 정신문화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법당·교육회관 준공법회

선일 법명사 부루나포교원 주지는 8일 오전10시30분 인천시 서구 가좌 3동 83-2에 소재한 교육회관과 법당 준공법회를 봉행한다.

정토학회 재발기 회의



정태혁박사(동국대 명예교수)는 2월3일 동국대 90주년기념 문화 예술회관에서 정토학회 재발기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 재개를 위한 △회칙 △임원 등을 재정비 한다.

스리랑카 독립 50돌 리셉션

세네비라트나(H.E.G.D.I.G. Seneviratna) 스리랑카 대사는 4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정계 종교 문화계 인사들을 초청 독립 50주년 기념 리셉션을 갖는다.

동국불교미술인 신년하례식

전연호 동국불교미술인 회장은 15일 동국대 문화관 그릴에서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이날 신년하례식에는 송석구 동국대 총장, 보광 백주년 기념사업 본부장, 홍윤식 문화예술대학원장 등 1백여명이 참석, 동국불교미술인회 발전 등을 논의했다.

만해교육원 회장 취임

김인택 대한불교청년회 직할 서울불청회장은 16일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만해교육원에서 제13대 회장 취임식을 갖고 신년업무에 들어갔다.

화재 김용사에 성금



부산 감로사 주지 혜총스님과 신도 40여명은 구랍 30일 원인불명의 화재로 법당 3개동이 전소된 경북 문경 김용사(주지 자광)를 위문했다. 이날 성금 2백5십여만원과 1백5십여만원의 생필품을 전달한 혜총스님과 신도들은 김용사의 이른 복원을 기원했다.

혜총스님은 "작은 정성이지만 김룡사 복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전국의 불자들이 자기일처럼 관심을 가지고 복원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로잉 업 클리닉 개설

김희선 前 목동청소년회관 상담실 전임강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08번지 한국영재연구원 빌딩 1층에 'GROWING-UP CLINIC(성장발달클리닉)' 문을 열었다.

용문사 도각스님 입적



보현원 양평공원 대표이사이며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사무총장인 도각스님이 20일 오전 1시20분 경북 예천 용문사에서 입적했다. 세수 60, 법랍48년.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22일 오전 11시부터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문사 경내와 다비장에서 각각 엄수됐다.

도각스님은 1938년 경북 문경에서 출생하여 1950년 10월 20일 문경 김용사에서 송월스님(해인사)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제 5, 8, 10대 조계종 종회의원 85~92년 총무원 사회부장을 역임했다.(02) 738-4551~5



고물상에 실려가는 불상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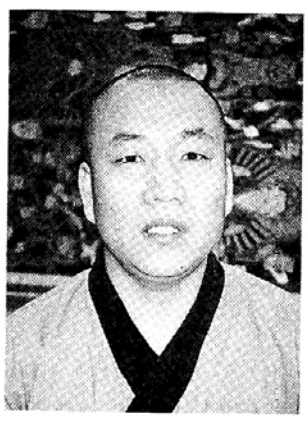
'부처님! 날씨도 추운데 리어커에 실려 다니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16일 서울 종로에서 휴지 철물 등 고물을 수집하는 리어커에 실린 '멀쩡한' 불상 6구가 애처롭다. 리어커의 주인인 고물상인은 "모사찰에서 쓸모가 없다며 내다 버리는 것을 가져왔다"며 "필요하면 1구당 7천원에 판매하겠다"고 제안까지 한다. 사찰에서 신도들의 불심으로 조성돼 여법하게 봉안됐을 석가모니 부처님상을 고물처럼 취급했다는 사실이 보는 불자들을 아연실색케 한다. IMF시대 축처진 어깨로 머리를 숙이고 걷는 길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 아직 못깨달은 중생이 버린 불상은 결국 우리들의 모습이다.

김원우 기자

"집집마다 자기가 그린 불화 걸었으면…"

전통탱화 그리기 20년 최성훈 씨



원력 있는 불자

"의식속에 보이지 않는 검열기준이 있어서 탱화를 집에 모시는 것을 금기시하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일본에서는 손톱깎기에도 부처님형상이 들어갑니다."

대구불교사회교육원에서 일반인에게 탱화를 지도하고 있는 최성훈 거사(40·경북 칠곡군 동명면). 최거사는 불화의 종류를 예배용과 감상용으로 나눈 뒤 감상용은 접안식을 하지 않으니 집안에 모셔도 문제될게 없다고 말한다. 생활불교가 정착된 일본에서는 가정마다 불화를 봉안한다고 덧붙혔다.

불화 대중화·현대화 '화두' 비디오아트 접목 구상

최거사가 삭발까지 하면서 개량한 복을 입고 불화보급에 나서는 이유는 불화의 대중화가 불교의 생활화를 앞당기는 방편으로 보기 때문.

"불화를 배우면 정신집중이 잘되고 신심이 고취되며 가족이 함께 그릴 경우 부부화합이나 자녀교육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불화는 실내를 불심이 깃든공간으로 꾸미는데도 일조합니다" 전통불화가 생활속에 응용될 수 있는 소지가 무궁무진하다는 최거사의 불화예찬론은 끝이 없다.

초보자의 경우 주 1회씩 1년간 강의를 받으면 관음보살상 정도는 거뜬히 그릴 수 있게되며 그룹전시회도 가능하다고 한다.

최거사는 동국대 미술학과와 同대학원을 졸업해 학문적 체계를 밟았으며 20년전 불화를 그리기 시작해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원덕문스님에게 사사했으며 93년 서울 경인미술관에서 제1회 불심전(佛尋展)을 개최한바 있다.

미술학 석사학위를 갖고 전통탱화를 그리는 사람은 최거사가 처음으로 이론적 바탕과 장인정신을 고루 겸비했다.

최거사는 전통불화를 고답적으로 답습하는데서 벗어나 현대적 불화를 창작하려는 열정을 늘 품고 있다. 얼굴의 반은 불보살 형상을, 나머지 반은 현대인의 군상을 표현한 과격적인 작품이나 비디오아트와 전통불화를 접목한 작품도 구상중이다. 불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단체를 설립하려는 꿈도 버리지 않고 있다. 그에게 있어 불화의 대중화와 현대불화의 새로운 장르개척은 하나의 화두다.

대구=이윤호 기자

삼선승가대학

신입생 모집 공고

삼선승가대학에서는 1998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 다 음 ◆

- 모집학과 : 사미니과
- 모집인원 : 사미니과 00명
- 전형일시 : 1998년 2월 7일 오전 10시
- 구비서류 : ① 입학원서 (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 1통
  ② 승려재적 증명서 …… 1통
  ③ 은사스님 추천서 …… 1통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1통
  ⑤ 승려증 및 주민등록증 양면 복사본 …… 각1통
  ⑥ 증명사진 …… 3매
  ⑦ 본인도장
- 준 비 물 : 오조가사, 장삼, 필기도구
- 연 락 처 :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3가 255번지
  ☎ (02)923-0582, 922-9652

불기 2542년 1월 일

삼선승가대학장 묘순

나를 바꾸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

원효학당

1998학년도 1학기 신입생 모집

■ 모집요강
- 입학자격 /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실분
- 모집과정 / 동장과정(2년제) 00명
- 전형방법 / 서류전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사진 3매
- 원서교부 및 접수마감 / 2월 28일
- 등 록 금 / 300,000원
- 개 강 일 / 3월 3일(화)
- 출석 및 통신에 의한 체계적인 학사 운영

■ 특 전 / 징흥생 선발, 소정의 학비 면제
각 과정별 법사학위 수여

■ 저녁불교강좌 신설!!
원 효 연 구 I(김상현박사, 동국대)
매주 목요일 오후 07:30-9:00

"주간·저녁·통신 강좌 편성"

■ 신규강좌 및 강사
삼국유사(정병조박사, 본원 원장)
선의 이론과 실제 (인환스님, 동국대)
아함경연구(최봉수박사,동국대)
현대사회와 불교윤리(허남결박사, 동국대)
서산사상연구(김종명박사, 동국대)
논어(진성규박사, 중앙대)
고타마 명상과 깨달음의 과학(김사철박사, 동국대)

◆ 본학당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불교영어독해강좌 (초급)!!
보조지눌의 〈수심결〉(김종명박사, 동국대)
매주 수요일 오전 10:20-12:00

원효학당은
동서양의 철학사상으로부터 현대의 제반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접근을 통해 불교사상의 요체를 현대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신하고 심도있는 교과과정을 통해 깨끗하고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 원효학당 ☎ (02)445-8959 /3411-6167~8
(지하철 3호선 대치역 ▶ 개포5단지 주택은행 옆)

"노인들 겨울나기 도움됐으면…"

법조인불교회, 자광원에 쌀·기름 기증



법조인불교회(회장 김홍근)는 20일 오후 성남 자광원(원장 김정자)을 들러 무의탁노인들을 위로하고 쌀 25포, 난방용 기름 10드럼을 기증했다.〈사진〉

고영준(제일종합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와 총무인 오욱환 변호사와 함께 자광원을 방문한 김홍근회장은 "추운 날씨에 IMF한파까지 겹쳐 노인들이 더욱 외로움을 느낄 것 같아 회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자광원 김정자원장은 "새해 들어 외부지원이 거의 끊어져 자광원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던 차에 도움을 받게돼 더욱 감사하다"고 말했다.

회장인 김홍근변호사를 비롯 부회장에 전창렬·김창수 변호사와 권광중 서울고법부장판사(서초반야회 회장) 등 판·검사, 변호사, 민사조정위원 등 2백여명의 법조인으로 구성된 법조인불교회는 업무상 바쁜일정에도 격월간 정기법회와 사찰순례 법회를 열고 있으며, 매년 북지시설을 지원해 왔다. 특히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실천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돕는 자비행을 통해 '깨달음의 사회화'를 실현하고 있다.

한편 자광원은 지난해 성남시로부터 치매요양원으로 사용할 건물 3개동 총 190평의 증축허가를 받아놓았으나 경제난으로 외부지원이 거의 끊어져 착공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1년내 공사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그린벨트지역에 묶여 어렵게 따낸 허가가 취소될 위기.

자광원(0342-759-5320)은 불자들의 작은 정성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은행(예금주 김정자)=074-24-0048-350. 〈재〉

병상아픔 나누는 '자비 의술'

탐방 국립의료원 법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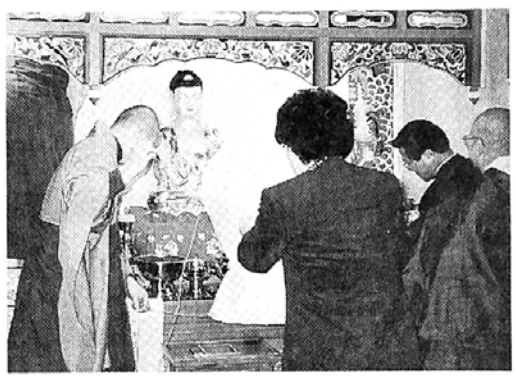
18일 낮12시 국립의료원 지하 법당에는 간호사, 환자 및 보호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 단장된 법당의 모습에 기뻐하며 건강을 발원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립의료원법우회(50·회장 황영희 간호과장)는 회원 50명과 파주 보광사주지 효림·불교자원봉사연합회장 성덕·자비의전화 정덕스님을 비롯 주양자 자민련부총재와 환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점안식 및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법당 폐쇄 위기 등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여서 더욱 의미가 깊었다.

이날 전임회장의 전출로 새 회장에 취임한 황영희 제3대 회장은 "회장직의 공석으로 잠시 중단됐던 월2회 수요법회와 무료 진료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법우회는 89년 11월23일 당시 국립의료원장이었던 주양자씨와 안욱수 흉부외과장 등 불자 간호사 10여명의 원력으로 창설.

90년 8월 법상스님(대구 반야선원 주지)이 지도법사를 맡아 4.5평 가량의 지하 법당에서 20여명의 회원들



◇지난 18일 지하 법당에서 봉행된 '부처님 점안식'.

89년 창립…환자들의 손발

보육원등서 무료 진료활동

과 환자와 보호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정기법회를 봉행하며 본격적인 병원포교를 시작했다.

둘째·넷째 수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한 정기법회, 사찰순례와 성남 자광원, 시흥 혜능보육원 등의 무료 진료봉사를 발판으로 자비행을 내실화하는 한편 초파일 연등 만들기, 불우환자 병원비 지원 등 적극적인 신행활동을 펼쳐왔다. 또 96년 10월부터는 불교자원봉사연합회와 결연을 맺어 매일 조편성을 해 환자들의 수족 역할을 해주는 봉사행도 실천하고 있다. 타종교세가 강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던 병원 직원들도 차츰 협조적으로 변했고 투병환자들도 의지처로 법당을 찾게 됐다.

이렇게 직원들을 비롯한 환자·가족들의 정신적인 안식처와 기도처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정덕스님과 불교자원봉사회 회원들의 아낌없는 후원과 5년8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온갖 궂은일을 도맡아 하며 텅빈 법당을 묵묵히 지켜왔던 이보현경보살들 자원봉사자들의 땀방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김주일 기자



북녘 의약품보내기 5천만원 전달

북녘동포돕기불교추진위원회 부총재 인곡스님(태고종 총무원장)과 성초정사(진각종 통리원장)는 22일 한겨레신문사를 방문 '북녘어린이 의약품 보내기운동'으로 모금한 성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 이 성금은 불교추진위가 지난해 6월부터 "북녘어린이에게 생명을!"이라는 구호로 한겨레신문사 및 타종교 단체와 공동으로 펼치고 있는 '남북어린이 어깨동무 의약품 보내기 운동'에 동참한 불자들의 보시금이다.



BBS 새 이사장·사장 취임식

불교방송 제3대 이사장 도후스님, 제4대 사장 성낙승씨의 합동 취임식이 20일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열렸다. 성낙승사장은 취임사에서 △경영관리의 획기적 쇄신 △방송질의 개선(불교포교방송으로 거듭나기) 등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월주(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조계종 종회의장) 홍파(관음종 총무원장) 정우(불교TV사장)스님, 서돈각이사장(대한불교진흥원)등 불교방송·진흥원 이사회의 이사와 전직원이 참석.



전국 염불만일회 발원법회

정토세계를 열어가는 참된 불교 실천수행 기풍을 고취하고 염불신앙으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자 결성된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 발원법회가 18일 동산반야회 법당에서 봉행됐다.

동산법당 2주년 기념법회도 함께 가진 이날 행사에는 공동대표인 보광(정토사주지·동국대교수)·해장(건봉사주지)스님, 김재일(동산반야회 회장)법사를 비롯한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백련사 해조음합창단 연주회

태고종 백련사(주지 운경) 해조음합창단 연주회가 17일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연주회는 합창단의 찬불가와 어린이 민속무용단, 대원여고 고적대의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총무원장 인곡스님을 비롯한 종단간부와 국민회의 장재식의원, 이정규 서대문구청장, 김평락 시의원, 백련사 신도회원 등 8백여명이 참석했다.

"발우공양 실천 IMF 극복"

제주 붓다·관음클럽 절약 실천운동 전개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거사림·보살회인 붓다제주중앙클럽(총회장 홍재만)과 제주불교관음클럽(회장 김인희) 회원들이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근검절약의 생활실천 캠페인을 벌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붓다클럽은 16일 오후 제주시 상록회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IMF 위기 극복을 위해 수행자들의 청빈생활의 상징인 '발우공양정신 되살리기' 캠페인을 회원들이 앞장서서 펴기로 결의했다.

이날 홍재만회장은 "발우공양은 누구나 똑같이 나누어 먹는 평등공양이며, 위생과 환경보호의 청결공양, 낭비를 줄이는 절약공양, 단결과 화합을 이루어 내는 공동체공양의 의미를 갖는 불교정신"이라며 "IMF에 맞는 절약·환경보호운동으로서 불자들이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관음클럽도 지난 6일 제주불교인 신년하례법회를 주관,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범불교인의 동참을 호소하고 제주 불자들의 참회와 발우공양의 지혜로 난국을 극복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1세기 방송포교사 다짐"

MBC 전국불교研 첫 합동수련

17,18일 해인사에서는 서울, 부산, 대구에서 모인 문화방송불교연구회 회원들의 알찬 모임이 있었다. 96년 서울 MBC불교연구회 창립을 필두로 97년 대구, 부산이 차례로 창립된 이래 처음 가진 합동수련대회.〈사진〉

그간 각 지역의 방송 일선에서 불교연구 및 불교 바르게 알리기에 주력해 왔던 이들은 해인사 주지 보광스님의 법문을 경청하고 회원 상견례와 간담회로 천날을 마무리 했다. 새벽예불의 지극함으로 시작된 둘째날은 포교국장 경성스님의 안내로 팔만대장경, 산내암자인 희랑대, 백련암을 참배했다.

서울 문화방송 유희근 회장은 앞으로 호남권, 충청권 등의 지역사에도 불교연구회를 창립시켜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며 조만간 마산, 전주, 대전 문화방송에서도 불교연구회 창립을 위해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올 4월경 두번째 합동 수련대회를 부산 범어사에서 치를 예정인 문화방송불교연구회는 각 지역사의 내실있는 법회운영을 통해 보다 깊이있는 매체포교를 펼치게 된다.

부산=천미희 기자

우리 모임에선

만불회 감포서 방생법회

단불회(회주 학성스님)는 2월8일부터 9일까지 1박2일 동안 감포 문무왕릉으로 '달맞이 방생법회'를 떠난다. 전국에 있는 만불회원 3백여명이 참석할 이번 행사는 경주 기림사를 거쳐 감포 앞바다에서 달맞이와 방생법회를 봉행한 뒤 다음날 청도 운문사를 둘러보는 일정으로 꾸며진다. 서울만불회 출발 9시 강남 아크리스백화점. 회비 2만5천원.
(02)522-0101

'따뜻한 손…' 후원자 모집

경주 불교사회연구원(원장 돈관스님, 0561-41-0762)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따뜻한 손 내밀기' 운동 후원자를 찾고 있다. 구랍 20일 캠페인을 시작해 2백여명의 후원자를 확보,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양남댁 할머니(86세)에게 연탄 50장, 쌀 한말을 전달한 바 있는 이 모임은 단돈 천원의 정성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은행(예금주 한국불교사회연구원)=604-01-0457-311.

대구구도회 국난극복 3천배

한국불교연구원 산하 대구구도회(회장 권오주)는 24일 오후 9시부터 25일 오전 5시까지 합천 해인사 지족암에서 일타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의 지도로 '나라 경제 살리기 3천배 철야정진대회'를 열어. 권오주회장은 "나라의 위기를 함께 극복한다는 의미에서 회원들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고 말했다.
(053)654-8533

경기도청 불자회 신년정총

경기도청불자회(회장 조한유)는 24일 수원 용주사에서 고문인 용주사 주지 정락스님과 경기도의회 홍성호의장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법회를 가졌다. 이날 150여 회원들은 총회를 통해 불자회 정관을 확정했다.
(0331)249-4317

지하철법우회 위기극복 기도

지하철법우회(회장 신철호)는 2월10일 오후 7시 잠실법당에서 신년하례법회 및 정기총회를 갖는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도법회를 겸한 이날 총회에서 신철호 군자차량사무소 소장을 회장에 재추대할 예정. (02)412-0108

청소년 자원봉사 수기공모

한국불교청소년문화진흥회(이사장 박용열)는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사회봉사, 효행실천, 근로면학 부문 등 청소년자원봉사 활동수기를 모집한다. 2백지 원고지 30매 내외 분량. 부문별 당선작 3편, 우수작 2편에 각각 장학금 50만~1백만원 지급.
(02)425-3002

장흥학생회 동계 수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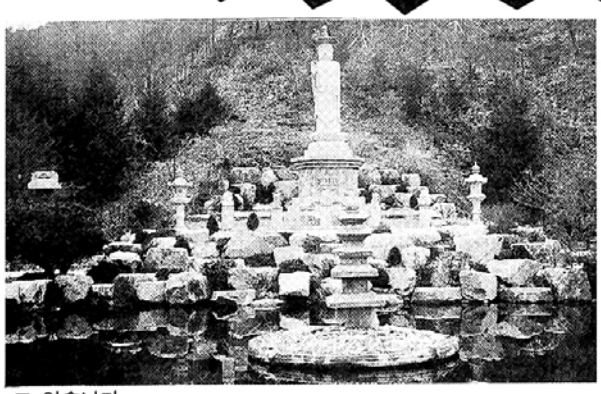
장흥학생성불회(회장 위성철)는 1월28일 장흥 장원사에서 구정법회를 열고 2월 1~3일 동계수련회를 개최. 대학생까지 청소년은 누구나 참여 가능. (0665)63-2687

봉사모임 '은하수' 회원모집

청담종합사회복지관 봉사동아리인 은하수(회장 복상미)는 2월 1일부터 30일까지 봉사활동을 매개로 한 청소년 집단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할 중·고등학생 회원을 모집. (02)806-1375

정초 기도, 윤달 사찰순례에 불자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조계종 마이산에는 금당사가 있다



무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나라 전체가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힘겨운 한숨과 번뇌만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용기있고 지혜있는 신심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라북도 진안군 마이산은 천지음향의 조화가 만들어 낸 그야말로 영산(靈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산에 금당사가 창건된 것은 통일신라시대인 서기 814년의 일입니다. 마이산과 금당사는 또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건국을 발원하고, 일제때는 의병항쟁의 근거지였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1천여년간 꿋꿋이 마이산의 정기를 지켜온 금당사는 구산팔해(九山八海)의 화엄성지(華嚴聖地)로 신비한 영험을 갖고 있는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전북지방 문화재 제18호인 세분의 부처님은 수천년 묵은 은행나무를 통채로 조성한 국내 유일의 불상이기도 합니다.

보물 제1266호인 높이 9m, 폭 5m의 대형괘불에 모셔진 관세음보살님은 17세기 조선시대 불자들의 수승한 신심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당사의 운치를 한껏 더해주는 것은 경내의 연못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백제시대의 5층 석탑입니다.

모든 불자 여러분이 마이산의 정기와 금당사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오늘날과 같은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두손모아 발원합니다.

금당사는 언제나 불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열린 사찰' 입니다.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41번지
금당사 주지 삼혜 합장
☎ (0655)32-0944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5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모집학과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 지원자격
진실한 불자가 되고자 하는 분

● 강의시간
출강/통신 : 주5일 오후7시~8시30분까지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8년 2월 28일까지

● 교과목 : 주5일 수업

1학년	1학기	불교학개론	선종사상사	한국불교사	인도불교사	불전개설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법화사상	정토사상
2학년	1학기	의식이론	반야사상	포교방법론	불교미술	유식철학
	2학기	불교복지론	불교학특강	의식실기	불교상담학	원전강독

※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경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가. 포교당 개설시 상담지원 가능
나.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다.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 전화 : (02)776-7156, 773-9171, 754-1613 ■ 팩스 : 756-7258

법회안내

분당 천은정사 (0342)701-0770
초하루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
보름기도 매월15일(음) 오전10시

◇주지 우학스님
지장재일기도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기도 매월24일(음) 오전10시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초하루 특별기도 1월28일~2월3일(양) 오전10시

삼선포교원 (02)922-9652
정기법회 매주 화요일 오전11시, 오후7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3시

◇주지 지광스님
중·고생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5시
청년회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7시

삼척 삼장사 (0397)73-2487
어린이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3시
일반신도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관음재일기도 매월24일(음) 오전10시
초하루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

호국 총경사 (0662)72-4207
수요법회 매주 수요일 오후7시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오후7시
초하루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기도 매월24일(음) 오전10시

대불선원 (032)343-5046
초하루법회매월1일(음)오전10시30분
묘법연화경 강의 및 사경법회 매주 월요일 오전10시30분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주지스님(대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수첩

설산수도 깨달음 되새겨
룸비니대학생 설광대회

6년간의 설산수도로 깨달음의 터전을 닦은 부처님, 이런 의미를 되새기며 불자로서 수행도를 몸소 익히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이 있다.

룸비니대학생회(회장 박형근)가 2월2일부터 5일까지 3박4일동안 속리산 법주사에서 갖는 '98 룸비니 설광대회'가 그것.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입산법회' '룸비니 가요제' '신행상담' '속리산 산행' '즉흥 연극' 등으로 진행된다. (02)3662-7432

"초발심 불자들 오세요"
강남포교원 근본불교학당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 현재 절에 다니고 있지만 불교의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불자들은 이곳으로 오십시오.

강남포교원(원장 성열)은 2월3일부터 3월31일까지 두달간 '근본불교학당'을 개강한다.

매주 화·금 오후 8시에 실시되는 이번 강좌는 강남포교원장 성열스님,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 설성경 연세대교수 등이 불교의 오묘한 맛을 일깨워 준다.

강의 내용은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깨달음 △불교문화 △불교경전 소개 △불교와 우리문학 등이다. (02)539-2631

"작은 변화 큰 깨달음"
대불련 백양사 수행학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성철) 수행학교는 해마다 전국 불교학생회 회원들이 참가, 발심을 하고 도반애를 느끼는 뜻깊은 자리. 올해도 2월5일에서 9일까지 5일간 교장 지선스님(백양사 주지)을 비롯 토진, 금강, 정운스님과 백남석법사 등을 강사로 초청, 장성 백양사에서 개최한다.

'작은 변화에서 큰 깨달음으로'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수행학교는 조그마한 실천을 통해 내 자신과 주변의 작은 것을 변화시키며 올바른 삶을 가꿔 나갈 수 있는 좋은 인연의 자리. (02)732-0239

불심이 빚은 예술혼 감상
신라문화진흥원 소금강답사

불교문화 유적지를 찾아가 잊혀져가는 불교문화의 숨결과 문화재 사랑의 필요성을 배우고 온다. 이런 발원을 갖고 신라문화진흥원(원장 진병길)은 2월1일 경주 소금강지구로 답사를 떠난다.

이번 행사는 '용강동고분' '동천동 사방불탑신석' '백률사 마애탑' '소금강 산동록마애삼존불상' '석조지장보살상' '석탈해왕릉' 등을 조훈철 경주대학교 강사의 안내로 둘러보게 된다. 모집인원은 50명. 참가비 1만7천원. (0561)771-1950

대동단결로 국난 극복
덕유복지관 대보름민속놀이

덕유사회복지관(관장 영담스님)은 2월8일 '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을 마련한다.

예로부터 마을단위의 협동과 친목으로 동료애를 굳건히 하고 환난을 극복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던 우리의 전통민속놀이인 윷놀이, 신발던지기, 닭싸움, 투호, 제기차기, 줄다리기 등을 통해 잊혀져가는 우리의 놀이문화를 되살린다. 지역주민과 어울리며 다져진 친목과 화합은 IMF 한파를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032)325-2161


◇대불련 수행학교의 도반 느끼기 시간. 손에 손을 맞잡고 한마음 한뜻으로 더불어 사는 자세를 기른다.

설날 사찰 합동차례

1월28일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

가정에서는 고운 설빔으로 갈아입고 조상들의 은덕을 기리는 차례를 지낸다. 사찰에서도 사부대중이 부처님전에 함께 모여 합동차례를 지내는 곳이 늘고 있다.

서울 조계사 오전10시 (02)732-2115
서울 구룡사낮12시(02)575-7766
서울 대각사 오전8시 (02)765-0972
서울 법안정사 오전7시 (02)646-4975
서울 삼보사 오전10시30분 (02)352-6407
서울 법련사 오전10시30분 (02)733-5322
서울 화계사 오전11시 (02)902-2663
춘천 석왕사 오전10시 (0361)52-5040
원주 법흥사 오전10시 (0371)42-2701
부천 석왕사 오전7시 (032)663-7771
서울 능인선원 오전10시30분 (02)577-5800
부산 백룡사 오전7시 (051)758-0318
수원 용주사 오전9시30분 (0331)34-0040
청주 관음사 오전10시 (0431)56-6254
예산 수덕사 오전10시 (0458)37-6565
김천 직지사 오전9시 (0547)436-6174
대구 동화사 오전10시 (053)982-0101
양산 통도사 오전9시 (0523)82-7182
의성 고운사 오전10시 (0576)33-2224
구례 화엄사 오전8시 (0664)782-7600

나의 수행일기



윤을순 〈前 동국대교수〉

17년전 동국대학교를 정년퇴임한 후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부처님을 믿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빌기만 한 기복에 젖어 살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4년전이었다. 자정부터 새벽내내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수행법을 실천하게 되었다. 이 기도는 〈금강경〉 내용의 핵심인 '실무중생 득멸도자(실로 멸도할 중생이 본래 없다)'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잠이 본래 없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잠이 본래 없다'는 〈금강경〉 말씀에 깊은 신심을 내면서 철저한 '자시가행정진기도' 및 철야기도를 실천수행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동안 피를 말리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럴때마다 목숨을 걸다시피 결사적으로 기도정진을 하였는데, 그 결과 그렇게 참기 힘들었던 잠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고 잠이 줄어드는 것에 반비례해서 신기하게도 기분은 더욱 상쾌하고 생활은 항상 즐거웠고, 83세라는 연령은 어느덧 잊어버려 마음은 더욱 젊어지고 씩씩해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비단 잠 뿐만이 아니었다. 그동안 퇴직한지 오랜 시간이 흘러서인지 늘 긍색한 생각이 노후의 삶에 많은 짐이 되었는데, '가난도 본래 없다'라는 믿음으로 꾸준히 이 수행을 하다보니, 어느새 마음이 든든해짐과 동시에 돈을 원했던 것도 아닌데 돈이 생겨 생활이 윤택해지고 매사가 더없이 풍족해지게 되었다. 이 역시 매우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잠이 본래 없다'는 〈금강경〉 말씀을 또다른 측면인 '모든 고난도 본래 없다'에 적응시키기 위해 '바른법 연구원'에서는 지난 여름 티벳 네팔 히말라야 일대로 성지순례를 떠나게 되었다. 〈금강경〉을 꾸준히 독송하고 철저히 자기관리를 하다보니 힘든 고산병을 잘 극복하게 되었고 아울러 영적인 체험도 여러번 하였다.

실험정신 도전정신으로 성지순례에 임했던 결과 고산병도 이겨낼 수 있었다. 그야말로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득수지독송(得受持讀誦)' 즉 어떠한 경우라도 〈금강경〉을 독송하면 분명히 '무량무변한 공덕'이 있다는 것이 틀림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참으로 값지고 고귀한 체험이 아닐까 여겨지면서, 요즘처럼 어려운 IMF시기에 마음 깊이 새겨 보아야 할 소중한 실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기도 덕택에 잠이 어느 정도 해탈된 어느날 새벽에, 참으로 광명천지가 눈앞에 전개되는 듯한 황홀한 감격을 체험할 수가 있었다. 보살의 초발심(初發心) 환희지(歡喜地)가 있다고 하더니 그 환희심이란 바로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래서 '잠이 본래 없다'와 '모든 분별이 본래 없다'라는 부처님 말씀에 더욱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체험이 나 뿐만아니라 함께 이 기도를 해온 주위 도반들도 느꼈기에 이런 체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펴낸 책이, 이번에 출판된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신우당 刊)이다.

이 책을 통해 불법을 모르는 이에게는 부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현실적으로 어렵고 고달픈 이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게 되어, 우리의 부처님과 더욱 친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그리고 바른 법과 그릇된 법의 구분 기준이 모호한 요즘 시대에, 마음 밖에서 무엇을 찾는 것은 바른 법이 아니고 마음 안에서 그 원인과 해결을 찾는 것이 바른 법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바른법 연구원'이다. 정말 이런 일들은 부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남은 생을 더욱 부처님 시봉으로 보람있게 보내고 싶을 뿐이다.

"마음 밖에서 무엇을 찾을까"
금강경 수지독송…잠·가난·질병 극복



故 윤을순교수는 이 원고를 유문(遺文)으로 남기고 지난 17일 별세했습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빕니다.

게 시 판

♣ 법회

△오더산 기도법회=강화 선원사(주지 성원)는 2월5일 오대산 적멸보궁으로 기도 순례법회를 떠난다. 참가비는 3만원. (032)933-8234

♣ 알림

△금모으기 운동=통도사 부산포교원(원장 심산)은 2월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한다. 시간은 오후8시~오후11시. (051)816-2241

△불국사 승가대 발기모임=불국사 승가대 동문회는 동문회 발족을 위한 동문들의 소재파악을 하고 있다. 76년 제1회 대교과 졸업 이후 배출된 1백50명의 졸업생들의 연락요망. (02)353-5016

♣ 강좌

△여성교양문화=마산 중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홍스님)은 양재 패션코디 메이크업 인형컬트 서예 등 15개 강좌를 개설한다. 각강좌 3개월과정. (0551)31-8017

△다도교실=부산 죽로차문화원(원장 윤석관)은 초심자들을 위한 다도교실을 연다. 강의시간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051)246-7276

△청소년 자원봉사학교=서울청담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혜성스님)은 3월24일부터 6월30일까지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를 개설한다. 강의내용은 무의탁 노인방문 후원봉사, 자원봉사 시청각교육, 환경봉사활동 등이다. 수시접수 가능이며 참가비는 무료. (02)806-1375

△불교사상=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은 2월10일부터 14일까지 제119회 불교사상 강좌를 실시한다. 강사는 정병조 동국대 교수. (02)3411-6167

♣ 모집

△간병인=바라밀간병인협회(회장 효종스님)는 만55세 이하 불자 간병인을 모집한다. 수시로 접수하며 일정기간 교육 수료 후 취업가능. (051)637-5551

△지압자원봉사자=서울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스님) 마포재가노인복지센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맛사지 및 지압을 해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자격요건은 체대, 간호대학생 남·여 약간명. 자원봉사 학점 인정 가능. (02)365-3677

△자광원 자원봉사자=성남 자광원(원장 김정자)은 무의탁·치매노인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할 자원봉사자를 기다린다. (0342)759-5320

△설맞이 현물후원자=부산 개금사회복지관(관장 정여스님)은 독거노인을 비롯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50세대에 현금 및 떡국을 브시할 후원의 손길을 기다린다. (051)893-5034

△청소년 자원봉사단원=대전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안스님)은 농촌돕기, 거리홍보, 자원봉사 캠프 등에 한달 1회이상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단 제3기 단원을 모집한다.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이상. 30일까지 접수마감. (042)633-1141

△사찰 고시원생=고려선원 잠실분원(원장 영산)은 열심히 공부에 전념할 고시생들을 모집한다. 고시원은 특수방음벽을 설치한 조용하고 편리한 시설. 참선지도도 병행. 회비는 월 15만원부터. (02)412-9495

♣ 답사

△팔공산 갓바위=서울 광림사 연화복지원(원장 해성)은 2월7일부터 8일까지 무박2일동안 팔공산 갓바위로 성지순례를 간다. (02)202-5831

♣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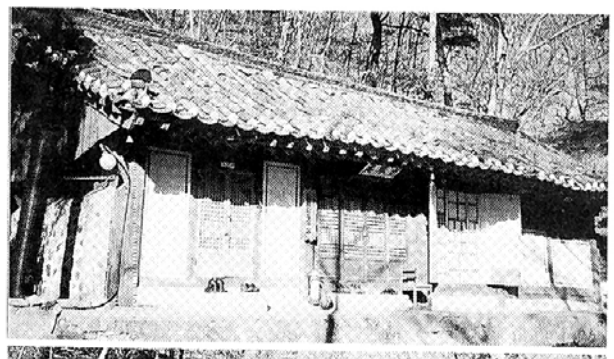
△천태종 금강불교대학(학장 이재창)은 21일 서초구 우면동 60번지 관문사로 이전했다. (02)576-6401

고령산 도솔암 중창불사 권선문


주지 성조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께!
소승은 작년 3월 조계종 25교구 말사인 도솔암으로 주지 임명받아 수행 정진중입니다.
불조의 혜명을 이어온지 어언 30여년, 이제 이 도솔암에서 마지막 수행정진을 발원하였습니다.
파주 고령산 도솔암은 드러나지 않은 명찰 기도도량으로 300여년동안 많은 선사들의 수행정진 내력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찌기 백용성 조사께서 19세에 견도하시고 해능선사를 스승으로 서원한 도량이며, 6.25전란 이후에는 도형선사께서 정진하시며 중창불사를 이루기도 하셨습니다. 그후로 영험있는 산신기도도량으로 많은 불자님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고찰인 관계로 쇄락해 감을 어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빈승이 불조의 높은 뜻을 후세에 길이 보존토록 서원하며, 도솔암 중창불사를 마지막 서원으로 발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불사를 계획하며 불자님들의 무루 동참을 기원하오니 어려움을 극복하는 복덕 자비 지혜를 심는 계기가 되어 만대의 복전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 1차 불사 개요 ●

요사채 1동 - 해체중창불사

대들보	600만원	서까래	3만원
상량대	400만원	기와10개	7만원
기 둥	150만원	기 타	1만원
주춧돌	100만원		

■온라인 번호 우체국 011742-0101242 (예금주:경현용)
■분할 입금 가능!

법 회 안 내

● 정기법회안내
- 음 1月 1日부터 보름까지 : 정초불공
- 음 1月 8日 : 입춘불공 - 음 3月16日 : 고령산 국산재
- 음 4月 8日 : 부처님 오신날(장엄등(1년) 5만원, 일일등(당일) 2만원, 삼성각·인등(1년) 6만원)
- 음 7月 7日 : 칠월칠석불공 - 음 7月15日 : 백중천도재일
- 음 10月15日 : 고령산 국산재

● 매월법회안내
- 음 매월 초하루 : 인등관음법회
- 음 매월 보 름 : 산신기도법회
- 음 매월 18일 : 지장재일(참회기도)

불기 2542년 무인년 1月

대한불교조계종 고령산 도 솔 암 住持 景 性 昭(성조) 합장

경기 파주시 광탄면 영장2리 山 50의 4 전화 : 0348-942-7703 / 호출 : 015-345-5158

3월의 독립운동가 용성스님

기리는 행사 '풍성'

음악제 · 세미나 · 전시회 · 유적순례
서초동에 대각사상연구원 개원

용성 진종선사(1864~1940)가 3월의 독립운동가로 지정됨에 따라 3월과 4월에 걸쳐 이를 기리는 음악제 전시회 세미나 유적지순례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용성스님은 3·1 독립운동때 민족대표 33인에 불교계에서는 만해 한용운스님과 더불어 참여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며 동시에 대각운동을 펼쳐 대중포교에 앞장서 온 선사.

깨달음을 얻은 선사, 독립운동을 하다 형무소에서 3년간 옥고, 역경(譯經)과 찬불가 활동 그리고 선농(禪農)병행과 참선만일결사를 발족해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에 진력한 스님의 면모를 조명하고 그 사상을 오늘에 구현키 위한 행사로 용성스님의 일대기를 창작 국악교성곡화한 '용성' 공연, 용성스님의 사상 및 근대불교사 연구를 위한 대각사상연구원 개원, 대각사상 학술세미나, 유물 유품전시회, 용성스님 열반58주기 법회, 개국이래 호국영령 영령천도법회 및 불우이웃을 위한 매일 무료급식, 용성스님관련 유적지 순례 등이 개최된다(표 참조).

특히 3월 13일 종로 3가 대각사에서 열리는 대각사상 학술세미나에는 도문스님(대각사 조실)의 기조강연과 '용성대선사의 생애(보광스님)' '용성대종사의 독립운동 관계(김광식)' '용성조사의 대각교 설립 배경(홍윤식)' '불교계 독립운동(김창수)' 등이 발표된다. 서초구 서초3동 현대전원오피스텔 201호에 사무실을 마련한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스님)은 앞으로 근세불교를 위주로 한 불교사상연구에 매진하며 세미나 개최, 논문집 발간 등 불교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간다.

이경숙 기자

◇ '3월의 독립운동가' 지정기념 용성선사 관련행사

일시	내용	장소
3.1	삼일절 기념행사	탑골공원
3.4	3·1운동 33인 민족대표 헌공법회	탑골공원
3.6	수계법회	대성사(583-1475)
3.13	대각사상연구원 개원	서초동 현대전원오피스텔
3.13	학술세미나	봉익동 대각사
3.22	용성스님 제58주기 법회	대각사(765-0972)
3.28	7유설법대법회	대각사(765-0972)
4.23~24	창작국악교성곡 '용성' 공연	국립중앙극장
3월 내내	개국이래 일체 호국영령을 위한 천도법회 및 무료급식	탑골공원
4월 내내	용성스님 유적지순례 및 법보시	하인사 화엄사 등

스님의 생애 선율로 그린다

4월 23~24일 국립극장 공연

국악교성곡 '용성' 마무리작업 박범훈교수



"우리나라 창작찬불가의 시조는 백용성 선사입니다. 용성스님은 직접 풍금을 연주하며 찬불가를 가르쳤습니다. 국악계에서 서양음악 기법으로 작곡된 최초의 국악곡이 김기수가 1939년 작곡한 '황화만년지곡'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국악곡이 일본 천황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곡이라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데 용성스님은 이보다 15년 앞서 오음계로 된 '왕생가'를 작곡하셨지요. 흥겨운 굿거리장단으로 된 신민요풍의 찬불가로, '왕생가'는 찬불가로서뿐 아니라 신민요의 창작국악곡으로 평가됩니다. 용성스님은 최초의 국악작곡가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인데 같은 국악작곡가로서 스님의 일대기를 국악교성곡으로 엮으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것도 소중한 인연이라 생각하며 부처님께 감사드릴 뿐이지요."

박범훈 교수(중앙대·국립국악관현악단장)가 정토사에서 용성스님의 일대기를 칸타타로 표현한 '용성' 마무리에 여념이 없다.

도문스님의 작시를 목정배교수(동국대)가 작사한 '용성'은 전체 공연이 1시간 20분이 걸리는 대곡으로 오는 4월23~24일 이틀간 장충동 국립중앙극장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음악제로 개최될 예정.

'용성'은 △서곡 △탄생 △출가 △시련 △독립운동 △대각 △육고 △역경 △대중포교 등 탄생부터 열반에 이르는 스님의 일생이 드라마틱하게 펼쳐진다.

특히 무대위에 연화대를 준비해 극적인 장면에는 연극적인 요소를 가미해 색다른 볼거리가 연출될 예정. 스님이 출가하려 암자에 가는 장면에서는 무형문화재 영산재 이수자 법현스님과 국립무용단이 나와 법고 나비춤 바라춤 등 불교의 식을, '대각' 부분에서는 아리아가 고조되는 가운데 무대 한쪽에서 풍금으로 왕생가를 연주하는 용성스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박범훈 교수의 지휘로 불광사 대각사 삼보사 청룡사 중앙불교 합창단 등과 국립합창단이 연합한 4백여 합창단이 무대에 서고 국립국악관현악단이 협연한다. 안숙선 김성녀 도신스님 등이 솔로로 나온다.

"휘나레 부분에서는 합창단과 관중이 '용성' '대각'을 번갈아 합창하며 장엄하게 마무리됩니다."

대선사 용성스님의 참모습을 음악으로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박범훈교수는 공연에 맞춰 '용성'을 두장의 CD로도 펴낸다.

〈숙〉

불심시심 〈115〉

강경을 끝내고

三月東風雨 (삼월동풍우) 삼월달 봄바람에 내리는 비에
前溪水政深 (전계수정심) 앞 시내의 물은 바로 깊어지네
草生繁世念 (초생번세념) 풀이 돋으니 번거로운 세속 생각 일고
花落靜禪心 (화락정선심) 꽃 지자 고요해지는 선정의 마음
燕補經年壘 (연보경년루) 제비는 지난 해의 보금자리 수리하고
鶯添往歲音 (앵첨왕세음) 괴꼬리는 작년의 울음을 보태고 있다
眼看春色好 (안간춘색호) 눈 앞에 보이는 봄 빛이 좋아서
講後一高吟 강경을 마치자 한 곡조 높이 읊다.

연담대사의 '삼월'이라 제한 시이다. 봄의 경치를 여실하게 서술한 시이다. 월력으로서의 계절이야 정월이 되면 이미 봄이라 하지만, 자연의 기후로 실감되는 봄은 삼월이나 되어야 되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이 시도 이렇듯 제자리로 돌아온 봄의 실상을 보여주는 시이다.

스님들의 삶이 원래 자연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계절감각이 여실하지만 이 시와 같이 봄의 한 단면을 묘사한다는 것은 역시 시인의 수사적 기질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겨우내 얼었던 시내가 봄 비로 인해서 풀려 흐르게 되어 지금껏 정체되어 있던 물이 흐르기 시작하니, 얼었던 시내가 갑자기 깊어지는 것이다.

봄이 되면 번거로워지는 세상 생각이라 한 표현은 역시 스님의 생각이다. 우리 속인으로서야 봄풀의 돋아남이 즐거움의 첫 단계인데, 오히려 잡된 걱정거리의 출현으로 이해하였으니, 수행자에게는 세속의 이끌림이 뒤따를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는 꽃이 오히려 선정에 들기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역시 세속인의 일상적 관념과는 거리가 있는 착상이다. 속인으로서야 꽃이 지면 서글픔으로 연상되는 것인데, 스님은 지는 꽃에서 오히려 선정의 고요함을 즐긴다.

제비는 지난해의 옛 주인을 잊지 않고 또 찾아와 묵은 집을 보수하고 있다. 한낱 날짐승에 불과한 제비이지만 매우 다정한 느낌을 주는 표현이다. 괴꼬리의 울음도 해를 지나 듣게 되니, 지난 해 그 울음일 것이로되 오히려 무엇인가 더 보탠 음성이다. 그렇게 잊지 않고 또 들려주는 것이니 정이 있어도 더 있을 정이다. 이것이 모두 진리이니, 경을 강하기로야 이보다 더한 진리가 어디 있으랴. 그러니 강을 파하고 한 수의 시를 이렇게 읊어보는 것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한명회의 삶 '소설로'

최민준씨 '달마상법' 펴내



한시대를 풍미했던 조선조 문신 칠삭동이 한명회의 삶을 그린 소설 〈달마상법〉(밀알刊)이 나왔다. 최민준씨가 펴낸 이 책은 한명회의 삶과 달마상법의 묘리를 그린 소설이다. 달마상법은 중국의 달마대사가 관상에 동물의 형상을 접목시켜 그 명칭이 유래된 것으로 천리(天理)에 따라 세상을 구제하고자 하는 치세를 위한 통치의 학문이라 일컬어진다.

용상 등 1백여가지가 넘는 물형의 상과 2백60 길흉도를 통해 개인의 앞날은 물론 한나라의 장래까지 알 수 있는 상법비전이 소설 전반에 걸쳐 사건을 풀어가는 핵심이다.

황룡사지 유물전시관 세운다

전남 영암엔 '도선국사유물관'

신라 최대의 사찰터 황룡사지와 도선국사 탄생지 영암군에 각각 유물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는 황룡사지 유물이 제대로 된 보존시설없이 방치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총사업비 2백74억원을 들여 2008년까지 '황룡사지 유물전시관'을 세우기로 하고 17일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 전시관은 연건평 1천4백50평에 지하1층(5백평), 지상9층(1층 1백50평~9층 80평), 높이 80m로 세울 계획이다. 외형은 황룡사지9층목탑을 본뜨고, 내부는 현대식 건축기법으로 구성, 황룡사지 출토유물 4만여점 및 경주의 중요모형을 제작, 전시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우선 18억6천만원(국비 13억, 도비 2억8천, 시비 2억8천)을 확보, 설계에 들어간다.

도선국사 열반 1천1백주년을 기념, 도선국사의 탄생지인 전남 영암군도 전국 각지에 분산 보관중인 도선국사 유물의 집중적인 관리와 과학적인 보존·전시를 위해 유물관을 건립한다.

99년 12월에 완공될 전시관은 국비 5억원, 도·군비 5억원 등 총 10억원의 예산으로 도갑사 경내에 1백평 규모의 전통양식으로 건립된다. 내부에는 도선국사 탄생설화와 행적 등을 기록하고 있는 유물은 물론 풍수도참사상을 밝혀줄 수 있는 각종 문헌 및 유물을 전시, 도선국사의 사상을 집대성하는 본산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군은 도선국사의 탄생지로 알려져 있으나 별다른 유물이 없는 실정"이라며 "도선국사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유물을 수집, 전시해 도선국사의 연구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詩로 읽는 생활불교

고형렬시집 '성에꽃 눈부처'



"이불을 어깨에 둘러감고 바라보던 창얼음/물이 되어 흐르는 은빛 부처, 찬란한 햇살/그때 내겐, 성에꽃을 부를 이름이 없었다."
(성에꽃 눈부처 중에서)

'소요산 입구에서' '설악산 끝 봉정암' 등 법향 그윽한 시들이 실려있는 고형렬시인의 〈성에꽃 눈부처〉(창작과비평사 刊). 일상적이고 인간적인 서사를 근본으로 하면서, 동시에 불법의 깊은 묘리를 시상 속에 담아냈다.

'山길 94'에서 시인은 진지한 불도 수행자의 모습을, 생활 속의 행복을 깔끔하게 펼쳐 보이는 시 '오이마사지' 등이 눈길을 끈다.

도갑사 문수동자상 첫공개

국립박물관, 보존처리유물 60점 전시

지난해 3월 도갑사에서 출토된 청동문수동자상과 광배가 보존처리를 거쳐 처음 일반에 공개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이 2월19일까지 '문화재와 보존과학 97'을 개최, 지난 한해동안 보존처리한 6백60점의 유물 중 '천마도 장니'등 대표적인 60여점을 연구결과와 함께 전시하고 있다.

93년 청주시 사뇌사지에서 발견된 4백여점의 유물 중 2백여점도 보존처리를 한 결과 중요한 고려시대의 명문자료가 새로 확인돼 눈길을 끈다. 향완·대야·풍탁·바루 등에 새겨진 명문에는 사뇌사와 선원사 두 곳의 사찰이름과 통화15년(997)부터 기유명(1249년경)까지의 연대가 나타나 있어 새로운 편년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문화재와 보존과학 '97', 청동문수동자상 등 보존처리된 유물 60여점을 볼수 있다.

1998학년도 제7기 법사 양성 교육을 위한
통신 출강 법사교육 신입 수강생 모집

불교교육·법사교육,
법사를 양성하는 도량,
한국불교법사대학!
선교방편으로 포교하는 법사(法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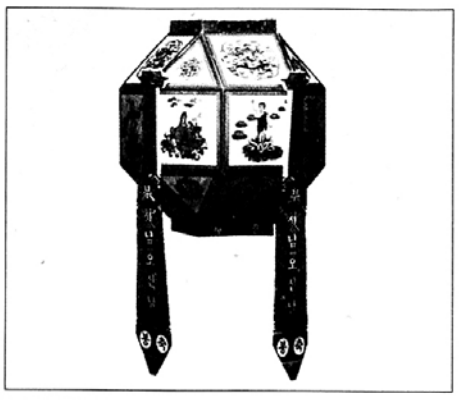
체계적인 불교공부로
믿음을 성취하고
지혜와 복덕이 무량광대한
부처님의 사절(使節)인 법사가 되도록
한국불교법사대학 도량에서 함께
육화(六和) 수행 정진합시다!!

특전
• 각 과정 수료시 법사호품수와 소정의 법사증을 수여함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법사불교신문에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모집안내
1.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2. 수업안내 : ① 출강수업 ② 통신수업
3.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대학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5.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대법사과정 = 2년
6.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8년 1월 5일 ~ 2월 25일까지
7.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대학 교무처

韓國佛敎法師總聯合會 附設
한국불교법사대학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 737-5305
FAX : (02) 737-5305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인하 하였습니다.



가격 인하 단행!!
• 외환 위기의 우리경제에 외국산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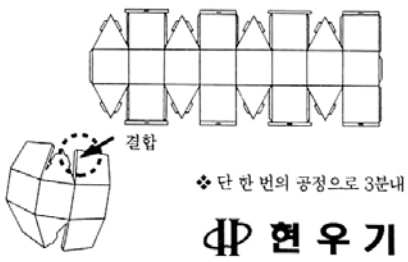


❖ 연등초벌용(8Cm, 10Cm) ❖ 초벌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 연등완성품

문의 하실 곳 :(02)277-1548 H:(016)552-9360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곁지 합지 방식)



결합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출•판•소•식

학술교양지 '고미술'



한국고미술협회(김종춘)가 발간하는 학술교양지 〈고미술〉(통권 43호)이 현대감각에 맞는 알찬 내용으로 새롭게 선보였다.

지난해 9월 22일 국보로 지정된 칠장사 오불회괘불탱 등에 대한 소식과 문화재전문위원 이호관씨의 특별기고 '해외문화재 환수운동에 대하여' 등을 비롯 원색화보와 더불어 고미술 관련 각종 정책, 고미술 유통정보를 현장취재와 함께 다루고 있다.

'전북의 전통사찰' 출간



사찰문화연구원이 전통사찰총서 제8,9권 〈전북의 전통사찰1.2〉을 출간했다.

김제 금산사를 필두로 화보와 상세한 설명을 곁들여 전북지역 101곳의 전통사찰을 두루 살피고 있다.

또한 부록으로 지정문화재와 절터, 불교금석문, 사암주소록 등을 실었다.

'내고향 문화유산 찾아서'

한국토지공사가 멋과 정이 가득한 고향이야기들을 책으로 묶었다. 〈내고향 문화유산을 찾아서 상·하〉가 바로 그것.

사라져가는 소중한 우리의 문화와 잊어서는 안될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을 지켜나가기 위해 펴낸 이 책은 서울특별시에서부터 제주도에 이르는 전국의 명소와 유물 유적 등을 지도와 사진으로 소개한다.

또 휴전선 너머 북한의 주요 문화유적도 실었다.

"감동시키는 설법 하려면…"

정순일교수 '설법 그 이론과 실제' 펴내

교리적 근거 바탕삼아 설법의 역사 연구 원고작성·연술방법 안내



"비구들아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말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조리와 표현을 갖춘 진리를 설하라"

정각을 이룬 부처님은 첫제자들인 다섯 비구에게 이렇게 설법했다. 설법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됐다.

부처님과 불제자들은 설법을 통해 불법을 전했고, 설법은 포교의 중심 수단인 동시에 불법이 살아 전해지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정순일교수(원광대)가 펴낸 〈설법 그 이론과 실제〉(민족사 刊)는 포교의 현장에서 어떻게 설법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세심하고도 친절하게 설법의 모든 것을 안내한다. 그동안 설법을 위한 자료집은 많이 발간되어 왔으나 설법의 이론에서부터 역사, 설법원고 작성, 연술방법 등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쓰여진 것은 이 책이 처음이다.

"설법을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쯤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보다 좋은 설법을 위해서 설법자는 늘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정교수는 "설법이 적법한 이론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목적의식에서 탈선하기 쉽고, 청중들에게 새로운 것을 전달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이 책은 제1, 2장에서 불전에 나타난 설법에 관한 이론과 설법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제3장부터는 설법의 구성방법과 자료수집, 그리고 연술에 따른 제반 문제에 이르기까지 설법에 관한 실질적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있다.

인도·중국·한국불교의 교화와 설법의 역사를 경전과 어록, 당시의 스님과 재가거사들의 환약상을 통해 짚어낸다. 서북인도에까지 불교를 포교한 마명(馬鳴)과 대승불교를 발전시키는데 공헌한 용수(龍樹) 등을 인도의 명설법자로 소개하고, 중국불교는 방대한 양의 선어록에서 설법의 특징을 찾고있다. 또한 불교전래 이후 원광법사, 자장, 원효, 의상, 경허스님 등으로 이어진 고승들의 행적속에서 한국불교 설법의 명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이론적 토대위에서 설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설법 자료수집과 설법안 작성시의 전체적 방향의 점검, 주제의 착상, 그리고 이에 대한 교리적 근거의 설정 등을 설명한다. 설법안 작성시 예화활용과 삽입의 기법, 표현의 기법, 설법연술의 자세와 제스쳐, 음성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안내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설법의 자료와 원고 등을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준비하라고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 책은 오늘날 여러 가지 강연과 연술의 테크닉이 발달해 있지만 그 근원적인 방법이 이미 오래전에 불교의 전통속에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음을 깨닫게 해준다. 따라서 정순일 교수는 "그러한 방법을 내 것으로 삼아서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하느냐가 훌륭한 설법자가 되는 관건"이라고 역설한다.

이은자 기자

"空의 도리 생활속 실천"

인터뷰 '반야심경' 펴낸 고목스님



지난해 초 〈일면불 월면불〉을 시작으로 불과 1년사이에 〈화두이야기〉 〈조주록탐구〉 〈행복한 감성의 세계로〉 등을 잇따라 펴낸 고목스님이 최근 현대언어로 알기쉽게 풀이한 5번째 책 〈반야심경〉(삼양 刊)을 펴냈다.

〈반야심경〉의 공도리(空道理)를 불자들이 보다 쉽게 체득할 수 있도록 스님은 〈반야심경〉의 위치와 종류, 구조와 사상을 먼저 살핀 후 경전의 본문을 바깥의 의심을 떨쳐버리는 과목·본체를 나타내 보이는 과목·의심을 여의는 도리를 밝히는 과목·얻을 바 없음이 참 소득임을 말하는 과목 등으로 나눠 생활속에 실천하며 관조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구성했다.

또 〈아함경〉에서 〈벽암록〉까지의 선어록을 통해 공의 실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부처님 혜명 전하자" 1년새 5권째 집필

현재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덕선리 한 암자에서 효로 수행정진중인 스님은 "생활속에서 불법을 표현하고, 불자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보다 가깝게 느끼도록 해서 불교진리의 참뜻이 사치스러운 장식품이 아님을 일깨워 주고 싶었다"라고 말한다.

이천만 불자라고 숫자자랑만 하는 오늘의 불교모습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스님은 이를 타파하고 부처님의 혜명이 끊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수행자로서의 당연한 생각에서 집필을 시작했다.

앞으로 〈벽암록〉 〈종용록〉 등 옛 스님들의 송고가 수록돼 있는 전적들을 생활과 접목시켜 쉽고 간결하게 정리하겠다는 서원을 세운 스님은 그 작업의 일환으로 올해 안에 어록가운데서 가장 난해하다는 운문종 개조 운문스님의 〈운문록〉을 펴낼 예정이다. 〈은〉

새로나온 책

▲**만물은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한국문인협회 회원이자 현재 성일정보산업고등학교에 재직중인 신솔래씨가 펴냈다. 새로운 시각으로 자연속에 숨어있는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들을 수채화처럼 가벼운 필체로 아주 쉽고 따뜻하게 전하고 있다. 〈솔리 7천원〉

▲**주역강의**=유·불·선에 정통하고, 대만 총통의 국사(國師)를 역임한 남회근선생의 〈계사전〉 강의록 상·하편 모두를 다룬 책이다. 남선생은 "역에서 천하의 뜻에 통달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도를 깨달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독특한 시각으로 역을 통해 모든 이치를 꿰뚫고 있다. 〈문예출판사 1만5천원〉

▲**차의 기원을 찾아서**=차의 원산지인 중국·인도·미얀마·타이 등의 차나무에 대한 기록과 각국의 차종류, 제조방법 등 풍부한 연구자료를 담은 책이다. 경북대 임학과 박용구교수가 펴낸 이 책은 차를 사랑하고 애용하는 차문화인들에게 차문화의 뿌리를 살펴보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경북대출판사 6천5백원〉

▲**나는 누구인가**=〈히말라야 인도에 빠진 닥터〉로 유명한 임현담씨가 쓴 책. 누구나 한 번쯤 자신에 던지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화두로 삼아 삶과 죽음, 구도에 대한 해답을 지난 삶의 흔적속에서 찾고 있다. 이 책은 자기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 보고, 자신을 밝혀 내일을 열어가려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다. 〈초당 7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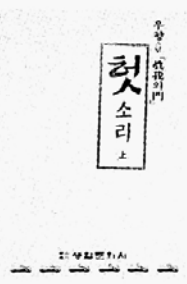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2	기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 족 사
3	마음알기 다루기 나누기	용 타	대원정사
4	부드러운 말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 타	효 림
5	불교입문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6	작은이야기 1	정채봉·류시화	샘 터 사
7	불교경전의 이해	불교신문사	불교시대사
8	선(작은 책)	석 지 현	민 족 사
9	팔만대장경속에 숨어있는 108가지 이야기	진 현 종	혜 용
10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 율 순	신 우 당

구입문의:(02)737-0695

헛소리 — 우향 지음

수행·신도상담 경험 진솔하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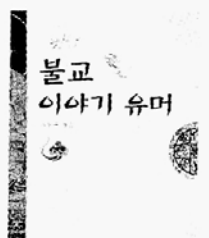
깨달아 나아가는 데 좋은 화두가 따로 있을까? 우향스님(천은정사 주지)은 우리들에게 말한다. "마음자리 밝히기 위해 일심으로 수행정진 하는 것이 바로 화두"라고. 따라서 그 화두는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또 한가지일 수도 있다.

〈헛소리〉는 오랜 동안 토굴생활을 하며 참선정진에 전념해 온 스님이 천은정사 포교당을 꾸려가며 그동안 틈틈히 써온 수행과 포교에 대한 단상과 신도상담의 경험을 정리한 것이다. 스님은 이 책에서 불멸의 진아(眞我)의 문(門)을 우리앞에 제시하며 참된 삶에 대한 자각의 길을 열어준다. 〈생활문화사 7천원〉

화제의 책

불교이야기 유머 — 유보산 지음

수천년간 구전된 불교이야기 묶어



〈불교이야기유머〉는 수천년간 스님들로부터 구전되어 온 이야기를 묶어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도록 유머러스하게 맥을 잡아놓았다.

부처님의 출가부터, 중생교화 과정, 경전 이야기, 그리고 큰 스님들의 깨달음의 말씀 등을 소개한다.

이 책은 종교간의 빡빡한 사이를 느슨하게 하기위해 어렵고 딱딱하게만 생각해 오던 불교의 깊은 진리를 풀어 헤쳐 놓아 옛날 이야기를 읽듯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지은이 보산스님(통도사)은 이러한 재미있으면서 심오한 뜻을 지닌 이야기들이 우리사회 화합의 기틀을 이루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한다. 〈미래문화사 8천원〉

화제의 책

우는 낙타의… — 박찬 지음

실크로드의 문화매력 전한 기행기



시인이자 스포츠서울 사회부 차장으로 재직중인 박찬씨의 실크로드 기행 〈우는 낙타의 푸른 눈썹을 보았는가〉는 불교유적이 숨쉬고 있는 실크로드 사막지대의 매력을 듬뿍 담고 있다. 〈왕오천축국전〉을 남긴 혜초스님, 파미르고원을 호령했던 고선지 장군의 숨결과 조선족들의 삶의 모습들을 70여장의 사진과 지도로 엮어 자연의 위대함과 문화유적의 소중함, 문명에 찌들지 않은 사람들의 따뜻한 인간성을 새삼 발견하게 한다.

'실크로드의 황량한 사막으로 떠나라! 그리고 버릴 수 있거든, 그때 돌아오라!' 박찬씨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해냄 1만1천원〉

번역·원문·용어해설·감상·선시 해설·작자소개!

마음을 밝히려는 이에게 주는

선시감상사전

禪詩鑑賞辭典

신간!

석지현 엮음

詩人이자 자기 성찰의 수행자 석지현 스님!
최초로 禪詩라는 말을 사용하여 문학의
한 장르를 형성시킨 석지현 스님!



중국·한국·일본의 선시(禪詩) 1431편을 뽑아서 원문과 번역, 용어해설을 하였고, 각 시(詩)마다 붙인 석지현 스님 특유의 '감상'은 선시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세계를 적요하게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미련한 〈선시란 무엇인가〉, 〈선시의 역사〉, 〈선시의 사풍(詩風)〉, 〈선시의 종류〉, 그리고 꼼꼼한 〈작자소개〉와 〈색인〉은 독자로 하여금 선시를 이해하는 데 좋은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46판양장/전2권/한국편 1328쪽/값 38,000원 중국·일본편 792쪽/값 25,000원

1998년 3월부터 석지현 스님의 〈선어록과 선시〉 강의를 매주 수요일 7시 민족사에서 개설합니다. 장소관계로 15명으로 제한합니다. 청강을 희망하시는 분은 본 강의를 듣고자 하는 목적을 원고지 5장 내외로 서술하여 간단한 이력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지현 스님 산문집

바람의 길

1986년 겨울 어느 날 저녁, 나는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혀 누워 있었다. 어찌면 이대로 내가 영원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안개처럼 미어오르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아주 저 멀리서 바라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값 5,500원

방랑의 시인, 미라/석지현 옮김

누구의 연인도 될 수 없나이다

영혼의 거장들이 남긴 詩 ①/너의 연인은 크리슈나란다 너의 영원한 애인은 크리슈나, 저 사랑의 신 크리슈나. 오직 사랑만이 너의 영원한 애인이란다. 값 3,000원

영혼의 시인, 까비르/석지현 옮김

그가 있는 어디든 나는 있으리라

영혼의 거장들이 남긴 詩 ②/까비르. 그처럼 神을 깊이 체험한 사람, 열렬히 깨달음을 체험한 사람은 없다. 까비르. 그는 인도의 대표적 시인 타골과 간디에 의해 절대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값 3,000원

크리슈나무티/석지현 옮김

그대는 너무 멀다

영혼의 거장들이 남긴 詩 ③/젊은 구도자의 詩. 이 시선이 닿는 곳마다 그대가 있다. 그대의 가슴으로 나는 불타고 있다. 값 3,500원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천오백만 불자들의 가슴을 울리는 불교 명언집!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신간!

석성우·석지현 스님 엮음

금세기 대표적 청정 율사이신 석성우 스님과
詩人 석지현 스님께서 경전을 읽으시면서
모은 감동적인 불교 명언들!

하루 한 구절, 부처님 말씀 300가지!
1년 365일이면 당신도 훌륭한 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는 불교의 여러 경전과 조사 선지식들이 남긴 말씀 가운데서 주옥 같은 명언을 뽑은 것입니다. 이 책은 치성하게 들끓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한 부처님 품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 46판 양장/값 5,000원

법보시 주문받습니다.
가까운 이에게는 선물로, 은혜 받은 이에게는 법보시로 이 책을 선물합시다.


◇프랭크 테데스코


◇베르나르드 세네칼


◇티호코프블라디미르


◇에드워드 클랜글


◇울만

국내활동 외국인 불교학자들
"한국불교에 반했어요"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발맞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불교학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들중 프랭크 테데스코(미국·세종대 교수·53), 베르나르드 세네칼(프랑스·예수회 신부·46), 티호코프 블라디미르(러시아·경희대 교수·30), 에드워드 클랜글(호주·중앙대 교수·56), 울만(스위스·32) 등은 연구활동도 두드러질 뿐 아니라 참선 수행에도 관심을 갖는 등 한국불교에 강한 애정을 보이고 있다. 또 이들은 한국불교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선봉장의 역할도 자처하고 나서서 주목된다.

테데스코 **불교생명 윤리 '관심'**

세네칼 **성철 사상연구 몰두**

블라디미르 **불서 러시아어 번역**

클랜글 **삼매 원형찾기 '열심'**

울만 **'열반경종요' 영역화**

외국인 불교학자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 사람은 바로 테데스코교수. 불교학 관련 국제세미나가 열리는 곳엔 어김없이 나타나는 자칭 마당발 테데스코교수는 불교문화연구원, 불교환경교육원, 한국유네스코 위원회 등 국내 문화·학술단체와의 인연이 깊다.

그는 현재 '불교의 생명윤리'를 주제로 동국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최근 '한국불교와 생명윤리-다종교 사회에서 자비행과 낙태문제'라는 제목의 학위논문을 마무리했는데, 생명윤리에 대한 그의 관심이 매우 커 런던대 데미안 키온교수의 최근 저서 〈불교와 낙태〉에서 '한국의 낙태문제'라는 주제의 한 장(章)을 집필했을 정도.

세네칼신부는 〈육조단경〉을 토대로 성철스님의 돈오돈수와 보조스님의 돈오점수 사상의 차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 유네스코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코리아 저널〉지에 "한국불교학계는 호교(護敎)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지적,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세네칼신부는 1993년 구산스님의 〈석사자〉 번역과 주석으로 파리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으며 한국불교와 연을 맺었다.

"불교적 깨달음을 기독교에 적용해보고, 두 종교의 간극을 좁혀보고 싶다"는 세네칼신부는 한국불교선도회에서 매일 2시간씩 선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때는 특이하게 자신이 기독교 교리를 기초해 만든 화두를 든다.

지난해 보조사상연구원이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의천의 한국불교사의식'을 발표한 블라디미르교수도 한국불교 연구 열기가 뜨겁다. 모스크바대에서 박사학위 논문 '대가야의 외교사'를 쓰면서 한국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그는 "〈삼국유사〉 〈대승기신론소〉 등을 러시아어로 완역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힌다. 현재 3월에 나오는 〈미하일 박교수 팔순기념논총〉에 게재할 논문 '6~7세기 신라의 불승(佛僧)과 토착신앙'을 다듬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 원광·자장·의상 스님등 신라 고승들과 구전설화(說話)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그는 또 한국·중국·일본의 호국불교를 비교, 주술적 성격까지 규명한 연구서 〈신라 중대 호국불교 연구〉의 발간도 계획하고 있다.

중앙대 호주학연구소 클랜글교수는 생활에서 참선을 떼놓을 수 없을 만큼 독실한 불교신자. 호주 퀸스아일랜드대학에서 종교학을 공부하고 범어 경전, 〈우파니샤드〉에서 사마디(삼매)의 원형을 찾고 있는 그는 〈왕립아시아학회지〉 1월호에 '상좌부불교의 삼매'를 발표했다.

"사마디에는 선, 위빠사나, 요가 등 다양한 방법론이 있다"는 클랜글교수는 "혜암스님에게서 간화선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동국대에서 인도철학 석사학위를 받는 울만은 학위논문 '원효의 열반관과 불성관에 대한 연구'를 한글로 썼을 뿐만 아니라 원효스님의 〈열반경종요〉를 새롭게 영역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영어·한글·한문·팔리어 등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울만은 불교학자로서의 소양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울만은 "한국에서 가장 경이로운 것은 한국적 선불교 그 자체"라며 "박사학위 주제는 선과 열반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선에 깊은 관심을 표출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머튼신부를 선승이라 한 까닭"
'…불교와 문화' 겨울호, 토마스머튼사상 다뤄

"토마스 머튼(Thomas Merton, 1915~1968)은 훌륭한 가톨릭 신부이면서 세상 사람들의 문제와 아픔을 바로 자신의 것으로 여겼던 선사 그 자체였다"

불교문화·학술 계간지 〈불교와 문화〉(불교진흥원 刊) 겨울호는 토마스 머튼신부의 생애와 사상을 특별기획으로 다루고 이같이 조명했다.

토마스 머튼은 가톨릭 신부로서 영적 지혜를 추구하며 선불교를 정열적으로 탐구해 종교·동서간의 상호 이해와 평화를 추구했던 미국의 대표적인 사상가.

강건기교수(전북대 철학과)는 "머튼은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는 '참나' 자체를 인간으로 보았다"며 "머튼의 '참나' 찾기는 본래면목(本來面目)을 찾고 회복해가는 선의 전통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머튼의 기도를 수심(修心)과 비교할 수 있는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이수철신부(성베네딕도회 요셉수도원)는 "머튼은 초월적인 선(禪)과 같이 모든 구조·규범·믿음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해 순수한 실재를 체험하고자 했다"며 "그는 관상기도를 통해 깨달음의 최고 경지인 절대적 공(空)을 체득했다"고 말했다.

동국대 불교관련 올 석·박사논문 28편

동국대학교 일반·교육·불교·문화예술대학원의 97학년도 석·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박사 8명 석사 20명이다. 학위수여식은 2월16일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총8편)

▲불교학과='〈금강삼매경론〉 관행연구'(원명스님), '용수의 화엄사상연구'(박상수), '시명지예의 정토관 연구'(김은희), 심왕과 심소설의 변천상에서 본 이장 연구'(정준기), '문아원측 교학 연구'(고영섭) ▲사학과='무학자초 연구'(황인규), '나옹혜근의 선사상 연구'(김창숙) ▲미술사학과='조선 전반기 불경판화의 연구'(박도화)

석사학위 논문(총20편)

▲불교학과='육조시대 신멸·신불멸 논쟁 연구'(김영진), '현수 법장의 공사상 연구'〈지희숙〉, '〈금강경〉 한역에 대한 고찰'(이건준), '금강계 만다라 연구'(구자현), '〈경덕전등록〉의 전등설 연구'(김기열) ▲인도철학과='푸쉬야미트라 파불의 역사적 의의'(김영호), '다그나가의 아포하론 연구'(정윤경), '유가행파의 샤마타-비파샤나 연구'(임성묵), '원효의 열반관과 불성관에 대한 연구'(울만) ▲사학과='운주사 창건과 배경에 관한 고찰'(강현정) ▲불교사회복지학과='불교인의 사회복지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및 연구'(혜광스님), '불교자원봉사의 활성화 방안 연구'(강환순), '청소년복지와 사찰의 역할'(이택권) ▲불교예술문화학과='조선후기 관음보살도연구'(김수정), '19세기 아미타불화 연구'(신주호) ▲유아교육학과='불교유치원 교육활동 무대'(김명숙), '팔정도와 육바라밀을 중심으로 한 유아 인지 및 정서 프로그램연구'(정윤희), '종교계 유치원 교사의 직무만족도' 조사연구(이성민) ▲미술교육학과='한국의 포벽화에 대한 고찰'(이영희) ▲종교교육학과='한국에 유입된 일본의 신종교 연구'(고봉길)

"선리참구원 설립 항일불교 단초 마련"
김광식 박사 주장

일제 식민지 불교정책으로 피폐해진 1930년대 불교계. 송만공 방한암 등 조선정통 수좌들이 재단법인 선리참구원을 설립하고 조선불교 선종 종헌을 제정함으로써 전통사수·정화·항일불교 등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

김광식박사(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는 '조선불교선종 종헌과 수좌의 현실인식'에서 "선학원이 1934년 선리참구원으로 전환되고 종헌을 새롭게 제정-공포된 것은 조선불교가 일제의 사찰정책에 맞서 처음으로 제정·전통·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박사에 따르면 1931년 재건된 선학원이 1934년 12월 선리참구원으로 전환된 것은 수좌들이 정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왜색불교를 극복할 수 있는 단체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전통회복 ▲교단 민주화 ▲신도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조선불교선종 종헌에서도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광식박사는 "선리참구원 설립과 조선불교 선종 종헌 제정은 기부재산액·선방·수좌승등의 증가로 이어졌고 불교계의 실질적 성장을 가져왔다"며 "당시 수좌들의 의식과 행적은 일제의 사찰정책을 거부하는 등 한국근대불교·지성사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지었다.

다국적 언어로 불교문헌 정보 제공
무다피아 사이버 기행 — 美 불교도평의회



American Buddhist Congress

Mailing address 9335 New Hampshire Ave., Los Angeles, California 90006
Tel. (213) 739-1270, FAX (213) 386-5643
email abc@wgn.net

The American Buddhist Congress is a national council of Buddhist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in the United States. It is a resource and information center for American Buddhists, including help services and a multilingual library. The Congress is dedicated to promoting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중국·일본·티벳·베트남·캄보디아 등 다양한 불교계의 화합을 목표로 삼고 있는 단체가 바로 미국불교도평의회(American Buddhist Congress, 이하 평의회).

평의회는 1987년 11월 미국 전역에서 불교의 윤리적 전통과 전미국 불교종파를 대표하는 47개 불교단체 대표자들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에 소재한 관음사(觀音寺)에서 설립했다. 현재 평의회는 미국 불교인들에게 법회와 불교행사 등을 통괄해 알려주고 다국적 언어로 된 불교문헌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터넷 상에 '미국불교도평의회' 사이트를 개설한 것도 불교인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불교전통에서 유래한 불교인들의 협동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것.

이를 위해 평의회는 ▲불교사찰·단체 주소록 ▲학술회의 년1회 개최 등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축적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주소록 편찬 작업'은 미국종교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고든 멜톤 박사가 불교 사찰과 단체에 관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1천8백여 개의 사찰과 단체 목록이 수집됐다. 이 사이트를 방문한 불자 네티즌도 전자 우편을 통해 자료수집을 도울 수 있다. 물자 네티즌이 미국의 불교사찰·단체를 등록하려면 하버드대학의 '종교다원론 프로젝트'로 해당 사찰·단체의 프로파일을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또 평의회가 주최한 학술회의 관련 논문·사진 등도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해 6월 로스엔젤레스의 관음사에서 '불교와 문화의 만남'을 주제로 개최된 학술회의에서는 스리랑카·중국·일본·태국·한국·라오스·티벳·베트남계불교 등 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불교계 대표들이 참여해 발표했다. 이들 발표 논문들은 '텍스트 버전'으로 제공되며 로딩(가져오기)도 가능하다.

http://www.wgn.net/~abc/abc.html

■ '조선불교혁신 회의록' 발견
해방직후 제주불교 흐름 '한눈에'

제주도 불교혁신 소속 스님들의 구체적인 활동이 기록된 '불교혁신 전도 승려대회 회의록'이 최근 제주도 본문사(주지 광파스님)에서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회의록은 1945년 12월2~3일 양일간 제주 대각사 대웅전에서 개최된 승려대회에 83명의 제주도내 각 사암 스님과 재가 불자대표가 동참해 불교혁신 방안을 의결한 내용이 들어있다. 회의록에 기록된 혁신승려대회 주요안건은 건국정신진작·사찰정화·의식개혁·승려품위향상·대중불교실현·고교자원확립·불교강원설립·인재양성·모범총림창설·포교기관지발행 등이다.

이 회의록은 제주불교계 포교지인 〈법계〉의 창간준비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표지에는 태극기 문양을 그려넣어 애국심도 고취시키고 있어 일제시대의 제주불교사를 연구하는데 획기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태국인들 독경·염불로 경제苦 '위안'
사찰 참배객 늘어

지난해 7월부터 불어닥친 경제 위기로 주가와 통화 가치가 매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태국. 경제적 불안감이 고조되자 국교(國敎)인 불교에 의지해 사찰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가중되는 경제적 불안감으로 불면증, 자폐증, 의기소침, 편두통, 성욕감퇴 등을 겪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태국의 사찰들은 스님들과 함께 염불과 독경을 하거나 명상에 잠긴 20~30대 여피족 등 청·장년 태국인들로 가득차 있다. 방콕 시내 중심가에 있는 사찰에서는 하루종일 절하는 양복입은 태국인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태국 정부가 올해 초 방콕시민 1천1백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17%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해 태국국민의 정신적 건강 상태가 경제만큼이나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불교학인모집

불교 최고지도자 양성기관인
「**한국승가대학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학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아 래 ●

1. 원서교부 및 접수 : 1월 5일 ~ 2월 15일까지
2. 모집과정 및 정원 : ①전문학부 (통신반) 200명
②연구과정 (통신반) 30명
3. 입학자격 전문학부 : ①대졸이상의 학력자
②불교 교양대학 졸업자
③불교 정법을 알고자 하는자
연구과정 : ①승가대학원 졸업자
②불교관계 박사과정 수료자
4. 교육기간 : 전문학부·연구과정·각3년(6학기)
5. 졸업혜택 : 각종 자격증이 수여됨

※ 자세한 입학안내서는 편지로 청구하면 보내드립니다.

UN · NGO · IAEWP · 협동학교
한국승가대학원
(우)701-600 동대구 우체국 사서함 41호
☎ (053)952-8711 · 017-501-8711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앞서가는 불자들의 필독잡지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계간 '불교와 문화' 제4호(통권24호)



칼라화보1 / 사진으로 보는 성보기행
불교 꽃문양의 세계
지상대담 / 불교방송 교리강좌 중계
박성배 교수에게 듣는다1
오늘을 사는 불자들의 올바른 신행생활
특별기획 / 세계의 사상가
동서 사상의 가교자, **禪僧 토마스 머튼**
불교계 진단 / 사리신앙의 문제점과 대책
잘못된 사리신앙 행태 달라져야 한다
'97 청정운동 동참기
포커스 / 종교다원시대 특정 개인종교의 문제
칼라화보2 / 한국의 美 ❷
서민들의 삶을 해학으로 승화시킨 **장승**의 미학
생태탐사기
백두산의 식물 생태, 울릉도의 자연과 문화
특집/문화사대주의를 진단한다
우리의 모국은 어디인가, 표절과 문화사대주의, 문화사대주의 극복을 위한 현실적 방안
인터넷불교 / 세계불전 전산화의 현주소
인물포커스 / 불교역사인물재발견 시리즈
요승으로 몰린 개혁가, **신돈**
지상논쟁
신라불교계의 거목, **원효와 의상의 화엄관**
세계의 불교
1. 영혼의 땅, 티베트
2. 두 편의 영화로 이룬 불교의 미국화(?)
발굴 / 홍인표 거사의 염불왕생법
싱본 스님의 禪이야기
禪의 풍토
불교관계논저 종합색인
불교계 주요행사일지

구독신청 및 문의
• 전화 : 02-719-1855, 전송 : 02-719-5052
※ 직접 은행에 입금하시면 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송금계좌 : 국민은행 827-25-0006-047 외환은행 189-13-02685-0
우체국 012245-0090499-11' 농협 069-01-197161
지로번호 7630868 예금주 : (재) 대한불교진흥원

불교와 문화 정기구독 신청 Tel. 02-719-2606, Fax. 02-719-5052

한 형 조

무문관 탐방

38

육조의 의발 ⑦

지금까지 적은 혜능의 일대기는 〈육조단경〉에 의거한 것이다. 위거(韋據)라는 지방장관의 요청으로 혜능의 사적과 설법을 정리한 것인데, 가위 선종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명작이다. 편집과 구성만 일별해도 선의 독특한 정신을 읽을 수 있다. 이전까지 해오던 스콜라적 경문주석이 아니라 구도의 여정과 삶의 진실을 대중강연 형식으로 풀고 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이지만 그는 변방의 오랑캐에다가 일정한 교육을 받은 바도 없는 사람이었다. 경전을 읽지 못하면서도 경전의 정신을 직관할 수 있었던 드문 인물! 장작을 패다가 우연히 들은 금강경에 발심한 것이나, 신수의 시를 귀를 통해 듣고도 그 수준을 가늠한 일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일찍이 노자는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知者不言 言者不知)"고 썼다. 그 경구에 혜능처럼 극적으로 들어맞는 유형은 흔치 않다.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이 새로운 불교운동의 캐치프레이즈로 등장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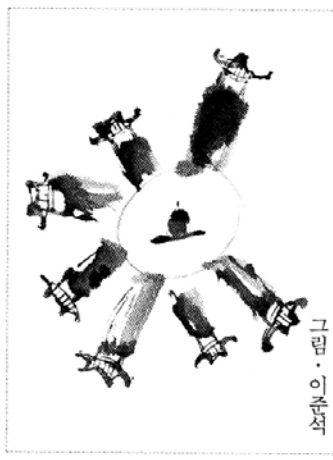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혜능 선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돈오의 제창이다. 신수와 혜능의 갈림길도 여기에 있다. 그렇지만 활대의 개운사 무차대회를 시발로 불거진 남북종의 대립은 신수와 혜능 당대의 일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 두어야겠다. 혜능과 신수의 개인적인 유대와 존경심은 남달랐다. 그 점을 알려주는 예화가 하나 있다.

신수는 일찍이 측천무후의 궁중에서 높은 지위와 대접을 받고 있었다. 705년경 당시 왕이었던 중종은 남방의 지도자인 혜능을 궁중에 초청했다. 그런데 그 편지에는 신수가 동문인 혜안과 더불어 혜능이야말로 5조의 의발을 계승한 진정한 지도자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혜능도 아버지뻘인 선배 신수에게 합당한 존경과 예의를 잊지 않았다고 전한다.

그럼에도 신수의 정신과 혜능의 정신 사이에는 깊은 골이 존재한다. 혜능은 그것을 단적으로 대승선(大乘禪)과 최상승선(最上乘禪)이란 말로 구분한 바 있다. 즉 신수의 가르침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자질을 이끌기 위한 것인데 비해, 자신의 그것은 드물게 탁절한 자질을 가진 인물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신수는 계율과 선정을 통해 자신을 끊임없이 정화시켜 가라고 일렀다. 이는 〈법구경·法句經〉에 나오는 불교의 가르침, 즉 "여러 악한 업을 짓지 말고 뭇 착한 일을 해 나가라. 스스로 마음을 맑게 가라앉힐지니, 이것이 부처의 가르침이니라(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心, 是諸佛敎)"와 같은 정신을 표명하고 있다. 신수가 자신의 불교이해를 요약한 시구절을 다시 한번 떠올리기 바란다.

몸은 깨달음의 나무(身是菩提樹)
마음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 (心如明鏡臺)
늘 깨끗이 털고 닦아서(時時勤拂拭)
먼지가 달라붙지 않도록 해야지 (莫使惹塵埃)

신수는 이 길을 철저히 밀고나가 신비한 위광을 얻고, 이윽고 측천무후의 심복과 귀의를 얻기까지 했다.

혜능은 신수의 길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목표를 더 멀리 잡았다. 그는 신수처럼 "마음을 가라 앉혀서 고요함을 유지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밖을 제어하고, 마음을 닦아 안으로 깨달음을 구하라"고 권하지 않았다. 마음은 본시 자유로운 것이라 안에도 밖에도 머물게 해서는 안된다. 그가 처음 저자거리에서 들은 〈금강경〉의 권고처럼 근본의 진실은 "어디에도 마음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는(應無所住而生其心)" 곳에 있다.

그러자면 〈선과 악의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 선과 악에 대한 고착은 무시이래의 인간의 욕망과 공포가 낳은 것이다. 이 근원적인 방해물을 타파해야만 영원의 평화와 안식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타파는 내적 외적 방해물에 덮이지 않는 자신의 본성을 직관하는 데서 출발한다. 아니 정신분석학이 일러주듯 아는 것이 곧 해방이다. 그래서 혜능은 말한다. "네 본성을 직각적으로 파지하라, 그리하면 곧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으리라(直指人心 見性成佛)." 이 표어 이후 선은 "네가 누구냐"는 소크라테스적 물음으로 환원되었다.

이 공안에서 그 점을 선명히 확인할 수 있다. 바위 위에 던져진 의발이 꿈쩍도 않자 혜명은 비로소 알지 못할 두려움에 휩싸였다. 흡사 성궤나 성배를 마주한 기독교도처럼. 애송이 오랑캐의 위엄 앞에 경건히 무릎꿇고 진리를 구걸하매 혜능은 이렇게 설법했다. "선(善)도 악(惡)도 생각않을 때 너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은 어디 있는가." 이 말에 혜명은 오랜 어둠을 깼고 그의 온몸은 땀에 흠뻑 젖었다. 혜명이 울며 흑 다른 가르침이 없느냐고 묻자 육조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게는 비밀이 없다. 모든 비밀은 바로 너에게 있다!" 돈오의 진실, 선의 초전설법(初轉說法)이 이렇게 펼쳐졌다. 밖으로 밖으로만 펼쳐졌던 불교가 이제 그 빛을 안으로 꺾어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廻光返照).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다른 가르침은 없습니까"
"모든 비밀은 너에게 있다"

法數로 배우는 불교

〈48〉

12연기

생기 소멸현상의 원인과 조건
"연기를 보는자 부처를 본다"

육년동안의 고행을 끝낸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정각을 이루었을때 맨 처음 확인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수많은 근본 경전에 의하면 부처님은 도를 깨닫고 칠일동안을 십이연기에 대하여 수미일관하게 관찰하셨다고 전해진다. 대승경전에서는 〈화엄경〉을 설했다고 하지만 연기란 인연생기(因緣生起)의 준말로 모든 것은 원인(因)과 조건(緣)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일어난다(生起)는 뜻인데 여기에는 꼭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만이 아닌 없어지고 소멸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연기의 법칙은 불교의 생명관이며 우주관이라고 한다. 연기의 법을 떠난 존재란 없는 것이다. 연기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이 서로 관련이 되어 성립되는 것이므로 독립적이고 자존적인 존재나 결과는 있을 수 없다. 부처님의 주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자신을 비롯한 모든 중생들이 나고 죽음을 비롯한 온갖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데 있었다. 따라서 부처님이 발견하시고 체득하신 연기의 법도 실은 우주나 물질계와 같은 객관적이고 간접적인 문제보다는 중생 자신의 주관적이고 직접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고통의 발생과 소멸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이여, 연기란 이른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하기 때문에 저것이 멸한다는 것이니 무명(無明: 근본적인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행(行: 결합하고자 하는 의도)이 있고 행으로 인하여 식(識: 의식작용)이 있고 식으로 인하여 명색(名色: 정신과 육체)이 있고 명색으로 인하여 육입(六入: 눈·귀·코·혀·몸·뜻의 여섯 감각기관)이 있고 육입으로 인하여 촉(觸: 대상세계와의 접촉)이 있고 촉으로 인하여 수(受: 즐겁고 괴롭고 무덤덤한 느낌)가 있고 수로 인하여 애(愛: 구하려는 욕망)가 있고 애로 인하여 취(取: 늘어 붙으려는 집착)가 있고 취로 인하여 유(有: 존재하게 될 근거)가 있고 유로 인하여 생(生: 태어남)이 있고 생으로 인하여 사(死: 죽음)와 우비고뇌가 있게 되었느니라. 수행자들이여, 그러므로 무명이 사라지면 행이 사라지고 행이 사라지면 식이 사라지고 식이 사라지면 명색이 사라지고 명색이 사라지면 육입이 사라지고 육입이 사라지면 촉이 사라지고 촉이 사라지면 수가 사라지고 수가 사라지면 애가 사라지고 애가 사라지면 취가 사라지고 취가 사라지면 유가 사라지고 유가 사라지면 생이 사라지고 생이 사라지면 사와 우비고뇌 모두가 사라지게 되느니라"고 설하셨다. 여기에서 무엇으로 인하여 다음의 무엇이 있는 것을 유전연기(流轉緣起)라 부르고 무엇이 사라지면 다음의 무엇이 사라지는 것은 환멸연기(還滅緣起)라 부른다. '유전'이란 흐르고 구른다는 의미로써 중생이 혼란과 미혹 속에서 괴로움에 휩쓸리는 삶의 과정을 가리키고 '환멸'이란 그 유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안락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유전은 중생의 길이고 환멸은 부처의 길인 셈이다. 그렇다면 중생의 길을 버리고 부처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무명을 없앰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중생이 일으키고 받는 반복되는 생로병사와 우비고뇌 등의 온갖 고통은 무명을 명(明: 밝은 지혜)으로 바꾸는 것으로부터 해결된다. 그리고 그에 관한 방법을 우리는 십이연기 가운데 촉·수·애·취에서 찾을 수 있다. 몸과 마음에 부딪치는 촉감과 느낌, 그리고 일어나는 욕망과 애착을 항상 관찰하는 수행을 통하여 그것들의 본질이 허망한 것이며 실체가 없는 것임을 깨달아 해탈하는 것이다. 요즈음 보면 연기설을 마치 상대논리로 펴나가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네가 있으니까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네가 있다든지 자연이 있으니까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으니까 자연이 있다든가 사업주가 있으니까 고용자가 있고 고용자가 있으니까 사업주가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 모든 관계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으니까 이것이 연기법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이와같은 논리라면 미안하지만 어긋나는 것이 사람은 자연 없이는 살 수 없을지 몰라도 자연은 사람 없으면 오히려 더욱 잘 살 수 있는 것이므로 연기설에 접목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색하다.

부처님의 연기설은 자신의 번뇌를 초극하여 생로병사를 여의게 하는데 그 목적을 우선 두고 그 지혜와 자비가 온 법계로 펼쳐져 나가게 하는데 그 의도가 있었다. 연기를 보는 자 부처를 본다고 했으니 연기의 시초인 무명을 타파하는 일 그것이 제일 으뜸가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제 열 〈유마선원장〉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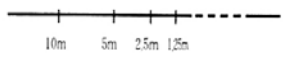
불교와 수학

41

역리의 극복

김 용 운

고대 희랍에는 철학자 제논이 제기한 패러독스(역리)가 있다. 발이 빠른 아킬레스는 거북이보다 배가 빠른 속도로 달린다. 거북이가 아킬레스보다 10미터 앞에 있고 이들이 동시에 같은 방향을 향해서 출발했다. 아킬레스가 처음 거북이가 있던 자리에 당도할 때는 이미 거북이는 5미터 앞에 있다. 다시 아킬레스가 그 자리에 당도할 때는 거북이는 2.5미터 앞에 있다. … 계속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뒤쫓지만 그때마다 거북이는 비록 거리는 짧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앞에 있다. 따라서 아킬레스는 아무리 뛰어도 거북이를 앞지를 수가 없다. 논리적으로는 하나도 모순이 없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앞에 가는 사람보다 뒤좇는 사람의 발이 빠르면 언젠가는 반드시 앞지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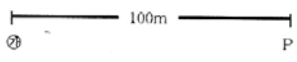
이 논리는 직선은 유한으로 나누고 그 범위에서 생각해 갈 때는 제논이 주장한 바와 같이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위 그림과 같이 아무리 짧은 선분에서도 무한개의 점을 정할 수가 있다. 이들 점을 일일이 짚어 갈 때는 한이 없기 때문이다. 위 역리에서 말하는 언제까지라도 따라 잡을 수 없다고 할 때의 '언제까지'는 유한범위 내에서의 '언제까지'이다.

유한의 논리만을 사용한 희랍인은 이 역리를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었다. 미적분학은 '무한과 극한'의 논리를 수립하고 현실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한다.

유한이론의 범위 점교와 비슷
무한으로의 비약 있어야 大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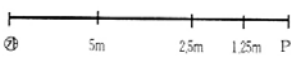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든지 작아질 수 있을 때는 '이들 두 점은 같다'라는 논리이다. 아킬레스와 거북이가 계속 움직이면서 이들 사이의 거리는 얼마든지 좁혀져 간다. 처음에는 10m의 거리가 $10/2$, $10/2^2$, $10/2^3$, … $10/2^n$, …로 n이 늘어가면 결국 $10/2^n$은 0에 가까워지며 얼마든지 작은 수가 되기 때문에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따라잡는 결과가 된다.



이 사실은 한 사람이 고정된 목적지 P의 자리에 접근해 가는 과정에 빗대어 설명할 수 있다.

㉮라는 사람이 10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P를 향해 걷고 있다. ㉮가 반의 자리에 당도했을 때는 50미터가 남아 있다.

또 그 반만큼 당도했을 때는 25미터가 남아있고, 또 그 반만큼 갔을 때는 12.5미터가 남아 있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P에 가깝게 접근해 가도 끝내 P에는 항상 일정한 간격이 있어서 끝내 당도할 수 없다.



이 사실은 자신의 눈을 향해서 날아오는 화살이 결코 내 눈에는 맞지 않는다는 극적인 표현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도 날아오는 화살을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는 않는다. 유한의 논리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무한의 논리, 즉 '얼마든지 가까워질 때는 같다'가 설명해 준다. 이때 움직이는 ㉮는 극한점 P에 당도한다고 말한다.

수행자의 길은 대오의 경지를 향해 가는 나그네와도 같은 구조를 연상시킨다.

날마다 정진을 거듭하면서 대오의 경지에 수렴되어 가는 모습이다. 이것을 유한의 단계로 나누어 일일이 단계를 따진다면 도저히 대오의 경지에 이를 수 없다. 그러나 어느 순간 훌쩍 유한의 단계로 넘어 무한의 영역, 즉 대오의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 불교에는 돈점(頓漸) 논쟁이 있다. 돈교(頓敎)는 단계를 차례차례 밟지 않고 단숨에 대오의 경지에 도달하는 길이며, 점교(漸敎)는 차례로 단계를 밟아 점진적으로 긴 세월의 수행을 통해서 대오를 얻게됨을 말한다.

이 논쟁을 새삼 되풀이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은 아니다. 또한 나에게는 그 우열을 논할 만한 역량도 없다. 그러나 점진적인 진전의 각 단계를 유한의 범위에서 나누어 생각한다면 언제까지라도 유한의 세계에 머물고만 있을 것이다.

유한의 논리는 곧 분별이며 분별에 머무는 한 대오는 바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점교(漸敎)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어떤 단계에서는 유한에서 무한으로의 비약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때 수행자는 무한의 경지, 곧 극한점에 당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양택생활풍수에 적용하면, 악운을 예방하고 행운을 불러들이는"

12품 팔상탑주(八相塔呪)의 비법과 그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 천 법사

책자내용(목차)

①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생활풍수의 기본적 개념·생활풍수의 기본요소·생활풍수의 이론적 배경
④팔괘의 심볼에 대한 설명 ⑤팔상탑주의 조성원리
⑥팔상탑주의 종류
⑦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그 효험력
⑧나침반의 방, 실내방위 관독방법 ⑨팔상탑주 구입방법
⑩팔상탑주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예
⑪생활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⑫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 ⑬음택(산소)풍수
⑭음택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관 팔괘 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한 작용과 조성동기 및 산소적용 방법
⑮산소(묘)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으로서의 황동관 팔괘 만다라와 황동관 팔괘 불탑다라니의 처방비법

"이 책자를 다읽고 나면 자신의 운명(運命)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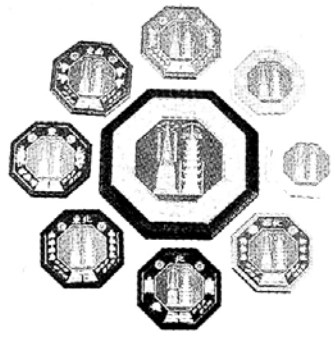
"생활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앙과 재난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운이 약한 자를 운이 강한 자로 만들어 주는 생활풍수처세비법"

※팔상탑주(八相塔呪)는 12품의 종류와 방위를 판독하는 나침반으로 구성

◎ 거실·사무실·상점 등의 중앙에 걸어두는 총괄 팔상탑주와 각 8방위별 팔상탑주



⑴적용방법 및 효능 등 자세한 설명은 책자 참조
⑵소재 : 특수 주물금속위에 순도 99.9% 순금으로 도금
⑶규격 : ·총괄팔상탑주 : 30㎝×30㎝
·팔방위팔상탑주 : 15㎝×15㎝
⑷의장특허등록 : 제211260호
⑸수려하고 아름다운 외관은 풍수적으로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지만 불자님들 집안의 고급스러운 장식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 팔상탑주(八相塔呪)의 효험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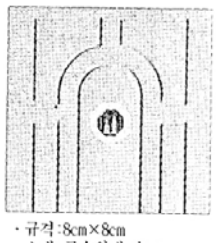
강한 기(氣)의 생성과 균형, 팔괘와 음양의 조화, 십이지·오행상의 상생을 조화시킨 양택 생활풍수원리와 불탑신주(佛塔神呪)의 위력이 합일(合一)되어 조성된 12품의 팔상탑주(八相塔呪)는 가옥이나 사무실, 가게 등에 적용하는 순간부터 그 곳의 운기(運氣)를 최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운세를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강한 운(運)의 소유자로 변화시킨다.
즉, 12품 팔상탑주(八相塔呪)의 비밀스럽고 불가사의한 효험력은 적용되는 순간부터 거주인들에게 닥치는 악운(惡運)을 예방시키고, 행운(幸運)을 가져오기 시작하며 결혼·재징·학업성취·대인관계 등에서 유익하게 작용토록하고 직업면에서도 운(運)이 열리고 자손이 번성하고 명성을 얻게 하며 가족이 화목하게 되고 많은 부(富)를 쌓게 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스님들을 통해서만 그 효력이 발휘되는 팔상탑주 처방비법"

본 책자는 현재 전국에서 사암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들께만 연락주시는대로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팔상탑주는 스님들께서만 해주실 수 있는 특별처방비법이 따라야 하며, 이 방법을 거쳐야 그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님의 신도들에게 풍수적으로 불가사의한 효험력을 나타내는 팔상탑주를 적용하여 신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 불자님들께는 본 책자를 요약한 카다로그 설명서를 보내드립니다.

◎ 대문용 팔상탑주



·규격 : 8㎝×8㎝
·소재 : 금속위에 순도 99.9% 순금도금
·가격 : 60,000원

※ 12품 팔상탑주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은 대문 앞에 대문용 팔상탑주를 세일 먼저 부착해 놓는 일입니다. 대문은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기(氣)의 출입구입니다. 일단은 대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재앙과 불행과 나쁜 사기나 악운을 못들어오게 하고 상서로운 기만 흡입되도록 중수적으로 먼저 조치를 해주고 다른 처방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특히, 앞집대문과 마주보고 있는 대문은 풍수상으로 적살방이라 하여 기가 약한 집이 집안의 생기를 앞집에 모두 빼앗겨 한 집은 망하게 되거나 집안이 심점 어려운 일만 생깁니다. 이때, 대문앞에 팔상탑주를 부착하면 그 시점부터 집안에 좋은 생기만 흡입되고 모여들어 이 운기가 앞집이나 외부로 빠져나가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작용하며 또한 외부의 나쁜 사기를 완전히 분산시키고 제압하여 출입자에게 강한 운(運)을 제공하며 운세가 약하거나 기우는 집안이 이로 인해 다시 운세가 강해지는 운맛이 역할을 시작하게 됩니다.

◎ 차량용 팔상탑주



·규격 : 5㎝×5㎝
·소재 : 금속위에 순도 99.9% 순금도금
·가격 : 60,000원

※ 각 가정마다 차량은 필수품이 되어 있는 현실에서 차량의 안전운행은 무엇보다 우선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업번창도 좋고, 가정의 번영도 중요하지만 차량사고로 인하여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팔상탑주는 차안에 필히 걸어 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 풍수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도록 조성된 차량용 팔상탑주는 앞면에는 총괄팔상탑주, 뒷면에는 팔괘만다라를 새겨넣어 차안에 걸게 되면 차안에 생기가 충만케 해주고 운전자나 탑승자의 운기를 강하게 향상시켜 줌으로서 외부로부터의 사고발생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여주고 예견해주는 작용을 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시키고 차량자체도 생기가 뻗어나와 돌발적인 사고가 저절로 피해가도록 조절해 줍니다.

◎ 금년부터는 나라살림·회사살림·집안살림 모두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재앙이나 악운이 닥치고 행운마저 외면한다면 우리 불자님들은 견뎌내기가 무척어려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생활풍수원리에 따라 조성된 12품 팔상탑주를 자신이 원하는 용도에 따라 종류를 선택하여 가정이나 사업체, 가게, 상점, 공장 등에 적용하면 풍수적으로 맞지 않는 곳을 교정시키고 차단된 기(氣)와 역류되고 있는 운기(運氣)를 균형되도록 조화시키고 기(氣)를 북돋아 줌으로써 불행을 피하고 또한 최소한으로 예방시키면서 건강과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 화 : (0335)34-9490, 34-9491 야 간 : (0342)706-3060

시방세계

불사의 현장
불·교·조·각·원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내무장엄불사, 불교목공예품
서울 종로구 견지동 6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 (02)738-8447~8

'삼송리 밥할머니상'은 약사여래불

현대불교 98년 기획 돌부처를 찾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도화공원에 있는 높이 155.5㎝ 둘레 85㎝의 밥할머니상은 대자사 약사여래불일 가능성이 높다.

고양시 삼송동 위병검문소를 지나 통일로로 들어서 삼송주택마을 아래 도화공원안 지역관리들의 공덕비옆에는 지역민속학계에서 소중히 생각하는 얼굴없는 속칭 '밥할머니상'이 있다. 일제시대 불두가 없어졌다는 이 불상은 벽제 대자사지의 약사여래불상이라는 설이 있다.

〈제보자=법현스님 · 천중사 부주지〉



◇김가에 방치됐다가 고양시 동산동 능모탱이로, 다시 1930년에 도화공원으로 옮겨져 지역관리들의 공덕비와 함께 서있는 밥할머니상.

"참심먹기전 이곳에 와서 불상에 절하고 나면 다리가 덜 아파요. 그러면서도 목이없는 불상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숫돌고개 중턱 도화공원 옆 삼송주택마을에서 만난 박소재할머니(77세)는 마을사람들이 지금도 그곳에 가서 참배드린다며 불두가 조성돼 복원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할머니는 통일로를 달리던 차들도 이곳에 멈춰서서 참배하고 간다고 귀띔했다.

총높이 155.5㎝ 가슴둘레 85㎝의 화강암인 이 석상은 규모가 유독 큰 것이 특징이다. 왼손은 손가락을 펴서 위로 향하였으며 오른손은 수평으로 좌측을 향하고 손등이 아랫쪽을 보고 있다. 석상의 아랫부분은 특별한 조각이나 문양없이 대좌에 꽂는 형태다. 윗부분은 자연석에서 볼 수 있는 갈라짐과 굴곡을 발견할 수 있다. 이석상은 목부분에 시멘트가 약간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일부사람들에 의해 머리부분 복원 작업이 시도되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 문화공보실에서 펴낸 '내고장 가꾸기'와 '고양군지', '한국민속과 문학연구'(김열규 · 일조각刊) 등 자료에는 석상을 임진왜란당시 이 군을 전멸의 위기에서 구한 슬기로운 북한산 밥할머니 전설과 연계하여 민속신앙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다보니 고양지방은 물론 서울 일부지역에서 '밥할머니'라 부르게 된 것이다. 일부 향토사학자는 지장보살의 화신인 '미륵할미'로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석상에 대해 지역교계와 향토사학자들이 약사여래불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지역정서에 밀려서 수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홍윤식교수(동국대 역사교육학과)는 사진관독후 "마멸이 심해 정확치는 않지만 위축된 어깨와 부자연스러운 손 등이 고려 이후의 형식화된 불상양식을 보이고 있다"며 약사여래불로 추정했다.

이 불상을 수년간 연구해온 정동일(고양시청 전문직공무원, 향토사학자)씨는 "밥할머니와 중복되고 있으나 불상은 전설과 완전히 다른 것이다"며 "군지에는 밥할머니라고 기록하여 민속학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약사여래불이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 약사불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정동일씨는 "약사여래불이 1910년전까지 현재의 3호선 전철기지창부근 강가에 따로 있던 것을 동산리 능모탱이 공덕비있는 곳으로 갔다가 1930년경 통일로를 확장하면서 현재의 위치로 옮겨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볼 때 약사여래불은 밥할머니 공덕비가 있던 능모탱이로 옮겨지면서 지역주민들이 밥할머니의 화신으로 추앙됐으며 임진왜란당시 왜군을 참패시킨 밥할머니의 내력을 알게된 일제가 공적비의 갓머리를 뜯어부수고 석불의 불두를 잘라버렸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대자리의 대자사 주지 자운스님은 "대자리는 대자사를 짓기위해 칙명을 받고 온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집성촌이다" 전제하고 "세종대왕이 종기가 많이나서 대자사를 창건했다고 전한다"며 "불력으로 병을 치료하기위해 약사여래불을 조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팔목과 어깨 좁고 전체적으로 곡선처리 고려이후 불상양식"

- 홍윤식(동국대 교수) -

세종때 대자사 창건 약사여래불 조성한듯 불두올려 복원했으면

- 자운(대자사 주지) -

밥할머니 공덕비 있던 능모탱이로 옮긴후 밥할머니상으로 와전

- 정동일(향토사학자) -

"당시에는 경기북부지방에서 가장 큰 가람이었다"는 자운스님의 말을 뒤로하고 대자사지를 찾았다. 통일로 필리핀참전비 우측으로 농로를 따라가면 소현세자의 능이 나오는데 최영장군 묘까지 계곡 1만5천여평에 99칸의 대가람이 있었다고 한다. 대자사지는 주위가 겹겹산으로 둘러쌓여 있으며 산흐름이 서출동류(西出東流) 형상으로 기가 살아있는 명당자리로 꼽히고 있다. 소현세자의 후손인 이우석씨(72세)의 안내로 대웅전의 12개 주춧돌을 확인해보니 당시 대가람의 위용이 눈에 선하다. 이곳에서는 최근 밭에서 작업하던 중 큰 솥만한 항로가 나왔다. 현재 동국대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이우석씨는 "임진왜란당시 승병들이 머물던 전략요충지로 사찰의 대부분은 왜병에 의해 소실되었지만 80년전까지는 사당 40여칸이 남아있었다"며 "석물들은 왜정때 사방공사용으로 실려나갔다"고 증언해 약사여래불이 석물과 함께 현재의 3군기지창 강가로 실려나갔다는 추정을 뒷받침했다.

또 문헌에 의하면 태종의 넷째아들인 성령대군은 1418(무술)년 홍역으로 14세에 절명했다고 한다. 유달리 성령대군을 총애했던 태종은 이를 몹시 비통해하며 친히 제문을 짓고 분묘옆에 절을 지었다는 문헌으로 보아 중생의 병고를 치료하는 약사여래불을 본존으로하는 약사도량으로 대자사가 창건되지 않았나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특히 약사여래불로서는 규모가 어느곳보다 크다는 점에서 보통의 사찰에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주위스님들과 향토사학자들의 지적이었다.

고양시는 최근 도화공원내 선정비와 밥할머니를 모시기 위한 전각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대해 현 대자사 주지 자운스님은 "약사여래불로 확인이 되면 불두를 조성하여 여법하게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글=김원우 사진=고영배 기자

돌부처찾기 어떻게 진행되나

석불제보접수 (내용 및 사진첨부)
↓
제보내용 자료정리
↓
석불연구회선정 답사
↓
정영호박사팀 고증
↓
'현대불교' 지면보도
↓
제보자에게 통보

'돌부처' 제보 전국서 잇달아

현대불교신문과 석불문화연구회가 공동으로 전국에 산재한 이름모를 돌부처를 찾아내 역사성과 가치를 복원하는 성보지키기 불사에 각계에서 전화가 잇따르는 등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대불교' 1월 14일자로 사고(社告)가 나간이후 21일까지 전국각지에서 13곳의 석불제보가 접수됐다.

현재 전국에 산재해 있는 돌부처의 수량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아직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채 가리워져 천재와 인재로 급속히 훼손, 마모되고 있는 현실이다.

정영호박사(한국교원대 박물관장)는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재관리는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등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문화재의 지정과 보수관리에 업무가 편중되 있다. 그러다보니 발굴과 지표조사는 거의 어려운 현실이다"고 지적하면서 "현대불교에서 이같이 뜻깊은 운동을 벌여 흔쾌히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근후박사(한국석불문화연구회 회장)는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민간단체의 역할이 크다. 일본의 계간지 〈석불〉은 수천명의 회원을 두고 문화재찾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연구소와 미술공예사 등에서 보존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민간단체의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대불교 '돌부처찾기운동'에 참여하는 정영호박사(사진 왼쪽)와 이근후박사.

우리나라에는 주로 논두렁이나 산속에 석불이 흩어져 있다. 20여년전부터 활동해온 한국석불문화연구회에서만 5백여점의 비지정문화재 석불사진을 확보하고 있는 것만봐도 그 규모는 짐작이 간다. 특히 미륵신앙의 영향으로 석상은 주로 미륵으로 통하는데 남한지역의 경우 3백71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사에서는 돌부처를 찾아 성보지키기에 나선 것이다. 특히 불상연구의 권위자인 정영호박사가 학술적 고증을 맡아 성과가 기대된다.

문화재적 가치에 비해 무심코 봐온 돌부처를 고증하고 보호하기 위해 본사에서는 전국 각사암과 불자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필히 사진 첨부). 특히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석불이나 각 지방자치단체나 문화재단사팀의 참여를 바란다.

〈제보: 현대불교신문 편집국 (02)732-1523〉

독자제보 현황(1월 21일 현재)

1. 불상=전남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구석마을회관에 수백년은 족히되는 불상1구가 있다. 문화재적 가치를 부여하여 관리가 제대로 됐으면 함. 제보자 마을주민 홍점식씨.
2. 석가모니부처님=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흥리 해룡사 경내에 있는 석가모니불은 50년전 이곳 사찰로 옮겨와 보존되고 있다. 마을에서는 '미륵부처님'으로 부르고 있으며 이운 당시 마을주민들이 장소가 확실치 않은 먼곳에서 옮겨왔다고. 모양은 투박해 천년은 족히 돼 보임. 제보자 인공스님.
3. 돌부처=충북 청원군 미원면 운용리 전통사찰 운용사 경내에 있는 돌부처가 있는데 어떤 신도가 원래 땅속에 묻어있던 부처님을 꿈에서 보고 찾아냈음. 언제것인지 알수가 없고 돌부처는 연꽃을 들고 있으며 옴자 표시가 있음. 제보자 혜암스님.
4. 돌부처=전남 담양읍 금원리 연화사 옆에는 불상이 산재해 있음. 현재 확인된 불상은 2구로 이 근처에는 더 많음. 금성산에 한개가 있고 무정면에 위치한 발옆 길가에 또 한개가 더 있음. 제보자 상원스님.
5. 약사여래불=전남 무안읍 성동리 약사사에 모셔져 있는 약사여래불은 원래 사찰터에 버려져 있던 것을 사찰안에 모시고 있다. 높이가 3m69㎝ 폭이110㎝이다. 지방문화재로 지정되기는 했으나 학술적 고증이 미비하다. 제보자 용암스님.
6. 비로자나불=경북 영천시 완산동 봉정사에 모셔져 있는 비로자나불은 근교사찰에서 수행하던 스님이 보시한 것. 학술적 고증이 필요하다. 제보자 화담스님.
7. 전남지역 석불=곡성 석곡과 죽산리 석불입상, 승주군 주안면 석불입상, 장동면 등천리 석불입상, 구례 반야사 석불좌상의 문화재적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함. 제보자 성춘경 곡성옥과미술관장.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 · 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진구품(塵垢品) ②

人如覺是 인여각시
不當念惡 부당념악
愚近非法 우근비법
久自燒沒 구자소몰

사람들아 이런 줄을 알겠거든
마땅히 나쁜 생각 품지 않아야 한다
어리석은 이는 법 아닌 것을 가까이 해
오래도록 제 자신을 불태워 버린다

若倡布施 약신보시
欲揚名譽 욕양명예
會人虛飾 회인허식
非入淨定 비입정정

만일 믿음으로 보시한다면서
제 명예나 드날리려 하거나
사람들의 허식에 맞추려 한다면
이는 깨끗한 마음자리에 드는게 아니다

一切斷欲 일체단욕
截意根原 절의근원

火莫熱於婬 화막열어음
揵莫疾於怒 첩막질어노
網莫密於癡 망막밀어치
愛流駃乎河 애류사호하

음욕보다 더 뜨거운 불이 없고
분노보다 더 민첩한 것 없으며
어리석음 보다 더 용근 그물 없고
갈애의 흐름은 저 강보다 빠르다

虛空無轍迹 허공무철적
沙門無外意 사문무외의
衆人盡樂惡 중인진락악
唯佛淨無穢 유불정무세

허공에는 아무런 자취가 없고
사문에게는 경계에 딴 뜻 없다
뭇 사람들 나쁜일 실컷 즐기지만
부처자리 만은 깨끗해 더러움없네

虛空無轍迹 허공무철적
沙門無外意 사문무외의
世間皆無常 세간개무상
佛無我所有 불무아소유

허공에는 아무런 자취가 없고
사문에겐 경계에 딴 뜻 없네

어리석은 이는 법아닌 것 가까이해 오래도록 제 자신을 불태워 버린다

晝夜守一 주야수일
必入定意 필입정의

일체의 욕심을 끊고
번뇌심의 뿌리를 잘라내어
밤 낮으로 근본자리 지키면
반드시 선정경계에 들어가리라

著垢爲塵 착구위진
從染塵漏 종염진루
不染不行 불염불행
淨而離愚 정이이우

세속의 때에 집착하면 망념이 되고
그것 따라 물들면 번뇌라 한다
물들지 않고 따라 행하지 않으면
마음 깨끗해져 어리석음 여읜다

見彼自侵 견피자침
常內自省 상내자성
行漏自欺 행루자기
漏盡無垢 루진무구

번뇌가 스스로 침범함을 바로보고
항상 안으로 볼 밝혀
번뇌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 살피면
번뇌 다하여 때없이 맑아진다

세간에선 모든게 덧없지만
부처자리엔 내것이라 할 게 없네

봉지품(奉持品) ①

好經道者 호경도자
不競於利 불경어리
有利無利 유리무리
無欲不惑 무욕불혹

바른 도를 좋아하는 이
이익 앞에서 다투지 않는다
이롭거나 이롭지 않거나 간에
욕심없고 미혹하지 않는다

常愍好學 상민호학
正心以行 정심이행
擁懷實慧 옹회실혜
是謂爲道 시위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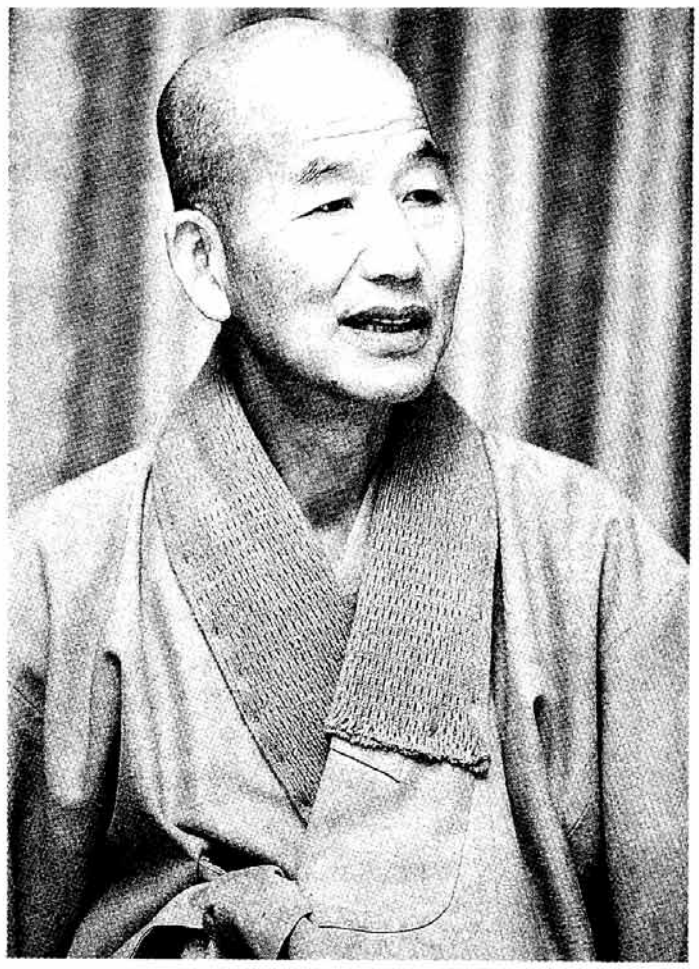
어긋날까 늘 걱정해 배우기를 좋아하고
마음을 바루어 그대로 행하며
실다운 지혜를 품고 지키는 것
이를 일러 도를 행하는 이라 한다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욕망과 허세의 거품

정무스님 〈영월암 주지〉



'나'라고 하는 중심 없는 거짓 형상에 얽매여 사니 개인도 나라도 흔들거려요

거품을 뺀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의 생활에는 참으로 많은 거품이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거품이란 허황된 것입니다. 속도 없이 부풀어 올라 실체인양 행세하는 것이 바로 거품이지만 사실은 그 실체조차 없는 거짓 형상입니다. 우리 중생의 삶에 거품이 많이 끼었다는 것은 불성(佛性)을 망각하고 번뇌와 망상에 사로 잡혀 살아 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경제의 거품을 빼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의 거품, 마음의 거품을 걷어내는 일입니다. 오늘날의 여러 고통은 어디서 왔는가. 바로 거품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욕망과 허세에서 온 것입니다. 욕망과 허세가 끓어 오르는 삶은 가식의 삶이어서 조그마한 일만 만나도 온통 우왕좌왕하며 정신을 못차리게 됩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고 하는 중심은 없고 거품과 같은 허세만 들어찼기에 작게 당할 어려움도 크게 당하고 얼른 가다듬을 수 있는 일도 점점 화근을 키워 결국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난국을 빌어 우리는 허세 부리지 않는 삶, 진심(眞心)으로 사는 삶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늘 진심이란 말을 사용하지만 무엇이 진심으로 사는 것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진심입니다. 참 마음은 무엇이냐. 바로 부처의 마음입니다. 일체중생이 다 불성을 갖추었다고 했으니 우리가 가진 부처의 마음, 곧 분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미혹에 떨어지지 않아서 언제나 바르고 밝은 마음이 곧 진심인 것입니다.

진심을 잃어 버리고 허망한 욕심을 따르다 보면 좋은 결과는 맺어지지 못합니다. 벼가 웃자라면 키는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외적으로만 커 나가다가는 내실을 갖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맞게 자라야 많은 알곡을 맺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안과 밖이 골고루 조화를 이루며 자라야 억겁다생의 복을 키울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는데서 안과 밖이 조화로이 자라는 것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65년에 밀양 표충사에서 살 때의 일입니다. 표충사에는 사명대사의 유물들이 있는데 나는 그곳에서 사명대사의 목판본 문집들이 정리되지 못한채 산질이 된 것을 보고 그것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문집의 목판본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분충서란록'과 '사명집' 그리고 '제영록'이 그것인데 보관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더러 유실된 판본도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판들을 차근차근 열람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본의 내용을 열람해 보니 판본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산질이 된 것처럼 보였을뿐 내용상 세권의 문집이 완벽하게 보관돼 있었던 것입니다. 더러 탈자가 된 것이 있어 순서가 흐트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름내내 판본들을 내용에 따라 맞추고 손상된 판들을 보강했더니 사명대사의 문집이 고스란히 살아났습니다. 참으로 보람된 작업이었습니다. 판본을 정리해 인쇄를 한후 각 대학과 사찰에 보냈더니 다들 "참 훌륭한 일을 했다"고 말하던군요. 나는 그때 온 마음을 바쳐서 일을 하면 안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3년후에 나는 경북 영주에 가게 되었습니다. 범어사를 가기 위해 중앙선 열차를 타고 가다가 영주에 내리게 된 것입니다. 허물없이 드나들던 안약국(安藥局)에 들렀습니다. 당시 영주의 안약국은 유명했습니다. 지나가는 객스님들이 그 약국을 객사로 이용했던 겁니다. 약사 부부의 장한 신심으로 약국이 절집같이 되어 버린 겁니다. 영주 안약국과 대구 대남한의원, 경주의 대자한의원은 스님들에게 소문이 난 곳이었습니다. 스님들에게 치료를 잘해주는 것은 물론 스님들을 공양하는데 지극했으니까요. 대자한의원은 고아원과 다름 없을 정도로 길에서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을 데려다 돌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안약국에 갔는데 주인이 "신심이 떨어져서 개종을 하든가 어찌해야겠다"며 머리를 절래절래 흔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그럴만도 하더군요. 영주포교당 때문이었습니다. 시내에 위치한 이 포교당은 한달에 한번씩 주지가 바뀌면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포교당의 운영권을 두고 비구와 대처의 실갱이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계종측 주지가 들어가면 다른쪽 신도들이 험담을 하고 애를 먹이다가 여비를 줘서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기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안약국의 주인이 마음이 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물어봤습니다. "그럼 지금은 누가 주지를 맡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지금은 스님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도 나의 인연이구나' 싶어서 범어사 가는 것을 포기하고 영주포교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작개비를 마련해 포교당에 들어가니 가운데는

약력
- 1931년 군산 生
- 전북대 졸업
- 58년 전강스님 은사로 봉은사서 득도
- 직지사 강원 졸업
- 영은사서 탄허스님에게 대교과 수료
- 71~82년 용주사 주지
- 83년 신륵사 주지

"분별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미혹에 떨어지지 않아 언제나 밝은 마음이 眞心"

책방 여시아문 2월 특선 - 경전의 지혜로 겨울나기

책방 여시아문에서는 올 2월, 많은 불자들에게 널리 읽히고 있는 경전들만을 간추려 특판전을 열고자 합니다.

금강경, 반야심경, 법구경 등 불자들이라면 누구라도 한번쯤 읽어 보아야 할 경전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매서운 날씨만큼이나 꽁꽁 얼어 붙은 우리들의 마음을 붓다의 지혜를 빌어 이겨 가시지 않겠습니까.

문의 전화:(02)737-0695, 732-1521

찾아오시는 길


금강경 강의 무비/ 불광 / 5,500
금강경 대강좌 청담/ 보성문화사 / 20,000
금강경 대강좌 이세열/ 여시아문 / 8,000
금강경 오가해 무비/ 불광 / 15,000
금강경 이야기 법륜/ 정토 / 상 9,500 하 6,200
금강반야바라밀경 월운/ 보련각 / 5,000
금강반야바라밀경 해안/ 불서보급사 / 4,500
능엄경 불전간행회, 김두재 / 민족사 / 9,500
능엄경 강화 1, 2, 3 동국역경원/ 각15,000원
능엄경 주해 운허/ 동국역경원 / 10,000
대승입능가경 김재근 / 명문당 / 7,000
묘법연화경 고산 / 반야샘 / 15,000
반야심경 법성 / 큰수레 / 8,000
반야심경 송원 / 상아 / 6,000
반야심경 이기영 / 한국불교연구원 / 4,000
반야심경 청담 / 보성문화사 / 9,000
반야심경 강의 한정섭 / 불교대학교 교제(편) / 6,000
반야심경 이야기 법륜 / 정토 / 7,000
법구경 김달진 / 현암사 / 8,000
법구경 불전간행회, 석지현 / 민족사 / 6,500
법구경의 세계 이원섭 / 운주사 / 7,000
법화경 운허 / 동국역경원 / 7,000
법화경 이원섭 / 삼중당 / 6,000
보현행원품 한정섭 / 불교통신교육원 / 6,000
보현행원품 강의 광덕 / 불광 / 4,000
보현행원품 강의 무비 / 민족사 / 6,500
아함경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 대한불교조계종 / 12,000
아함경1, 2 불전간행회, 돈연 / 민족사 / 각 7,500, 7,000
여래심지의 요문(대승입능가경) 박건주 / 농가산방 / 11,000
원각경 감산대사, 오진탁 / 세계사 / 15,000
원각경 관심석 범성 / 큰수레 / 9,000
원각경 주해 월운 / 동국역경원 / 3,000
유마경 불전간행회, 박용길 / 민족사 / 6,500
유마경 안진호 / 법륜사 / 25,000
유마경 장순용 / 시공사 / 12,000
유마힐소설경 이기영 / 한국불교연구원 / 8,000
육조단경 광덕(역) / 불광 / 12,000
육조단경 나카가와 다카, 양기봉(역) / 김영사 / 7,000
육조단경 심재열 / 보련각 / 15,000
육조법보단경 해의 법성 / 큰수레 / 12,000
천수경 무비 / 불일 / 4,500
천수경 강해 법성 / 큰수레 / 6,000
천수경 이야기 김호성 / 민족사 / 4,500
초발심자경문 심재열 / 보성문화사 / 7,000
초발심자경문 탄허 / 불서보급사 / 3,500
치문경훈 이일영 / 보련각 / 15,000
치문경훈 이일영 / 수덕사승가대학 / 15,000
한글 세대를 위한 법화경 상, 하 감산대사, 오진탁 / 세계사 / 각 15,000
한글 세대를 위한 법구경 최동호, 김달진 / 세계사 / 12,000
한글 아함경 고익진 / 동국대학교 출판부 / 12,000
화엄경 법정 / 동국역경원 / 7,000
화엄경 불전간행회, 김지견 / 민족사 / 12,000
화엄경 강의 무비 / 불광 / 9,000

성철 스님 법어집
백일 법문 상·하 상 6,500원 하 5,500원
선문정로 평석 6,000원
돈오입도 요문론 강설 5,000원
신심명 증도가 강설 6,000원
영원한 자유 6,000원
자기를 바로 봅시다 6,000원
돈황본 육조단경 6,000원
선문정로 4,000원
본지풍광 7,000원
한국불교의 법맥 5,500원

책방 여시아문 통신판매 안내
책방 여시아문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02)737-0695, 732-1521 /팩스:(02)737-0696

• 성철 스님 법어집 1질(11권 ~~₩63,500~~)을 구입하시는 분들에는 비디오(「스님, 성철 큰스님」₩100,000)를 선물로 드립니다.

큰스님 수행한담

삶을 힘들게 하죠”

“이 순간 나의 참마음 의심말고 이 순간 내 일에 최선 다하면 참마음 내는 수행입니다”



◇72년 4월 용주사에서 봉행된 가사불사 및 보살계 회향법회를 마치고 전강스님(왼쪽에서 두번째)과 함께 앉아 있는 정우스님(왼쪽에서 첫번째).

“난국 이기려면 眞心으로 사는법 배워야”

相 내는 마음이 수행자의 가장 큰 장애

법당이 있고 남쪽 요사채는 텅 비어 있는데 북쪽 요사채에는 대처승의 신도가 예불드 안하고 법회도 안 열면서 자리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후운 겨울 바람을 연탄난로 하나로 의지하며 혼자 밥을 지어 먹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들 저러다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마음을 다잡아 먹고 다음날 새벽부터 도량석을 돌았습니다. 그저 절 마당을 도는 것이 아니라 시내를 한바퀴 도는 그런 도량석을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석달을 계속하니까 신도들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정말 스님다운 스님이 왔다”는 말이 전해진다고 안악국의 주인이 말해 주더군요. 경찰들이 새벽에 주민의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말렸지만 “새마을 운동이 한창인데 누가 늦잠을 자느냐. 어서어서 일어나 일을 하자고 이렇게 목탁을 치는 것이니 말리지 말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서너번 말리던 경찰도 나중에는 아무 말을 않더군요.

2년간을 그렇게 새벽 도량석을 모시는 가운데 포교당은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2년째 되는 해 가을에 포교당 뒤안에 선 벚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가을에 벚꽃이라니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물론 기온이 따뜻해서 철모르고 꽃을 피웠던 것이지만 많은 신도들이 몰려들어 “이제 포교당은 부처님 법이 살아 있는 도량이 된 것이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이유야 어찌됐던 혼란스럽던 도량에서 여법한 법회도 열리고 아침 저녁으로 염불소리가 울리게 되었으니 참으로 잘 된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간 고생이 얼마나 많으셨냐”며 부끄러워 하는 신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바쳐서 매진하면 안되는 일이 없습니다. 절은 절인 채 늘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주지를 맡아 관리하든 절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법도 늘 그렇게 법다운 채 우주에 충만해 있습니다. 개인 개인이 그 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쓰느냐 법을 법으로 보는 눈이 없어 미혹을 헤매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라고.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이고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는 관단이 서는 순간부터 진심을 내어야 합니다. 허세와 허욕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고 진심으로 일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능력을 훨씬 넘어선 곳에서 능히 그 일을 이루어내는 힘이 나옵니다.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거듭되는 환란을 겪어 왔습니다. 외부의 침탈에 짓밟히면서도 꿋꿋하게 견뎌 온 우리 민족이 요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거라는 생각과 능히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진심을 내는데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도 나온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마다 어려움이 따르고 그 어려움에 처해 스스로 나약해 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진정 진심으로 사는 사람은 스스로 진심을 지녔다는 생각조차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마음을 내며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상(相)을 내지 말라는 것은 진심의 자리를 여여(如如)하게 주고 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상을 내는 사람은 진심의 그림자에 얽매인 것입니다.

나의 은사이신 전강(田岡 1898~1975) 스님은 상을 내는 마음이 수행자의 가장 큰 장애라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어느날 한 스님이 전강스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짧은 대화가 있었고 그 스님은 입을 다물고 황급히 가버렸습니다. 대화내용은 이렇습니다. 찾아 온 스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스님, 저도 견성을 했습니다. 제가 견성을 못한 주제에 이런 말을 했다면 지는 지옥을 갈 것입니다.”

“그래? 네가 견성을 했다면 내가 지옥을 가겠다.”

전강스님은 견성을 했노라 말하는 그 자체가 이미 지옥을 가도 천번은 갈 미혹이라는 것을 타이르신 겁니다. 그러니 그 스님은 입다물고 모망칠 수 밖에 다른 수가 있겠습니까.

전강스님은 한때 도봉산 쌍룡사에서 선방을 열었는데 그 선방에서는 사부대중이 함께 정진했습니다. 사부대중 20여명이 선방이 앉아 화두를 참구하는 것은 당시로선 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화두를 들고 앉아 정진하는 데는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스님은 그 동안거 한철 내내 법문을 하시는 진지함을 보이셨습니다. 그렇듯 걸림이 없이 문을 활짝 열고 사셨던 전강스님은 매사에 진심을 내보이는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진심을 내어 수행하고 진심으로 일하고 생활하되 그 상에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걸 이 생에 다 마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욕심을 부릴 수도 없고 욕심 낸다고 될 일도 아니잖습니까.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저 이 순간 나의 참마음을 의심하지 말고 이순간 내 일을 해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허세와 허욕을 경계하고 마침내 허세다 진심이다 라는 구별마저 하지 않으며 ‘지금 여기의 나’에게 충실하는 것이 불성의 여여한 모습을 구현하는 길일 뿐입니다.

71년부터 12년간 화성 용주사 주지를 하며 〈부모은중경〉 강의를 수없이 했습니다. 세상에 부모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을 수 없듯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 수도 없습니다. 효는 백가지 행동의 근본이란 가르침이 굳이 유학의 도만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 도리임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부모은중경〉에도 어버이의 은혜를 다 갚기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버이의 은혜를 갚는 일은 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 어깨에 어버이를 업고 수미산을 5백생동안 오르내려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는 대목이 〈부모은중경〉에 나옵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젊은 사람들 앞에서 이 대목을 강의하면 대부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런 사람이 드물거든요. 세상이 그만큼 각박해 진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역시 진심이 가려진 시류의 한 단면일 것입니다. 참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야 세상의 정치도 안정되고 경제도 안정됩니다. 참마음의 자리를 찾아 사는 사람은 부모의 은혜 뿐 아니라 나라와 스승과 더불어 사는 이웃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삼일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고 백년을 탐낸 마음은 하루 아침의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순간을 진심으로 닦는다면 그 한순간은 진심으로 살게 됩니다. 내게 갖춰진 참마음, 바로 불성 그 자체로 여여한 마음 자리를 찾는 일에서 오늘의 경제 위기와 각박해진 시류를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임연태 기자

나와 경전 39

자타카



장 휘 옥
동국대 강사

대부분 중고등학교시절 영어 독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 번쯤은 영어로 된 동화책을 읽은 기억이 있을 것이다. 나도 대학 1학년 시절 처음으로 일본어를 배울 때 일본어 독해를 위해 산 책이 〈자타카〉다. 그때는 불교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고, 별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자타카〉는 나에게 단지 일본어 교재로써 교훈적인 동화책에 불과했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긴 〈자타카〉가 나와 불교의 인연을 맺게한 보이지 않는 끈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자타카〉(Jataka, 本生이라 번역함)는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를 모은 책인데, 현재 남전대장경 속에 547개의 이야기로 수록돼 있다. 내용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 과거세의 수행자 시절(이때는 보살 또는 대사라 불렀다)이었을 때, 어떤 선행과 공덕을 쌓아 부처가 되었는가를 말해주는 인연설화이다.

〈자타카〉의 소재로는 주로 고대 인도 민중들 사이에 널리 전해지고 있던 설화나 우화가 중심이 되었고, 현재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은 5세기 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교가 아시아지역으로 전파됨에 따라 〈자타카〉는 중앙아시아 각국을 비롯하여, 자바의 볼보도르섬, 중국의 용문석굴 등에 조상(影像)과 벽화의 소재로 많이 제공되었다.

〈자타카〉에 수록된 모든 이야기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현재의 이야기’로서, 부처님이 과거세의 일을 이야기하게 되는 인연을 설하고, 이어 〈자타카〉의 중심내용인 ‘과거세 이야기’를 설한다. 여기서 부처님의 전신인 보살은 과거 영겁의 세월동안 생을 되풀이하면서 인간뿐 아니라 동물, 귀신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모습으로 때로는 주인공, 때로는 방관자가 되어 등장한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특정인물과 과거세의 어떤 인물간의 인과관계를 밝힘으로써 이야기는 끝난다. 그 중 한예를 들어보자.

부처님이 죽림정사에 계실 때 비구들이 부처님께 제바닷다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자, 부처님은 과거세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 대부호의 아들이 있었다. 그는 양친이 돌아가신후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빚까지 지게 되자 죽기위해 강에 뛰어 들었다. 그때 한 마리 황금색 사슴(석가모니의 전신)이 그를 구해 준 후,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았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받았다. 그날, 황금색 사슴의 꿈을 꾼 왕비가 황금색 사슴의 설법을 듣지 못하면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시 왕은 사슴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사람에게 후한 상금을 내린다고 공포했으며, 이 소식을 들은 대부호의 아들은 약속을 저버리고 사슴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 결국 사슴은 잡히게 되었고, 사슴은 왕에게 대부호아들과의 사연을 이야기했다. 왕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는 죽여야 한다면서 대부호의 아들에게 사형을 언도했지만 어리석은 자에게는 저절로 재

부처님 전생 인연설화 547편
시대 초월한 인과법 ‘귀한 교훈’

앙이 미칠 것이니 그냥 돌려보내라는 사슴의 말을 따랐다. 이후 왕은 아무도 동물을 해치지 못하게 하는 명을 내렸고, 사슴들이 곡물을 마구 먹어치워도 저지할 수 없게 됐다. 참다못한 농부들이 왕을 찾아가 호소했지만 왕은 왕국이 멸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슴과의 약속은 저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은 안 황금색 사슴은 사슴들을 모아 놓고 앞으로 곡물을 마음대로 먹어서는 안된다고 주의시키고, 농부들에게는 자신들의 전답에 표시를 하게 했다. 그후로 사슴들은 표시가 되어있는 밭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

부처님은 이상의 설법을 마치신 후, 비구들에게 제바닷다가 은혜를 모르는 것은 이와 같이 현생에만 한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대부호의 아들이 지금 제바닷다이고, 왕은 지금의 아난이며, 황금색 사슴은 바로 부처님 자신이라고 했다.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위험에서 구해준 은혜조차도 저버리는 배은망덕함은 이 시대나 그 시대나 변함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인과법에 따른 악업의 과보도 시대에 상관없이 반드시 닫게 된다는 사실이다.

1600년 한국불교의 신비

“한국불교문화유산특선” 비디오 출시

이름모를 산야에 흩어진 기와장 하나 돌뿌리 하나에서도
선조들의 지혜와 혼을 배우고자하는 사명감과
우리문화 바로세우기의 일념으로 만들어 낸 작품입니다.
고려대장경, 석굴암 등 이름만 들어도 가슴 뭉클한
선각자의 체취를 느끼시는 당신에게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불교를 아는 당신에겐 21세기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한국불교문화유산특선

삼보사찰 - 불보종찰 통도사
- 법보종찰 해인사
- 승보종찰 송광사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 고려대장경 Ⅰ, Ⅱ
-불국사·석굴암Ⅰ, Ⅱ

불교전통의식, 의례
- 예불
- 발우공양

불교전통문양
- 한국사찰의 꽃문



▲ 예불
채탈음과 중생구제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불교의식 장엄미의 백미인 예불의 전 과정 최초 공개



▲ 고려대장경 Ⅰ, Ⅱ
세계적인 문화유산 고려대장경의 역사적 진실과 신앙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해 낸 본격 다큐멘터리 제1부 ‘대결집’, 제2부 ‘7백년 보존의 신비’



◀ 석굴암
불교사상과 예술의 화백한 조화를 이룬 석굴암 조성의 불교적 원형을 추적해 낸 역사추리극 형식의 본격 다큐멘터리

10개 1SET ※카드결제 가능

대하다큐멘터리
티베트 불교



4년의 제작기간, 신비의 스펙타클
- 전 30부작 15개 (출시판매중)

btn

구입문의처 불교TV영상포교사업단 3272-0781~5, 706-3502~5

※ 불교TV는 케이블TV에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마음' 근원서 지혜광명 나툰다

문답으로 풀어본 禪 (下)

문 생사의 미혹은 망념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망념이 일어나는 그 근원을 찾아 밝혀 본다면 생사의 미혹은 저절로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답 일단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범부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망념에 사로잡혀서 머리통이 뒤집혀져(顚倒) 버리기 때문에 본분의 불성 등은 어디 번뇌의 티끌 속에 매몰되어 버린 상태가 된다. 명월을 구름이 뒤덮어 버린 것과 같다.

문 망념을 설한 가운데 큰 망념, 작은 망념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어떤 뜻인가.

답 작은 망념이란 보고 듣고 맛보는 것처럼, 오관이 밖의 외경에 접촉하여 그때 그때에 감자기 일어나는 번뇌이다.

큰 망념이란 이처럼 일시적인 번뇌가 아니라 무시겁래로 생명 그 자체에 밀착하여 생사의 근원이 되고 있는 탐진치의 번뇌를 말한다.

좌선하고 있을 때만은 이 대소 삼독의 망념(번뇌)에서 해방되는데, 그것을 만산 충론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진실한 도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진실로 도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그마한 망념(번뇌)을 수습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아가 무시겁래로 생사의 근원을 분명히 밝히고, 커다란 망념인 삼독 무명의 뿌리를 완전히 절단해 버릴 때까지 끝까지 수행 정진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이 생사의 근원을 분명히 밝히고 무명의 뿌리를 완전히 끊어 버리기만 한다면 번뇌는 전멸하여 보리가 되며, 삼독은 변하여 삼취정계가 되며, 생사는



◇일심은 본래 청정한 것이기에 번뇌 망상에 오염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더러운 진흙 속에서 청정한 연꽃이 피어나듯이…

망상의 뿌리는 꿈·물거품
실재한다고 믿으면 자기 잃어버려

그러나 잠시 한 순간 감추어진 것일 뿐이지 불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망념이 일어나는 그 근원만 안다면 명월이 구름속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본분의 불성도 다시 빛나게 되는 것이다.

문 앞에서 좌선의 마음가짐으로 〈육조단경〉에서 설하고 있는 '一切善惡 都莫思量: 선과 악, 그 어떤 것이라도 사량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답 어떤 것이라도 생각(思量)하지 말라! 이 한 구절은 진실로 생사의 근원을 끊어 버리는 날카로운 칼과 같은 것이다. 좌선할 때만의 마음가짐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만약 이 한 구절에 확신이 철저하면 그 사람은 그대로 시작도 없고 마침도 없는 부처이다. 매일의 일상에서도 이 한 구절을 염두에서 여의지 않고 일을 처리해 간다면 놉거나 일어서거나 일체의 모두가 그대로 선의 생활이 된다.

문 망념을 설한 가운데 큰 망념, 작은 망념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어떤 뜻인가.

답 작은 망념이란 보고 듣고 맛보는 것처럼, 오관이 밖의 외경에 접촉하여 그때 그때에 감자기 일어나는 번뇌이다.

큰 망념이란 이처럼 일시적인 번뇌가 아니라 무시겁래로 생명 그 자체에 밀착하여 생사의 근원이 되고 있는 탐진치의 번뇌를 말한다.

좌선하고 있을 때만은 이 대소 삼독의 망념(번뇌)에서 해방되는데, 그것을 만산 충론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진실한 도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진실로 도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그마한 망념(번뇌)을 수습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아가 무시겁래로 생사의 근원을 분명히 밝히고, 커다란 망념인 삼독 무명의 뿌리를 완전히 절단해 버릴 때까지 끝까지 수행 정진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이 생사의 근원을 분명히 밝히고 무명의 뿌리를 완전히 끊어 버리기만 한다면 번뇌는 전멸하여 보리가 되며, 삼독은 변하여 삼취정계가 되며, 생사는 그대로 영겁의 열반이 되며, 육근의 활동 작용이 그대로 제불의 육신통이 된다.

문 다년간 좌선 수행해온 사람은 구름걷힌 달과 같고 먼지가 없어진 거울처럼 몸과 마음이 청정하겠지만 처음 수행하는 사람은 망상과 전도된 생각으로 괴로워하게 된다. 어떻게 수행해야 망상이 없어지는지.

답 망상과 전도된 생각을 미워해서는 안된다. 망상을 없애리라! 없애리라! 라고 하면 할수록 망상이 더욱 더 일어나는 것이다. 망상이 일어나도 내버려 두고 상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것보다도 오로지 진실의 자기를 분명히 밝히는 일에 힘쓰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수행이다. 진실의 자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본래청정하여 아무 것도 없는 곳에 망상과 전도가 실재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착정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들면 수면중에 꿈을 꾸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웃을 일도 울어야 할 일도 없지 않은가.

망상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망상 속에 사로잡혀 있을 동안에는 아무리 애를써도 벗어나기 어렵지만, 일단 본심에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이 모두 공(일체개공)한 것이므로 본래 아무 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문 번뇌가 보리(번뇌즉보리)이며, 생사가 열반(생사즉열반)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어떠한 의미인가.

답 우리들의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무심인 것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갑자기 일념(망념)을 일으키면 그 한 생각이 다음의 생각을 일으키고, 생각 생각이 어지럽게 일어나, 눈 깜짝할 잠깐 사이에 망상 전도가 생겨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첫째 생사의 근본이다.

일심은 본래 무(無)인 것이며,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인 것임을 알면 그곳에는 자기다, 남이다 라고 하는 차별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미워함도 없고 귀여워함도 없다. 완전히 무념인 것이며 무심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생사 가운데 있으면서 생사를 여의고, 자타 가운데 있으면서 자타를 초월하여, 선악 애증, 그 가운데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물건에도 집착하거나 걸림이 없는 생활을 생사즉열반이라고 하는 것이다.

일심의 근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념 망상을 실재한다고 생각하여, 항상 진실의 자기를 잃어버리고, 불성을 감추고 있는 것이지만, 이 망상 번뇌의 근원을 다 밝혀보면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이 아무 것도 있지 않는 것이다.

일심은 본래 청정한 것이기에, 번뇌 망상에 오염되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번뇌 망상이 아무리 많아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마음의 경지(心境)를 번뇌 즉 보리라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이 일심의 근원에 도달하면 본분인 큰 지혜의 광명이 저절로 그곳에 나타나게 된다. 그곳에는 번뇌도 없고 보리도 없고 생사도 없고 열반도 없으며,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으며, 일체의 만법이 이 일심 가운데 수습되고 만다. 그리고 제불의 깨달음인 공의 경지를 체득하게 된다.

문 견성하여 깨달음을 얻기만 하면 번뇌 즉 보리이며, 생사 즉 열반이기 때문에 그 뒤는 이제 아무 것도 수행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답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경전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불심을 깨달아서 알아버렸다면 경전의 말씀은 이제 필요없는 것이다. 팔만사천의 법문도 모두 일심 가운데 역역해 마치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처럼 분명한 것이다.

일심을 깨달아버리면 이제 한권의 경전도 필요없는 것이다. 또한 조사의 말씀(語句)은 남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기왓조각과 같은 것이다. 아직 대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왓조각을 집어들고 대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안되지만, 일단 대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기왓조각은 필요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래서 불조의 본의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경문의 가르침도 소중한 것이고, 조사의 말씀(語句)을 공안으로 하여 문제제기(拈提)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미 견성하여 깨달음을 얻고, 불조의 본의를 철저히 알아버렸다면 견성이라는 것도 특별히 기특한 일이 아니게 된다. 성불이라는 말도 필요 없게 된다. 찾고 구해야할 부처도 없고, 싫어해야할 중생도 없기 때문이다. 본래무일물인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에 걸쳐서도 얻을 것이란 없는 것이다. 불가득인 것이다.

문 견성성불하여 깨달음을 얻었다면 언제 죽더라도 대안심이며, 대왕생이 이루어질 것이다. 만일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임종을 맞이할 경우에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최후의 각오(覺悟)에 대해 일러주시길….

답 심중에 일념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생사라고 하는 관념이 생기는 것이다. 본래 무심인 그대로 있으면 몸이 생겼다(태어났다)라고 하는 의식도 없을 것이고, 본래 무념인 그대로 있으면 마음이 죽는다(滅)라고 하는 의식도 없을 것이다. 무념 무심한 그곳에는 생멸의 관념이란 없다.

우리들의 이 육체는 인연에 의해서 가짜로 결합된 물질의 이슬과도 같은 것이다. 이슬에는 본래 자아가 없기 때문에 생겨났다고 해서 기뻐하지도 않고, 멸했다고 해서 슬퍼하지도 않는다.

인간도 나의 몸, 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자성에는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사실을 믿고, 태어났다라고도 생각하지 말고, 죽었다라고도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무념 무심으로 있으면, 설사 견성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이 그대로 삼세제불의 대열반과 조금도 다름이 없게 된다.

최후의 임종에 임하여 선악 고락등 여러 가지의 잊된 모양(幻相)이 나타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은 일체 상대를 해서는 안된다. 그곳에서 탈괄만큼이라도 생각을 일으키면 그것이 미혹의 원인이 된다.

다만 한결같이 무심을 수행하여, 앉으나 서나, 눕거나 일어나거나, 이 무심의 경지를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그것이 훌륭한 좋은 임종의 마음가짐이다. 이밖에 달리 임종에 대한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진실로 무심의 도에만 안주할 수 있다면 벚꽃의 꽃잎이나 나엽이 바람부는 그대로 흩날리는 것같이, 또한 서리나 흰눈이 아침 햇살에 그대로 녹아버리는 것처럼, 미련없이 깨끗하게 죽어갈 수 있는 것이다. 어떠한 준비나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일까?

진실로 이 무심의 경계를 알면, 미혹하지 않으면 안될 삼계 육도도 없고, 선택하지 않으면 안될 정토나 예토도 더이상 없다. 부처도 중생도 없다. 이 무심의 도에 안주하여 생사가 없어진 경지를 열반적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최후에 설법한 〈涅槃經〉에서 '제행은 무상한 것, 이것은 생멸의 법이기 때문이다. 생멸이 멸기하면 적멸을 가지고 나으로 삼는다'라고 설하셨다.

무심의 마음!

이것이야말로 삼세 제불의 본사이다.

이것이야말로 우주 제일의 부처이다.

이 무심의 본불(本佛)을 완성하는 것이 제불의 깨달음이다.

이러한 불법의 깊은 뜻을 아는 이것을 적멸위락이라고 말한다.

이와같이 무심의 법을 돈독히 믿고, 임종에 즈음해서는 그 무심까지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

도움말: 성본스님〈동국대 교수〉

눈 열리면 '일체개공' 알게돼
부처 중생, 정토 예토 없다

생활에 걸림없으면 생사즉열반
번뇌에 방해받지 않으면 번뇌즉보리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불로화정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2개월분 400,000원)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來健康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범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화제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래건강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불자들을 돌봐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치금까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하였음

"마음껏 보고 생각하고 느끼게 하자"

어린이를 어린이답게 여실하게 키우자

김종서박사가 쓰는

불교와 교육 〈15〉

어린이들은 잠시도 쉬지않고 만지고 부수고 맛보며 지적세계 확대 어른스런 어린이 '허상'



그림 · 이준석

몇 해 전에 지방 중소도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정년 퇴임식에 참석한 바 있다. 이때 나를 놀라게 한 일이 있었다. 그것은 4학년, 5학년 여자 어린이들 20명 정도가 합창을 하기 위하여 자리 잡고 있었는데 모두 한복을 입고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던 점이다. 한복을 입은 것은 아름답게 보였지만 입술은 빨갛게 칠하고, 얼굴에는 분을 바르고, 머리는 대부분 파마를 하고 있었으니 이 어찌 어린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분명히 어린이의 실상(實相)은 아니며 허상(虛相)이다. 여실(如實)이 아니라 여허(如虛)이다.

흔히 우리는 어른다운 어린이를 훌륭한 어린이라고 한다. 점잖고, 조용하며, 장난하지 않고, 어른의 말에 고분고분 순종을 하면 "저 애는 속에 영감이 들어 앉았다"라고 칭찬한다. 그러나 이러한 어린이의 모습은 어린이의 실상은 아니다.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의 실상이 있고, 어른에게는 어른의 실상이 있다.

이러한 점은 인간의 신체적 구조면에서도 엿볼 수 있다. 신생아는 머리의 길이가 전 신장의 4분의 1이지만 어른은 8분의 1이며, 신생아의 눈의 위치는 얼굴의 한 가운데에 있지만 어른의 눈은 위로부터 4분의 1이 되는 위치에 있다. 어린이를 확대하여도 어른이 안되고 어른을 축소하여도 어린이는 되지 않는다.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의 세계가 있고 어른에게는 어른의 세계가 있다.

물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실(如實)은 어린이, 어른과 같은 현상계(現象界)로서의 여실(如實)은 아니라고 생각 할 수도 있으나 현상계의 근본지(根本智)로서의 여실임을 감안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어린이를 어린이의 실상답게 키우고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몇 가지의 예를 들어 보자. 그 하나는 어린이의 자발활동에 관한 것이다.

나는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노인들이 손자녀를 데리고 노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평화스럽고 행복하게 보였다. 그런데 나 혼자 손자를 보는 경험을 하고는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손자와 같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줄은 미처 몰랐다. 마치 중노동과도 같았다. 어린이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무엇을 만져 보고 두드려 보고 부수고 입에 넣어 맛을 보고 핥아 보고 한다. 그래서 잠시도 손자로부터 눈을 뗄 수 없었다. 흔히는 어린이들에게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책 좀 읽게"와 같은 표현으로 야단친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어린이가 조용할 때는 잠들었을 때와 몸이 아플 때뿐이다.

몇 해전 3월에 어떤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밖을 내다 본 일이 있었다. 새로 입학한 1학년 어린이들이 활발하게 뛰어 놀고 있었는데 한 여자 어린이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 어린이는 흰 옷을 입고 흰 양말을 신고 있었으며 다른 어린이와 놀지 못한 채 노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 볼 뿐이었다. 아마도 옷을 더럽힐까 하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어린이가 자라서 과연 이 사회를 힘차게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극히 의심스럽다.

나는 어린이의 자발활동적 실상에 입각하여 어린이 불교교육에 관한 제언을 하고 싶다. 그것은 어린이의 자발활동에 기초를 둔 어린이를 위한 포교의 방편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많은 사찰에서는 부모가 어린이를 데리고 사찰에 오는 것을 싫어한다. 그것은 어린이들의 자발활동으로 인하여 사찰의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린시절의 불교적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면 도리어 어린이들이 부모에게 사찰에 가자고 조를 수 있도록 적극적 방편이 마련되어야 한다.

요즘 부모들 인위적·기교적으로 아동교육
종교적 질문은 발심…"불심 심는 기회로"

예를 들면 어린이 놀이터를 마련한다든지, 동화를 들려 준다든지, 그림연극을 보여 준다든지 하는 등의 방편의 구상이 요망된다. 부처님께서는 상대방의 근기에 따라 설법을 달리 하셨다. 그래서 팔만사천 법문이라고 하는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하여 어린이 포교를 위한 방편이 어린이의 심리발달에 알맞도록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어린이의 질문활동에 관한 것이다. 만 4세경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어린이의 질문활동이 대단히 활발하다. 부모가 귀찮을 정도로 질문공세를 퍼붓는다. 어린이의 실상을 모르는 부모는 질문을 봉쇄하고 답변을 회피한다. 그러나 어린이의 질문은 지적 세계를 확대하는 절실한 내적 욕구의 표현인 바 이에 대한 적절한 지도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질문이 많은 어린이일수록 지능이 높은 어린이이다. 왜냐하면 질문은 자기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지적 탐구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문들 중에는 종교적 내용도 상당히 많으므로 불자인 부모는 이 기회를 포착하여 자녀에게 불심을 심어 주어야 한다. 설혹 종교적 문제에 관한 질문을 일으키지 않으면 부모가 이러한 질문을 일으키도록 유도를 해야 할 것이다. 종교는 인생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다. 석가모니(釋迦牟尼)의 발심은 곧 질문이었다. 어린이의 질문 특히 종교적 질문을 어린이의 발심으로 보고 이를 소중히 여기는 어른들의 마음가짐이 요망된다.

어린이들은 또한 상모적 지각(相貌的知覺)을 가지고 있다. 상모적 지각이란 일체의 만물은 자기와 마찬가지로 말하고, 보고, 생각하고, 느낀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나무가 말하고, 햇님이 웃고, 달님이 내려다 본다고 지각한다. 이러한 시기에는 일체중생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의 가르침을 어린이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다. 어린이는 부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안 계신 때가 없다는 것을 쉽게 받아 들일 수가 있다.

금강경 오가해(金剛經 五家解) 야부송(冶父頌)에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山是山 水是水)"라는 구절이 있다. 이 가르침을 소박하게 그대로 받아 들이면 "어린이는 어린이요, 어른은 어른이다"라고 풀이 할 수 있다.

어린이를 어린이답게 키우면서 지도하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여실(如實)이다. 오늘날의 부모는 어린이를 너무나 인위적, 기교적, 허상적(虛相的)으로 키우고 있다. 속되게 표현하면 어른들의 잘못된 손때를 너무 많이 묻히고 있다.

어른들의 생각이 얼마나 삐뚤어지고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린이들은 어른이라고 하는 공해에 둘러 싸여 자라고 있으니 어찌 바르게 자랄 수가 있을까?

우리는 어린이를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키우는 지혜를 습득해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생활불교용어



"자네, 참으로 출세했네…" "그 사람은 이제 출세 가도에 들어섰어…" "사람은 출세하고 볼 일이야…" "출세해서 남 주나?"

일상에서 쓰이는 '출세'는 세상에서 성공하여 직위가 높아졌음을 말한다. 그런가 하면 숨어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이 세상에 알려짐도 출세라고 한다. 이 경우의 출세는 세속의 명예와 이익에 직결되어 있어서 세인(世人)들이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본디 출세란 불교에서 나온 단어다. 불교에서 말하는 출세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남을 말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셨거나 미래에 미륵 부처님이 나올 때를 출세라고 한다. 부처님이 아니더라도 보살이 세상에 나와서 많은 사람을 교화시키고 많은 도움을 줄 때도 "보살이 이 세상에 출세했다"고 한다.

출세

부처님보살 이 세상에 나타남 입신하여 우러름의 대상이 됨

부처님이 세상에 출세하신 참뜻을 출세본회(出世本懷)라고 하는데 출세본회만 알면 불교인으로서는 완전한 경지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단어로는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동쪽인 중국으로 와서 선불교(禪佛敎)를 전한 의미를 일컫는 서래본의(西來本意)가 있다. 부처님 출세본회나 달마서래본의나 모두 불교의 진실한 뜻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생을 꾸며가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출세는 대부분 입신을 통한 부귀영화다. 세속출세를 꿈꾸는 바쁜 생활 중에서 잠시 머리를 돌려 불교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출세를 종종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이미 가정을 이뤄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가정과 사회를 버리고 출세한다는 것은 출세본회나 서래본의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사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가정에 충실하면서,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 출세의 경지를 추구하고 체험할 수 있다. 세속적인 출세와 불교적인 의미의 출세가 동시에 이뤄지면 그 때 비로소 행복은 완성될 것이다.

참고 안길모著 '이판사판 야단법석'

감 · 로 · 심 · 장 · 회
●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 순수봉사단체입니다 ●
심장병 · 안면기형 · 안과 (백내장, 녹내장)
후원문의: ☎ (0591)747-0106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타큰스님 법어집

"맑고 향기로운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문(門)"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가깝게 대중들에게 전하셨던 일타큰스님. 일타큰스님의 법어집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가 출간되었습니다.
고된 삶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드립니다.
법(法)의 향기 가득한 일타큰스님의 말씀, 삶의 지표를 다시금 세워보십시오.

Ⅰ.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 Ⅱ. 복된 삶을 이루기 위하여 / Ⅲ. 베풀며 살자 / Ⅳ. 밝은 삶을 여는 계율 / Ⅴ. 자기를 돌아보는 공부 / Ⅵ. 화두 드는 법 / Ⅶ. 마하반야바라밀

※ 월간 『법공양』에 연재되었던 일타큰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을 한권에 담았습니다.

신국판 / 값 5,000원

고된 삶의 감로수 같은 일타큰스님의 책모음

· 생활 속의 기도법 일상생활에서 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법 모음집 B6 / 3,500원
· 祈禱(기도) 일타스님과 도반 · 선배 · 제지 · 신도들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신국판 / 5,000원
·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스님 주변의 윤회와 인연이야기 모음집 신국판 / 5,000원
·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신국판 / 5,000원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스님의 강설집 신국판 / 5,000원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아운비구의 《자경문》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신국판 / 5,000원
· 법공양문 부처님과 역대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5,000원
· 범망경보살계1~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스님의 무애변 無碍辯 을 담은 책 신국판 / 각권 6,000원
· 감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샘솟는 일타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육성법문 테이프 / 5개 1세트 / 10,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 582~6612 팩스 : (02) 586~9078

생활속의 모든 정보!
불·자·정·보 에서 만나세요.

함께 나누는

불·자·정·보

불자정보 광고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됩니다.
광고문의 전화 (02) 732-1522(直)
FAX (02) 737-0697

● 건강 ●

한방암정보 02) 700-6366

승가 전통의 손맛…
온돌방 전통메주
(음식조리용 장군죽염)



▶ 재래콩 메주에 음식조리용 죽염으로담근 죽염된장 간장은 영양가득 악성이 풍부한 무공해식품이 될 것입니다.

마을을 나누며 사는 사람들… **보리가족**
02)3141-1011/011-786-0817
· 온돌방 전통메주 소두1말(斗) 5개 값 39,000원
· 음식조리용 죽염 특별포장 5Kg(1) 값 35,000원

밀교 수행자
연락처 015-8487-3674
당뇨 · 간경화 · 비만관리
※ 3~7일간 치료 지도 ※
能仁 看病會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893-16
011-337-0353
02-809-1831

대보생식 02) 427-9162~3

간경화 · 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 · AIDS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대체의학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및 외견상 완치가 아니면 치료비를 받지 않습니다.
TEL : 0552-82-8128 · 8118
H.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수맥(水脈)을 바로 알면 건강해지고 집안이 흥해집니다!
● 공부 잘하던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고
● 원인도 없이 시름시름 앓고
● 매사 의욕이 없고 우환이 잦으시며
● 집안에 중풍이나 치매환자가 있다면… ※ 수맥상담 및 출장 탐사
실로암수맥연구회
02)362-8466/392-8621
FAX 02)392-8621
※ 수맥연구원 약간명 모집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0593)34-1115~6
012)598-1015

◆ 청학사 수양원 ◆
■ 수양 · 요양 · 기도 · 공부
■ 선착순 20명 모집
■ 月 숙식비 ₩300,000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연락처 0595)83-2933
경남 하동군 박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 강좌 ●

철학의 길잡이 삼 재
● 90분 녹음 (166회) ●
교재 4권 1117쪽 녹음
기초부터 격국 · 용신까지
이석영 선생님의 제자 단원 선생님 강의
대구 단원문화생. 단국철학
053)475-2746
012)753-2746 · 011)535-2746
※ 말문이 트입니다.
◑ 들어오는 삼재, 누울삼재, 날삼재, 혼히 말하는 삼재, 삼재, 삼재…
◑ 삼재의 원리와 화(휴)삼재, 복(길)삼재 - 60분짜리 3개
◑ 戊寅년 운세 - 60분짜리 3개
▶ 문의 : 철학의 길잡이 참조

현정 심성개발 · 상담센터
Tel.(02)583-0041(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홀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감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월 4회 실시-매주 수요일 오전10시~12시까지)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확 생 모 집
▶ 포교교육과 : 동양종교, 종교음악, 역학지도
▶ 유아교육과 : 유아놀이, 아동미술, 생활미술
▶ 종무행정과 : 상담실무, 상담행정, 생활상담
1. 수료후 수료증 수여 및 자격증(포교사, 법사, 유아지도자, 창작놀이사, 불음법회사, 상담사, 역학사) 취득가능
2. 소형버스 통학가능 3. 충북괴산에서 월 2회~4회 강의
4. 수업기간 : 2년
02)931-6075~6/0582)535-1987
(교육청 인가 57호)
만대교학대학원

지장경 독송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현대불교신문
강 릉 지 사
0391)43-5599

천 워커힐 심라 피아니스트
PIANO 전문 LESSON
⊙ 찬불가
(찬불가곡 · 찬불가요 · 찬불동요)
⊙ Jazz Piano
⊙ 피아노 치며 노래하는 반주법:
초보자 3개월 완성(가요 · 팝송 · 가곡)
강남피아노 교습소
02)554-1512

혜주스님 戊寅년 특별상담
오대산 수도암에서 오랜동안 수행을 하면서 얻은 완전한 도력으로 불자님들의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민을 스님이 직접 상담하여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문제, 사업문제, 직장관제, 애정관계, 이사, 조상산소문제, 결혼관계, 이름고민 등 역학을 확실히 배우과고자 하시는 문하생을 모집합니다. ※특수교재와 테이프로 개인지도함.
'잠자는 者 깨어나고 일어난 者 뛰어라.'
문의전화 ▶ 051)441-6773
(부산역앞 국민은행 뒤 한방 말냉면 건물 4층)
대 원 정 사
주지 혜 주 합장

● 구인 · 구직 ●

함께 일하실 불자
노력과 성실로 고소득을 원하시는 분
정년퇴임 · 명퇴하신분
◆ 특전 : 교육비 40만원, 초기 1년 활동비 지원,장학 · 경조 · 육아수당
현대해상화재보험
전화 02)959-8966~7
FAX. 02)959-8968

불심있는 공양주보살님을 모십니다.
영험기도도량으로서 주지스님과 동반이 되어서 가람불사 수호에 적극도움이 되어 주실분이면 만족합니다. 나이 48세에서 53세까지 신체 건강하시고 자비로움과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
불기 2542년 무인년 새해
문의 : 경기도 파주시 과안면 영장2리 산 50-4
고령산 도솔암
전화 : 0348)942-7703/호출 : 015)345-5158
도솔암 주지 경 성 조 합장

● 불교미술 ●

탁자, 단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 주 요 불 사 업 적 ◇
● 합천(해인사) :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 대웅전 수미단 단집 문짝
● 서울(백화사) : 법당 수미단 웅각 복전함
● 음성(삼보사) :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 대웅전 문짝 단집
● 포천(약천사) : 대웅전 문짝 단집
● 단양(천진사) : 대웅전 수미단 단집 경탁 경상
● 서울(학림사) :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趙貴玉 합장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638 호 출 012-210-1401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단집 ··)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전당 **불교조각원**
TEL: (02)738-8447~8

● 불교용품 ●

◆ 보 리 수 ◆
취급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 승복 ●

대성승복 02) 739-6287
가람승복 02) 739-0080

● 여행사 ●

성문관광 02) 722-2233
스마트여행사 02) 763-9412

● 장의 ●

대한불교연화회 02) 732-9618

● 표구 ●

성신표구 02) 734-2344
낙원표구 02) 734-2972
박당표구 02) 735-5696
고미당표구 02) 735-5696
신신표구사 02) 735-2710
서광표구 02) 720-7442

● 필방 ●

대흥당필방 02) 732-7326
대신당필방 02) 732-2830

● 화랑 ●

용정콜렉션 02) 735-2700
동성방화랑 02) 723-6577
금성화랑 02) 733-2462
가람화랑 02) 732-6170
경인미술관 02) 733-4448
예림화랑 02) 732-3318
대림화랑 02) 733-3738
동원화랑 02) 736-3852
갤러리대아 02) 517-2558

● 기타 ●

도원불교수련원
지암정사(智庵精舍)
본 수련원은 산세수려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불교전문 수련원으로서 일반 불자, 각 신행단체 및 가족단위의 불자들이 기도, 수련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춰 놓은 도량입니다.
수련을 원하시는 불자들은 언제라도 전화주시고 오시면 친절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院長 性 潭 合掌
전화: 0374-32-7464 FAX: 0374-33-7464

● 사찰안내 ●

다량보유 양도하실 분이나 운영하실 분 전화주셔요.
성실히 연결하여 드립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
상담전화 : 02)723-4082
011)232-4082
광 진 불 사

◆위 치 : 경북 청송
◆부 지 : 170평
◆법 당 : 2층 20평/시설일체 무상기증
◆요 사 : 1층 35평
◆가 액 : 1억 5천만원
◆특 징 : 큰 대로변에 접해 있으므로 상가도 가능하고 입주 즉시 법회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음.

전국 사찰 및 포교원 급히 구합니다
사정이 있어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 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좋은 인연 신속하게 연결하여 드립니다.
양도의 사찰 법률, 세무도 무상상담 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단, 스님 외 일반인 상담이나 대리 상담은 절대 사양합니다.
불교의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
동국불사 불사담당 : 조법사 합장
상담전화 : 012)1648-6334
(24시간 호출要)
전국통용무료전화직통:080)512-4447
※ 출장중이 많사오니 호출을 부탁드립니다.

◇ 위치 : 서울 중랑구 면목4동
- 4층건물 2층 30평
- 방2개, 주방, 법당1
- 보증금(시설비 포함) 2,700만원, 월50만원
※ 가격절충가능
017)263-6908

◆ 사정상 다음 사찰을 양도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 연락바랍니다 ◆

◇ 위치 : 경북 청도 동곡부근 사찰
◇ 부지 : 500평(대지)
◇ 법당 : 40평/별채양옥 35평
◇ 특기사항 :
- 대구시내에서 승용차 1시간거리
- 큰길에서 3분거리
- 법당까지 승용차 진입함.
◇ 양도금액 : 1억 4천만원

◇ 위치 : 해인사 가야면 근처 암자
◇ 부지 : 대지 500평, 田 400평
◇ 법당, 요사채 : 2동
◇ 특기사항 :
- 경관수려, 승용차 진입가능.
◇ 양도금액 : 만나서 절충가능

◇ 위 치 : 진해시내 포교당
◇ 실평수 : 30평
◇ 보증금 : 1,0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약간만.
◇ 특기사항 :
- 전도유망한 포교지역임.

◇ 위 치 : 부산시내 포교당
◇ 실평수 : 38평
◇ 보증금 : 1,000만원, 월세 40만원,
◇ 시설비 : 3,800만원

◇ 위 치 : 경남 경북 경계선, 해인사 길목임(승용차 15분거리)
◇ 평 수 : 대지 약 800평, 전답 1,800평 합 2,800평
◇ 법 당 : 내부 36평(현 천불 접수중)
◇ 요사채 : 방1칸, 8평×4개 - 합 24평(자연석 돌로 만든 건물)
◇ 양로복지회관 : 건평168평×2층 합 336평(방 30개,샤워실,수세식 화장실,주방,수위실,식당)
◇ 건 물 구 조 : 완전 현대식및 옛건물식 태양열기및 기름보일러 설치
◇ 불사예정지 : 납골당 800평
◇ 매 매 가 액 : 13억 5천만원(일체의 건물은 97년 10월경 준공검사 완료)
◇ 현재 복지회관 입주 모집중
1인당 3천~4천만원 예상(특히 주위의 가야대학 건립 98년 2월부터초기 입학하므로 학생 1인당 월 40만원, 수용인원 65명까지, 수려한 경관, 포장도로 주차장, 언덕도 있음, 복지회관과 대법당 사이에 구름다리 설치)
부산 051)331-3084(주지스님) 본찰 0543)955-1379(총무스님)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간석 3동
◇ 대지 : 시유지 1,200평
- 법당 13평, 방4칸, 입실부엌, 목욕탕, 거실, 창고2, 화장실1
◇ 가격 : 8천만원
032)422-5739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 사찰명 : 법 화 사
◇ 평 수 : 30평(포교당용도로 등록완료)
◇ 산중불 모두 모셔 있음
◇ 가 격 : 약 2,500만원(상담후절충가능)
◆ 현재 아파트 5동 들어와 있음.
0346)577-2485
0346)577-9976

◇ 위치 :
경남 함양군 마천면 소재 토굴
◇ 부지 :
답 2,000평, 가옥 1채
◇ 특기사항 :
기도토굴임.

◇ 위치 :
제천시내 유명사찰
◇ 건평 : 약 100평
바로 기도법회 가능
◇ 안내가 : 2억 5천.

◇ 위치 :
부산진구소재 사찰
◇ 부지 : 1,000평
◇ 특기사항 :
- 부산시내 최고요지
- 부산 앞바다 보임
- 절밑 2차선도로 접.
◇ 법당, 요사채 : 2동
◇ 양도가 : 만나서 절충가능.

◇ 비밀 절대 보장함.
◇ 신속한 상담전문
◇ 상담자 대기중
◇ 전화상담 환영!
좋은인연, 좋은기업
동양투자컨설팅
대표전화
053)755-6498
053)744-1713

◇ 위 치 : 서울 송파구
◇ 평 수 : 30평
◇ 가 격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특 징 : 최고급 시설 완비
시설비는 절충가능함
02)202-0990

◇ 위 치 : 경기도 안양시내
전철역부근
◇ 평 수 : 50평(3층건물 3층)
- 법당, 사무실, 방2, 주방. 창고
◇ 가 격 : 보증금 2,500만원
(시설비포함),월 50만원
0343)96-6734
011)334-0820

◇ 위 치 : 천호4동 397-3(천호시장 입구)
◇ 평 수 : 70평, 방 3개
(5층전관 엘리베이터 사용)
◇ 가 격 : 9천만원(보증금 4,500만원)
◆ 최신시설로 입주시 즉시 포교활동 가능
02)253-0001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 평수 : 50평
◇ 가격 : 보증금 3천만원(월 50만)
02)242-6187

◇ 위치 : 경남 진해시
◇ 평수 : - 법당 15평
- 방2개 및 다락 1개
- 옥상 30평 사용
◇ 3존불 및 시설 완벽
◇ 부엌, 목욕탕, 주방시설 완벽
◇ 보증금 : 1,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약간(절충요함)
◆ 경남 진해시 중앙시장 내 최고요지.
0551)23-9407~8

◇ 위치 : 마산시
◇ 평수 : - 대지 200평
- 전답 430평
- 합 630평
◇ 법당 : 17평(단층스레이트 건물)
◇ 요사 : 20평(방 3칸)
◇ 삼성각 : 5평(완전목조 단층)
◇ 지하수 200M(전기시설 : 농사용 전기사용)
◆ 사찰마당까지 주차함.
◇ 양도금액 : 2억 2천(가격 절충가능)
011)563-0108(주지 직접)

◇ 평수 : 약 1,100평
◇ 상태 : - 준 농림지역(즉시 건축가능)
-전기 · 지하수 6M 도로
◇ 가격 : 약2억(직접전화 문의요주인직)
◇ 주소 : 경남 양산시 물금읍 화제리
(양산 신도시터널 개통시 5분거리)
051)504-9944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마음 흔들리면 세상이 다 흔들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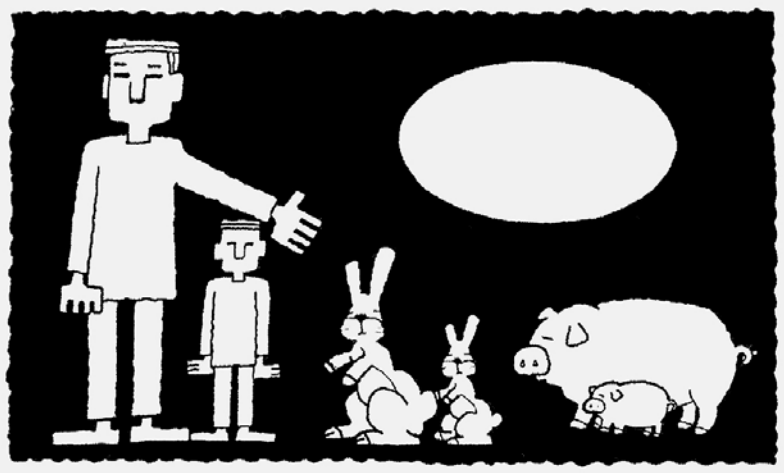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풍랑맞은 배 살든 죽든 선장 믿어야
"문제해결 바라며 믿는건 참믿음 아냐"

'죽어야 너를 보리라' 뜻은

문 스님께서 질문에 답하시는 중에 가끔 '죽어야 너를 보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뜻을 다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답 몸뚱이로 죽으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죽으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죽으라는 게 아니니 열번, 스무번 죽으면 어떻습니까? 이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모두들 내가 한다, 내로라 하고 자기를 앞세우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참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생각이 죽어야,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하심이 되어야 현재의식의 나와 잠재의식의 나가 부자(父子)상봉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믿고 따르려면 타력신앙으로 가지말고 자력신앙으로써 내가 내 마음의 도리를 배우는데다 목적을 두어야 진짜 공덕이 있다 이겁니다.

달마대사가 양무제더러 아무 공덕이 없다고 했다지 않습니까. 내가 했다는 걸 앞세우면 저 하늘에 닿을 만큼 지었더라도 그건 공덕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몸뚱이는 더 건강해지고 오래 살게 됩니다.

사람마다 겪는 고통 다른데

문 사람마다 사는 모습을 보면 완벽한 인생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마음고생을 겪는가 하면 질병·장애·빈곤·정신분열·사고 등으로 인해 갖가지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스님들의 법문을 듣자오면 한결같이 그게 다 인과법에 의해서라고 하는데요, 개개인에게 닥치는 고통의 내용이 다른걸 보면 원인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스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지요.

답 그게 다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 차원에 따라 갖가지 모습의 고가 닥치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고 내 집을 다스릴 수 있어야 바깥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듯이 크나 적으나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문제가 있죠.

우리는 누구나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거기서 누적된 문제를 지금의 내 속에 다 짊어지고 있는데 천차만별의 마음의 차원이 있었기에 천차만별로 문제가 누적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별에 갖가지 세계가 있듯이 이 몸뚱이에도 수많은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다스리는 주동자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마음의 주장자가 확고하다면 천차만별로 문제가 닥치더라도 거기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속아서도 안 될 일이구요.

우리가 경전을 통해 말씀을 접하고 불교라는 이름의 종교를 믿고 있지만 진짜로 믿어야 할 것은 바로 나를 있게한 근본인 법의 부모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경우라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대치도 가능하구요. 어떤 문제가 닥쳐오든 한번 굴려서 놓고 대치를 할 수 있어야지 언제 그 원인을 따지겠습니까? 따진다고 그 많은 기막힌 사연들을 다 헤아릴 수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욕심때문에, 때로는 분노때문에, 때로는 살생을 많이 한 까닭에 오는 문제의 인연들을 어떻게 이루 장차 헤아리겠습니까? 고라는 게 어느 때는 인과성 업보성으로 오고 어느 때는 세균성으로 오고 영계성으로도 오고 윤회성으로도 오는데 말입니다.

가령 누가 뱀 굴을 뒤져서 뱀들을 다 때려 잡았다고 합시다. 뱀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풍비박산을 냈으니 그 슬픔과 원한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뱀들이 그러겠죠. 그래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너도 부모 잃고 자식 잃고 자신까지 죽는 그 꼴을 당해봐라 할게 아닙니까? 그것들도 생명인데 말입니다. 그러면 영낙없이 업보로다가, 유전으로다가 착 달라 붙어 그 과보를 치르게 된단 말입니다.

이 말을 결코 우습게 생각해선 안됩니다. 내게 다가오는 일들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것이 오는 이치는 절대로 없습니다.

영계성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기 주장심을 주인삼아서 잘 다스려 나가지 못한다면 주인이 집을 비운 것이나 같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주인이 있는 건데 그걸 똑바로 세워놓지 않고 바깥으로 찾고 바깥에 매달리고 바깥 것에 기도하고 절을 한다면 주인없는 집이라는 걸 광고하는 꼴이 될 뿐 아니라 제 주인 제쳐놓고 바깥에서 주인을 끌어들이는 게 되겠지요. 그러면 어찌 되느냐? 주인없는 집이 되어서 마치 어른들은 다 출타하고 아이들만 남아서 저 살판났다고 마구 뛰어 놀고 집안 꼴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열증이 되는 거죠.

또 내 주인이 있는데 딴 주인이 또 하나 들어 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렇게 해라 하지말라…, 이건 은통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어느 집에 주인이 둘이라면 하인들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자인 육신은 온통 고장나고 다치고 결딴이 나고 마는거죠.

인과성이라 하는 것도 말입니다, 향을 쌌던 종이에선 향내 나고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에선 비린내가 난다고 하듯이 자기가 지은 인연에 따라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보고 듣고 이게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악종의 인연을 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에서 비린내가 풍기듯이 벌의 벌 나쁜 일들이 생기고 자기만이 아니라 자식들까지 속을 썩이고 불구자가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갖다준 게 아니라 비린내가 배어버리듯이 내 속에 악종으로 주둔해 있다가 인연을 만나면 고리에 고리가 물려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자를 심었으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다고 하지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내 속에 다 주둔해 있으니까 없다고 하는 것이지 아주 없어져서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내 몸 속에 주둔해 있으니까 유전성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가령 누가 속병을 앓고 그 자식이 또 속병을 앓는다고 합시다. 과거에 남에게 속터질 일을 했고 그걸 대치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고리가 고리를 걸어 꿰어지듯이 그렇게 연결이 된겁니다.

토끼는 토끼를 낳고 돼지는 되지를 낳지 딴 종자를 낳을리 없지 않습니까.

돌연변이가 생긴다면 모를까 그렇게 염주알 꿰어 있듯이 꿰어져 있어서 그걸 대치해서 돌려놓지 않는 한은 염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마음의 주장자 확고하면 천차만별 문제 닥쳐도 거기 속지 않을 수 있어"

"살아있는 동안 깨끗이 설거지 합시다"

그러므로 마음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끊을 수도, 돌릴 수도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도 없구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온 구멍에다 다시 놓아라, 숨을 내쉰 구멍으로 숨을 들이 쉬듯이 말입니다.

마음이 돌고 나는 자리도 한구멍입니다. 딱 한구멍요.

부처님께서는 한 털구멍에서 보살이 나오고 모든 세계가 벌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마음 자리 한구멍이죠.

아무튼 지은대로 받으니까 차원이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합니다. 인간으로 살다가 땅 속을 기어다니는 벌레로 좌천이 됐다고 하면 이건 그대로 지옥이 되는 겁니다. 밥 냄새 국 냄새를 맡아야 사람인데 그러질 못하니 독사 굴에 들어가면 그냥 독사지옥이고 땅 속의 미물이 되면 그냥 무간지옥이지 뭐겠습니까?

그러니 사는 동안에 영계성·유전성·인과성…을 다 녹여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과거로부터 하나도 빼놓지 않고 차곡차곡 입력된 데서 나오는 것이니 나오는 데로 다시 입력해라 이 소립니다. 그래야 바뀌집니다. 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바뀌집니다.

☞ 18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최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55)

새 화판에 어떤 그림을 그려넣을 것인가.

"마음이 육신을 끌고 다닌다. 마음이 삶의 내용을 좌지우지 한다. 보람을 느끼며 당당하게 사는 것도 마음에 달렸으며 찌들고 찌푸린 모습으로 사는 것도 마음에 달렸다.

마음엔 모든 게 고루 갖춰져 있다. 반듯한 삶도 그 속에 있고 삐뚤어진 삶도 그 속에 있다. 그러니 불을 밝히고 사는 것도 제 자유이고 어둡게 사는 것도 제 자유이다. 마음에서 불이 치밀면 그대로 화탕지옥에 들 것이고 마음에서 탁 놓아버리면 바로 자유인이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찰나찰나 바뀌면서 자동적으로 돌아간다. 어디에 붙잡혀 있거나 뭉쳐 있는 게 아니라 자유자재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자동기이다. 과거의 습 때문에 얽매여서 쩔쩔매기도 하지만 본래는 어디에나 걸림없이 자유로울 수 있다. 그대로 통과, 통과할 수 있다."

추우면 따뜻한 곳을 찾는다. 더우면 서늘한 그늘을 찾는다. 누구에게 물어보거나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자동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육신이 따르는 것이다. 거기엔 구속도 조건도 없다. 자연스러움이 있을 뿐이다.

선반 위에 놓여 있는 물건을 내리려고 할 때 키가 모자라면 발돋움을 해본다. 그래도 안되겠다 싶으면 긴 막대를 이용하거나 받침대를 놓고 올라선다. 더 높이 오르려고 사다리를 이용하기도 한다.

키가 작아서 선반 위의 물건을 내릴수 없다고 탄식만 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 어린 아이나 바보천치가 아닌 다음에야 누구라도 물건을 내릴 방법을 안다. 그쯤은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얼마나 지혜로운가. 제 키를 키웠다 낮췄다 할 줄 알고 제 팔을 늘였다 줄였다 하지 않는가. 마음이 가면 몸이 따른다. 한 생각에 키를 조절하고 팔 길이를 바꾼다.



화판 앞에서 작품을 구상하는 화가를 보자. 그는 붓을 들기 전에 무엇을 그릴 것이며 어떤 영감을 담을 것이며 구도는 어떻게 할지를 곰곰히 생각한다. 마침내 작품구상이 끝나면 붓을 들어 물감을 찍어 바르기 시작한다. 여러번의 붓질 끝에 한 작품이 완성된다. 그리고 그 작품은 때때로 명작이 되기도 한다.

먼저 마음의 설계가 있고나서 몸이 움직이고 결과물이 나온다. 그래서 그 결과물은 모두가 마음의 산물인 것이다. 저 짐승 가운데 눈·귀가 유난히 밝은 놈, 날랜 놈, 굴을 잘 파는 놈 등 갖가지 모습이 있는 것도 다 마음의 움직임에서 비롯된 진화의 결과물이다. 돌연변이가 아닌 다음에야 무엇을 하고 싶다는 한 생각이 쌓이고 쌓여 육신의 모습까지도 바꾸게 된 것이다.

우리들의 삶의 내용도 각자 마음먹기의 결과이다. 건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다. 마음 가는 데 행동이 따르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 오늘의 내 삶을 그려낸 것이다. 따라서 찌들었든 활달하든, 곤궁하든 부유하든 그것은 다 내 탓인 것이다. 화가인 내가 인생이라는 화판에 내 마음대로 붓질을 해온 그 결과가 지금 내 삶의 모습이요 내용인 것이다. 그러니 누구를 탓하고 어디에다 대고 원망을 할 것인가. 팔자도 내 탓이요 운명도 내 탓인 것을.

그러나 내가 내 삶을 설계하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네 마음대로 얼마든지 그림을 다시 그려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진 것이니 지금이 바로 새 화판에 다시 그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새 화판은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다. 매일 매일 새 것으로 바꿔도 좋고 찰나찰나 바꿔도 좋다. 하지만 내가 어제 그리던 그림을 오늘도 계속 그리고자 한다면 내 삶은 그 작품이 그 작품인채로 머물러 있게 된다. 그 편이 더 좋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마음을 바꿔야 한다. 허구 헌 날 똑같은 붓질만 하게 했던 그 마음을 바꿔야 한다. 마음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 생각과 행동이 바뀌면 몸이 바뀌고 삶의 내용이 바뀐다. 건강도 사업도 마음이 가는데로 따라간다. 무엇때문에 찌든 삶을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인가. 어제는 어제다. 묵은 화판만 들여다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새 화판에 무엇을 그릴 것인지 그것부터 결정하자.

혜찬 : 김 대 성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과거에 심은 종자 지금 내속에 있어

☞ 17면에서 계속

그러니까 누구든 살아 있는 동안에 기필코 다 녹여버려야 하겠다, 깨끗이 설거지를 하겠다 이래야 됩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문 중소기업을 운영해오다가 얼마전에 부도를 냈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갈 곳도 마땅치 않고 해서 산에 올랐다가 한 절에 들렀는데 거기서 우연히 현대불교신문에 난 스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글에서 보니까 스님께서는 살아도 한 번 살고 죽어도 한 번 죽는 한 철 인생인데 살든 죽든 제 주인공을 딱 믿고 여여하게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뭔가 마음에 와 닿는 듯도 한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뜻을 다시 풀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몸뚱이는 승객이 꽉 들어찬 배와 같고 주인공은 선장이다, 주인공이 왜 선장이냐 하면 이 몸뚱이를 형성시키고 끌고 가는 사람이다, 말하자면 많은 승객을 태워주고 배를 끌고 가는 주인이다, 이것이죠. 몸뚱이는 선장이 끌고 가는 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있는 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 살고 있는 것이 아주 풍랑이 심한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 것과 다르지 않지요. 살얼음 판을 걷는 것 같기도 하고·말입니다.

그런데 선장이 어련히 알아서 잘 끌고 가랴만 승객들이 배 안에서 산다, 죽는다 하고 날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뒤집히지 않고는 배겨나지 못할 겁니다. 그와같이 내 몸을 배라고 하면 파도에 밀려 엎어지든 바로 가든 믿을 데라곤 선장 밖에 없으니 죽겠으면 죽고, 살겠으면 산다 하면서 선장을 딱 믿고 그에게 맡겨야지 뭘 어쩌겠습니까? 그런데도 굳게 믿는 마음이 못되고 좌불안석으로 마음이 흔들린다면 내 속의 모든 중생도 우왕좌왕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까짓것 다 공했다는데, 공했는데 배를 탄 것은 어디 있고 안탄 것은 어디 있느냐, 파도 치는 것은 어디 있고 안 치는 것은 어디 있느냐 하며 여여하게 편안하게 빙긋이 웃고 지나가라 이것이죠. 그랬을 때 배는 무사히 파도를 건널 수 있다, 내게 닥친 혼란도 이겨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도가 났네 무슨 일이 터졌네 하는 것도 이 도리를 모르기에 부도가 나게 그렇게 해 놓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난 뒤에라도 믿고 맡겨서 수습을 해야 하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선장, 그 놈한테, 주인공한테 맡기고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도, 세상이 다 뒤집히고 회사가 날아간다 해도 '선장!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지!'하면서 딱 맡겨라 이 소립니다. 파도가 산더미처럼 밀려드는 바다 한 가운데서 이리 밀리고 저리 떠 밀리고 하는 판에 선장 밖에 더 믿을데가 있을까요?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인 것을 왜 불편하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자식이 물에 빠져 둥둥 떠내려 간다 하더라도 이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야 자식도 건지고 부모신세도 건질 수 있지, 마음이 요동을 친다면 자식도 못 건지고 나도 못 건집니다.

마음이 아니면 안됩니다. 일체만물만생도 마음의 근본이 아니라면 그렇게 들고 날 수가 없습니다.

안될 일은 맡겨도 안되는지

문 스님께서는 주인공을 굳게 믿고 일체를 맡기라 하시는데 그렇게 믿는다 해도 안되는 일은 역시 안되는 게 아닌지요. 늘 그게 궁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자기정체 파악이 진짜 화두

답 믿는 것은 뭘 할 요량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아픈 걸 나을 양으로 믿는 것도 아니요, 죽을 걸 살 양으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으면 그대로 자기 주인, 참나를 믿는 것이지 어떠한 업보를 제거하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이를테면 하인인 이 몸뚱이가 주인을 믿는데 이유가 붙지 않듯이 말입니다.

내 아버지가 나쁘든 좋든 내 아버지이고 어머니가 잘났든 못났든 간에 내 어머니 아닙니까? 내 어머니가 병신이라 해서 내 어머니가 아니라고 하지는 않지요. 그렇듯이 믿는다는 것은 무조건입니다. 일이 잘되고 못되고를 떠난 믿음이고 해결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떠난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어도 일이 잘 안 풀리더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못 믿겠다면 뭘 믿겠다는 겁니까? 달리 믿을 데가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주인을 안 믿는데 뭘 믿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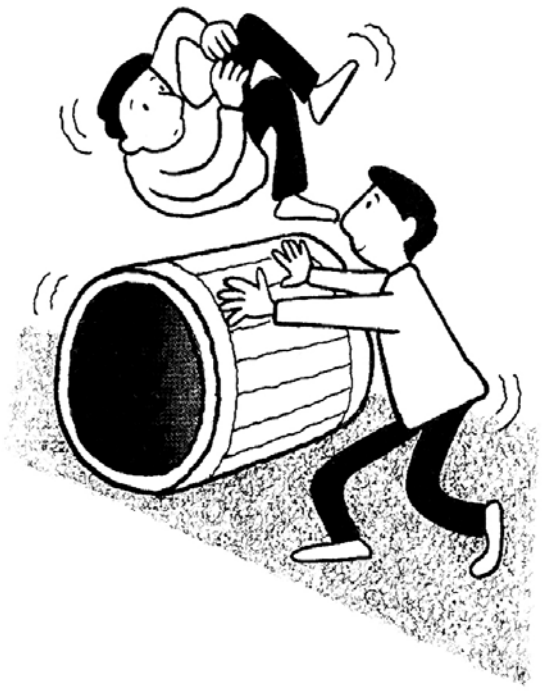
하인은 주인이 하는대로 따라갈 뿐이지 잘 됐느니 못 됐느니 따지지 말아라, 주인도 안 따지는데 하인이 왜 따지느냐 이겁니다.

자기 주인을 무조건 믿으라고 했더니 진짜로 믿지는 않으면서 무슨 일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식으로 조건을 단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한 것과는 관계없이 저절로 '거기서 밖에는 해결할 수 없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인공, 너 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하고 무조건 믿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조건 믿는 그 속에 천차만별로 벌어지는 일들이 다 대치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맡겼으니까 이제 나에겐 책임이 없고 주인공 몫이 아닙니까? 그러니 마음을 조급하게 쓰지말고 일단 맡겼으면 잘 되든 곳 되든 다 알아서 하라 하고 여여하게, 편안하게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몸뚱이로야 아무리 뛰어봤자 벼룩이지 별겁니까? 그러니까 시자로서 뛰지 말고 자기 주인이 뛰게하라, 부처와 함께한 그 자리에서 뛰게 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내 속에 부처가 따로 있어서 믿으라는 거 아니라 부처아닌 부처가 본래 그대로 있으니 그걸 진짜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오신통이 도가 아닌 이유

문 저는 전방 초소에 근무하는 장병입니다. 저희 부대 법당에 갔다가 현대불교신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사대로 통신이 된다는 말씀도 하시고 으신통에 대해서도 도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 의미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 여러분은 지금 다들 오신통을 굴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팩스를 통해 주고 받는데 말이죠. 가는 것도 안 보이고 오는 것도 안 보이지만 오고 가지 않나요?

이걸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온다고 방편상으로 말해도 되는데 요즘에 흔히 사용하는 재료나 장치로 말하면 이렇게 비유해도 되겠지요.

천안통, 그러니까 저 천체망원경이 그렇고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일을 안방에 앉아서 볼 수 있으니 그렇지요.

천이통이라면 무선통신기라 할 수 있고 타심통은 저 거짓말 탐지기, 신족통은 팩시밀리, 또는 초음속 비행기, 숙명통이라면 컴퓨터가 있고….

이런 다섯가지 능력이 여러 장치를 통해 다 발휘되고 있으니 요즘 같은 세상에 오신통인들 별 것이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장치를 만들어 내고 움직이게 하는 게 바로 내 마음에 달려 있고 또 내 마음으로써 입력한다면 이게 바로 내 육신으로도 가능하다, 이 몽뚱이에 오신통의 재료가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섯가지 재료를 어떻게 쓰느냐?

내 참부처를 진짜로 믿고 마음으로써 입력을 한다면 대뇌에서 소뇌를 거쳐 중뇌에서 책정을 해 사대로 통신이 된다, 우주 법계로 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대뇌는 주장자 끝에 레이더망을 달아 놓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수많은 중생이 사는 국토와 같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먹기에 따라 그 많은 중생들의 의식이 내 주심인 주장자 끝의 레이더망을 통해 한마음으로 돌아간다면 빛보다 빠르게 우주법계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전력 자력 광력 통신력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들 물질로만 나가려 하고 현재의식으로만 매달리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연구를 한다 해도 50%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는 연구대로 하되 본래 지니고 있는 누진의 힘을 발견하라, 오신통은 도가 아니니 마음이 계합된 심성과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도리가 계합되지 않으면 어떤 분야의 과학도 50% 밖에 안되어서 미완성에 그치게 됩니다.

화두공부 잘못인지요

문 스님께서는 역대 조사들의 공안 참구나 화두를 드는 참선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분들이 화두를 통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잘못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답 우리는 누구나 참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 중 어느 것도 고정된 게 없고 우리들 자신도 어느 때, 어느 것을 할 때 나라고 고정되게 말할 수 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바로 화두입니다. 찰나 찰나 돌아가고 있는 나라고 할 수 없는 이 '나'가 바로 화두란 말입니다.

이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게 누구에게나 자연스런 의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런 의정을 제쳐두고 왜 남이 주는 것을 받아가지고 강제로 의정을 일으키려 하고 그게 끊어질까봐 전전긍긍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엔 너무 배운게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문명도 발전해서 옛날과는 아주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주는 의정에 매달려서 놓칠까봐, 끊어질까봐 애쓰지 말고 자기를 봐라, 자기 몸을 보고 자기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몸은 수많은 중생의 국토 그 중생들이 한마음되면 빛보다 빠르게 법계와 통신

옛날 그때 그 시절엔 화두를 주어 공부하게 하는 방편이 통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으니 공부 방편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눈코뜰새 없이 바쁜 때에는 그냥 생활하면서, 돈 벌고 일 하면서 거기서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날 보고 바꾼다고 하지만 이건 바꾼 게 아니라 전에도 그랬는데 방편이 다르고 이름이 달랐다는 것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공부하실 당시에도 화두를 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화두를 들고 깨우치신 것도 아니구요.

부처님께서도 너 자신에 의지하고 너 자신을 보라고 하셨지 남에게서 화두를 받아서 공부하라고 하시진 않았습니다.

화두를 든다 안든다 하는 것도 다 방편이니 거기에 얽매이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옛날 선지식들께서도 '네가 나온 자리로 한번 들어 갔다 나오너라' 그러셨습니다.

'무분별지' 강조하는 의미

문 세상을 살아가는데는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무분별지를 강조합니다. 스님께서는 일체를 놓고 가라 하십니다. 그러다보면 세상과 동 떨어져 살아야 하는게 아닌지요?

답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분별하면 통달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벌레 속에 들어가도 어리석다는 생각이 없어야 하고…, 또 돼지 속에 들어간들 어리석다고 하겠습니까? 삼독이나 번뇌망상 거기에도 걸림이 없고 분별이 없어야 한다. 누가 죽인다 하더라도 분별이 나오지 않고 부처님과 한자리에 앉았다 하더라도 쾌활하게 생각하지 말라. 모든 것은 평등한 고로 그렇다 이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심안으로 천지를 다 꿰뚫어 본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다'하셨습니다. 우주 천지의 소리를 다 듣는다 해도 도가 아닙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오신통을 다 알아도 도가 아닙니다. 왜 그랬느냐?

보기만 해도 도가 아니고 저 구름을 타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고 남의 속을 빤히 들여다 보아도 도가 아니다., 왜 그랬겠느냐?

자유자재권을 갖고 무심법으로 행할 수 있어야 진짜 도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오신통을 자유자재로 굴릴 수 있어야, 실천궁행할 수 있어야 진짜 도이지 오신통에 머물러 있는 것은 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발이 되어서 일체를 돌 아니게 건질 수 있고 아무 끄달림 없이 오고 갈 수 있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설사 오신통의 능력을 지녔다해도 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바로 누진통인 것입니다. 그러니 무분별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론으로는 알지만 진실로 행동하기는 어렵습니다. 말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이리 끼워 맞추고 저리 끼워 맞추고 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거름 삼아서 행으로써, 진실되게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흔히들 실천하라고 하면 '글쎄 그게 이치로는 그런 줄 알겠는데 실천하기가 어디 그리 쉬우냐'고 합니다.

틀 밖을 벗어나야 통을 글릴 수 있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실천궁행하려 하지는 않고 이론으로만 그렇노라, 그렇겠노라 하고 있다면 영영 틀 밖을 벗어날 수 없고 통을 글릴 수도 없게 됩니다.

틀 밖으로 벗어나는 걸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는데 진심으로 믿는다면 밖으로 벗어 났느니 못벗어 났느니 할 것도 없이 믿고 놓을 수 있을 겁니다.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

문 스님께 여쭙니다.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무엇이며 남전스님이 고양이 목을 내리친 까닭은 무엇입니까? 가르침 바랍니다.

답 예전에 칠십먹은 노인네가 열 살 먹은 아이에게 '애비'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이를 이상하게 여긴 분이 그 까닭을 물었더니 '그 아이가 나보다 먼저 늙었느니라'했더랍니다.

비행기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오고 가는데 그게 서울 비행기라고 해야 맞을까요, 부산비행기라고 해야 맞을까요? 그거 둘이 아니질 않습니까?

달마는 어디 있고 동쪽 서쪽은 어디 있느냐? 그건 법문도 되고 공안도 됩니다.

한마음에서 천칠백 공안이 다 나오고 한마음 알면 천칠백 공안이 다 풀립니다.

그래서 이랬죠. 문이 없어서 문 찾기 어렵고 문이 많아서 문찾기 어려우니라 하고 말입니다.

다 슬기로운 마음에 달린 것이지요.

참나를 깨우치지 못하고는 이 도리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 떨어지기 전에 이 도리를 알아야 묵은 빚을 아래위로 갚을텐데 그렇지 못하면 세세생생에 승진과 좌천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는 게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다닐려면 머리에 신을 신고 다닐 줄 알아야 양면을 다 무불통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남전스님 제자들이 동당 서당에서 공부를 하는데 고양이 한마리를 가지고서 이건 동당 고양이다, 아니다 서당 고양이다 하며 서로 싸움을 벌였더랍니다. 그러자 남전스님이 대중에게 '너희가 한마디 이르면 고양이를 살릴 것이고 이르지 못하면 고양이의 목을 치리라'했는데 아무도 말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목을 베어 버렸는데 대중들이 모두 살생을 했다고 수군거리고 온통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그 사연을 듣더니만 신발을 벗어서 머리에 이고 돌아서더란 말입니다.

고양이가 동당으로 가든 서당으로 가든 그 고양이는 동당에도 매이지 않고 서당에도 매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동당이다 서당이다 해서 공연히 고양이만 목이 달아나게 한 것이지요. 다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을 말입니다.

마음도리 모르면 과학도 반쪽학문 분별심 뛰어넘어 실천궁행 하도록

협찬 한성민 인천시 남구 주안4동


삶은 꿈가 아니다

삶은 결코 꿈가 아니라는 이 통쾌한 역설 !
삶의 모든 고통이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발판임을
중생 스스로 깨닫게 하는
大行 스님의 육성 법어집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종로구 견지동 110-33
737-8881(편집), 737-0695(영업), 팩스·(02)737-0696

독자마당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 전화 : (02)722-4162
· 팩스 : (02)737-0698
· 천리안 : aeum
· 하이텔 : 34713

물질 가난해도 넉넉한 마음 갖자



온갖 수모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해 가면서 남의 나라에서 빚을 얻어와야만 거덜난 나라 살림살이를 꾸려갈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부로 쓰고 마구 버리면서 잘못 살아온 생활태도에 대한 과보라고 생각한다. 물질적인 풍요에 삶의 가치를 두지말라는 가르침일 것이다.

이제는 지금까지 익혀 왔던 생활방식을 버려야 한다. 저마다 투철한 삶의 질서를 가지고 작은 것과 적은 것으로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옛글에 이런 말이 있다.

'사치한 자는 3년동안 쓸 것을 1년에 다 써버리고, 검소한 자는 1년동안 쓸 것을 3년을 두고 쓴다. 사치한 자는 부유해도 만족을 모르고, 검소한 자는 가난해도 여유가 있다. 사치한 자는 근심 걱정이 많고, 검소한 자는 복이 많다.'

히말라야의 가난한 산동네 사람들은 집집마다 비닐봉지 속에 꽃을 가꾸며 살아간다. 화분을 살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비닐 봉지에 꽃을 담아 기른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할지라도 아름다움을 가꾸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내 마음 속에까지 향기로운 꽃씨를 뿌려 준다. 이근우 〈청담종합고등학교장〉

독자만화



안희주 〈서울 성북구 장위동〉

■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을 읽고

자비심 담긴 흑인이야기 '감동'

"모란아, 이 책 한 번 읽어보지 않겠니…? 아빠 아는 분이 쓰신 책인데 〈금강경〉에 대해 알기 쉽게 써놨단다."

아버지의 제의에 의해 읽게된 〈금강경〉은 머릿말만으로도 머리가 아팠다.

"한번 읽어보렴. 생각보단 알기 쉽게 나타나 있단다."

어렵고 지루하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 생각은 잘못이었다.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책 속의 갖가지 비유와 실화가 호기심을 자극시켰다. 특히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큰 힘을 지탱한 흑인의 이야기는 나를 감동시켰다. 다른 생각이나 잡념없이 순수하게 기도하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난 각성했다.

'이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순수하게 사심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김모란 〈홍익대학교 부속 초등학교 6〉

■ 독자 시

불교문화테마여행

항상 내 한마음에 계신 부처님
앞으로도 항상 내 한마음 속에 계실 부처님
과거, 현재, 미래세세에도
그러하시리라.
복을 지으면 바르게 갈 수 있음을
부처님의 지혜와 가르침을 몸으로 배우는 '불교문화테마여행'

천년의 유서깊은 절집에서
인연설화 들으며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바쁜 삶속에
부처님의 말씀 들려주어
메말라 가는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법문을 듣게 해주는
고맙고 고마운 '불교문화테마여행'

오! '불교문화테마여행'
다달이 기대와 기다림을 주었던 '불교문화테마여행'
'97 문화유산의 해에 막을 내리지 말고
오래오래 계속되어
대한민국 아니 시방세계에 오순도순 사이좋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불국토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김민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지난해 97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본사가 펼친 불교문화테마여행에 참여한 김민자씨가 테마여행이 끝난 것을 아쉬워 하며 쓴 시.

해인골프장 허용판결 납득안가

법은 돈이 많고 적음,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국민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얼마전 해인골프장 사업승인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 관결을 내렸다. 실로 어이없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해인사 팔만대장경과 그 관전은 국보로 지정된 문화유산이며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골프장 건설이 가야산의 자연 파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데도 골프장을 지으려는 사업주나 이를 방치하는 문화재관리국의 태도는 우리의 문화재 의식 수준을 보여 주는 것 같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전국의 많은 산이 골프장 건설로 민둥산이 되어 버린지 오래다.

해인골프장건설과 민족 전체의 문화재를 저울질하지 못하는 대법원의 관결을 보며 규장각 문서의 '영구대여'를 몸으로 막으려 했던 프랑스 박물관의 여직원 모습이 어른거리는 것은 비단 나만은 아닐 것이다.

김근수 〈대구시 동구 동호동〉

IMF 시대를 사는 지혜

동산반야회 '108가지 실천운동' 전단 5천부 배포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는 지난 15일부터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마련한 IMF 시대 극복을 위한 '108가지 시민 실천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5천여부의 전단을 제작해 전국 각 사찰 및 사회단체 등에 배포하고 있으며 향후 범국민적 '경제질약 실천운동'을 펼 계획이다. 작지만 일상생활에서 실천할만한 내용을 소개한다.

◆국산품 및 우리문화 애용운동

△외제 화장품 안쓰기 △국산차 마시기 △국산영화 보기 △피자, 초컬릿 안먹기 △신혼여행 국내로 △무분별한 해외유학 안가기 △수입고기 덜 먹기 △외제 담배 안피우기 △국산학용품 사용 △스포츠 선수 외국 용병 안쓰기 △외국가수 무분별하게 초청 안하기 △우리 문화재 공부

◆소비절약 운동

△지하철, 버스타기 △술 적게 마시기, 술 끊기 △수돗물 아껴쓰기 △불필요한 전기코드 뽑아놓기 △화장지 적게 사용 △실내온도 낮추기 △전기 한등 끄기 △가정식 반찬수 하나 줄이기 △쓰레기양 줄이기 △옷 물려입기 △린스 삼퓨 무스 사용 절제 △일회용 사용 안하기 △안쓰는 물건 활용 △이면지 재활용 △가정에 에어컨 안틀기 △가계부 생활화 △전화통화 짧게 △엘리베이터 2인 이상 타기 △금반지 안하기 △사치형 옷은 입지 않기 △청소년 용돈 줄이기 △밤늦게 TV안보기 △중·고생 삐삐 반납하기 △5층까지 계단 걷기 생활화 △자전거타기 △과대포장 안하기

◆의식개혁운동

△전 국민 책보기 △거짓말 안하기 △약속 지키기 △고액 과외 안하기 △가까운 이웃 보살피기 △웃는 얼굴로 인사 △도박, 화투 안하기 △실내 금연 △힘든이에게 희망의 말 한마디 △친절하게 길 안내 △남의 탓 안하기 △공중질서 지키기 △담배꽁초 안 버리기 △작은 것도 나눠 쓰기 △인과응보의 교육강화 △어른 공경 △여럿이 함께하는 즐거움 가지기 △운세 안보기 △상품 사재기 안하기 △지역감정 없애기 △음주운전 안하기 △교통법규 스스로 지키기 △외국 관광객에게 친절 △중·고생 담배 안피우기 △가족끼리 대화 많이 △영수증 주고받기

◆직장·사업장에서의 절약운동

△일간신문 발행면수 줄이기 △청소년 TV 쇼프로 줄이기 △공공단체 재정투명하게 △홍보물 부수 줄이기 △세금 성실히 신고 △신문사 광고면수 줄이기 △TV 방영시간 단축 △스포츠 중계 합동으로 △불필요한 서류 요구 안하기 △형식적인 회의 줄이기 △회사 비서 줄이기 △네온싸인 광고 안하기

◆간소한 관혼상제치르기 운동

△결혼식 공공장소 이용 △장례 화장으로 △결혼 혼례품 줄이기 △축의금(조의금) 줄이기

'IMF 이렇게 이긴다' 아이디어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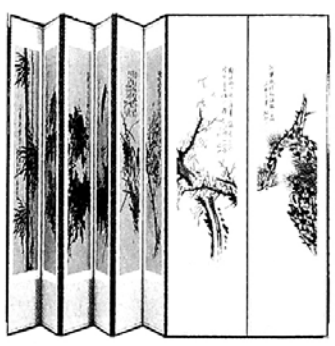
독자여러분의 'IMF 지혜'와 체험담을 기다립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현장이야기는 IMF 한파를 이겨낼 불쏘시개입니다. 본사 편집국(전화 02-722-4162 · 팩스 02-737-0698)으로 알려주시면 지면으로 꾸며 우리 모두의 지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화 백유경 百喩經 이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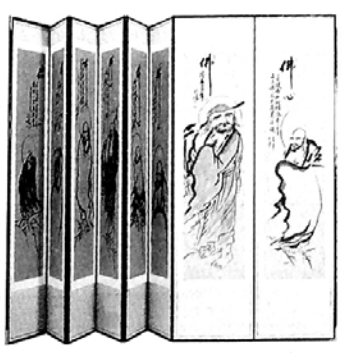
10주년 기념 특별할인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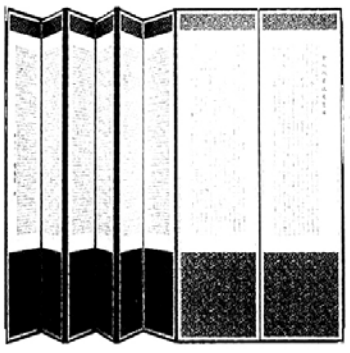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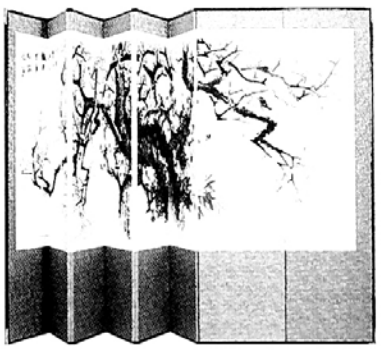
귀의 삼보하옵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불법홍포를 위해 노력하시는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가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성보불사**에서는 「**창사 10주년**」을 맞이하여 각종 유명 출품작들을 확보하여 특별 봉사가격에 주문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각 사찰과, 불자님들의 가정과 사무실에 1품씩 소장하셔서 불심을 항상 곁에 하시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발원하옵니다.
(※ 한정된 작품이오니 선착순 문의 바랍니다.)

사계절꽃 : 높이 90cm × 140 cm

잉 어: 높이 90cm × 140 cm

달 마: 높이 90cm × 60cm


가리개

● 문 의 처 : 02)831-2848~9
02)831-7075
● 팩 스 : 02)831-2849
● 수신자부담전화 : 080)284-2848
※ 신용카드일 경우 할부가능.

불자 세상보기

"가정은 실직고통 이기는 의지처"

다섯집중 한집 '빈손' …정부 직업교육 골몰
가족 협조있어야 좌절등 정신질환 최소화

98년 한국의 가정에는 실업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조사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올해 실업자 수는 1백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예비실업자를 합한 유효실업을 감안하면 실업률은 11.3%, 2백4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4인 가족을 기준해서 다섯 가구중 한 가구는 실업자 가구가 된다는 계산이다.

지금까지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대량실업의 공포. 국민의 63%가 실직의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다. 남편이 출근한 후 '우리 가정만은…'이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어른거린다.

실업은 즉각 가정생활의 고통과 좌절을 낳는다. 생계는 물론 부모 부양, 자녀의 학업 등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움에 처한다. 사회적으로도 범죄와 자살 같은 사회적 병리현상이 우려된다. 실업자 개인적으로는 분노와 무력감 동기상실 등의 질병현상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우리보다 앞서 IMF체제에 속한 태국의 경우는 정신질환자가 20% 이상 증가하였다.

최근 '좋은 아버지 모임'에 걸려온 상담전화. 대기업 이사로 재직하다 지난해 명예퇴직한 뒤 용인으로 이사한 A씨(57)의 사연이다. 서울집을 판 돈과 퇴직금을 합쳐 아내에게 갈비집을 차려준 이후 아내와 자식들이 집에서 빈둥거리는 자신을 구박하기 시작했다. 경제권을 장악한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며 별거를 선언했고 아이들마저 아내와 살겠다며 떠났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IMF한파가 급기야 가정마저 파괴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례다. 가정은 실직의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의지처이다. 전문가들은 실직했을 경우 숨기지 말고 가족들에게 털어놓기를 권유한다. 한국남성의 전화 이성우 상담실장은 "장기적인 계획과 포부를 설명하는 당당함과 자신감을 보이는 한편 가족들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실업보다 더 무서운 좌절과 무력감에 빠지지 않고 재기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여러 방법의 실업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1백개 대학을 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 대졸 취업희망자와 사무·전문직 실직자를 훈련시키기 위해 5천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2천개의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지원자에게 3억원까지 융자해준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정부의 대책은 충격의 완충지대이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대량실업은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성운 기자

"우리는 IMF 극복할 수 있다"
재활용센터 · 종이컵 안쓰기 등 확산

종이컵 안쓰기 인천 경인여자전문대학은 개교 이후 7년째 1회용 종이컵 안쓰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매년 신입생 1천8백명 전원에게 학교 로고가 새겨진 스테인레스컵 1개씩을 선물한다. 학생들은 이 컵을 자판기를 이용하거나 음료수를 마실 때 사용, 매년 1백만개(5천만원어치) 이상 절약한다.

한복 고쳐 입기 △짧아진 치마에 밑단을 달아주거나 △닳아버린 소매끝동을 갈아주며 △저고리 고름과 깃의 색깔을 갈아주며 △유행 지난 금박과 수를 바꿔주는 식으로 고쳐 입는다. 생활한복업체 질경이는 생활한복 및 전통한복을 고쳐주는 특별행사도 실시하고 있다. 비용은 1만~3만원.

결혼다이어트 7가지 △약혼식은 가족 상견례로 대신 △혼수를 다른 집과 비교 않는다 △혼수 때문에 빚을 내지 않는다 △결혼비용은 자신의 5개월치 봉급 이내에서 해결 △청첩장은 가까운 가족과 친지에게만 보낸다 △1인당 피로연 비용을 5천원 정도로 정한다 △호텔 결혼식을 자제.

컴퓨터는 내가 조립 경향신문사와 컴뉴스컴나라는 2월 21~22일 경향신문사 이벤트홀에서 컴퓨터 조립지도를 실시한다. 1천명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02-737-7163.

재활용센터 이용 버려지면 쓰레기지만 잘 이용하면 자원이 된다. 세탁기(5kg) 5~7만원, 냉장고(2백리터) 3~4만원의 싼 값으로 살 수 있다. 재활용이지만 수리가 잘돼 일반 신제품과 비교해 사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경기도는 24곳에 재활용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표〉

대기업 자린고비 삼성그룹은 그룹사옥의 실내등을 오후5시가 넘으면 모두 끄고 이후 시간에는 개인스탠드 사용을 권하고 있다. 실내온도도 18~20도로 낮춰 내복입기를 권장하고 있다. 현대그룹 계동 본사는 점심시간인 낮12시~1시엔 모든 사무실의 불을 끈다. 오전10시엔 사무실 창문 옆자리의 전등을 끈다. LG그룹도 업무시간외 사무실소등과 엘리베이터 제한운행등을 통해 본사에서만 연간 40억원 이상 절약한다는 방침이다.

종교계 확대지향 자제 불교계의 신규 및 대형불사의 유보 및 취소를 비롯 금모으기 소비절약 운동에 종교계가 적극 나서고 있다. 개신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야간에 밝히는 십자가등을 모든 교회에서 켜지 않기로 했다.

고철수집 운동 국내 산업의 쌀로 불리는 고철. 고철수집 비중을 10%만 올려도 연간 1천5백억원의 외화가 절약된다. 한국폐자원재활용협회 울산지부는 고철수집 운동을 전개키로 하고 울산시내 1백70개 고철업체 주관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 경기도내 재활용센터

명칭	전화번호	명칭	전화번호
성남 재활용센터	(0342)47-9996	김포 〃	(0341)83-8272
광명 〃	(02)680-6253	용인 〃	(0335)284-4424
과천 〃	(02)500-1375	남양주 〃	(0346)592-9841
안산 〃	(0345)406-8272	시흥 〃	(032)692-8272
의왕 〃	(0343)61-3229	이천 〃	(0336)34-7202
수원 〃	(0331)221-7272	파주 〃	(0348)944-3461
고양 〃	(0344)977-8376	평택 〃	(0333)53-7288
안양 〃	(0343)49-3559	군포 〃	(0343)94-4953
분당 〃	(0342)703-8272	고양 〃	(0344)978-8272
부천 〃	(032)656-1422	의정부 〃	(0357)542-7282
소사 〃	(032)345-7282	하남 〃	(0347)794-6496
수원 〃	(02)888-2501	포천 〃	(0357)542-7282
구리 〃	(0346)62-7272		

부부 "가족간 공경하고 사랑하라"

대량실업의 시대, 아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 "남편에 대한 생각이 지극해서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여 떠나지 않는다. 어떤 비밀한 일도 서로 알리며, 잘못을 보면 충고하여 실수가 없게 하고, 좋은 일에는 칭찬하여 지혜가 더욱 밝아지도록 한다."〈육아녀경〉

경전에서는 가정의 화평이 복의 근원이라고 가르친다. "부자 형제 부부 친족간에 항상 공경하고 사랑하여 질시하거나 증오하지 말라. 안색은 항상 화평하게 하고 서로 멀리 있어도 걱정해주어야 한다."〈무량수경〉 "능히 신앙을지켜 가정이 화평하고 편안하면, 현세에 경사가 있어서 복이 저절로 좇아오게 마련이다. 복이란 행위에서 오는 과보일 뿐 결코 신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다."〈아난문사불길흉경〉

복지부 '음식은행' 운영

보건복지부는 21일 남은 식품을 사회복지시설이 공급받아 활용할 수 있는 푸드 뱅크(잉여식품 나눔은행)를 3월부터 서울(02-612-6736, 615-7609) 부산(051-623-3254, 3901) 대구(053-471-4096) 과천(02-502-2015)에서 시범운영키로 했다. 푸드뱅크 대상은 재고식품과 생산과잉으로 남아도는 식품이다. 식품기부자에게는 소득세의 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농진청 개발기술 무상이전

농업진흥청이 개발한 기술을 생산자단체와 중소기업 등에 무상으로 이전해준다. 농업진흥청은 19일 실용화와 함께 산업화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이전한다고 밝혔다. 기술이전 대상은 농수축임협동조합과 농업인 5인 이상이 결성한 전문생산자조직 또는 농작물가공과 관련된 중소기업이다.

서광 장익용회장 사재헌납

중소의류업체인 (주)서광 장익용회장이 22일 개인재산 1백21억원을 기업자금으로 내놓았다. 장회장은 66년부터 서광을 운영해온 원로섬유인으로 '서광모드' '라코스떼' '행텐' 등의 브랜드로 유명한 서광과 쥬리아화장품을 경영하고 있다.

국내학자 간암예방법 개발

국내학자들에 의해 간경병이 간암으로 전이되는 원인이 밝혀졌다. 고신대 박병채교수와 부산대 김규원교수는 22일 미국 암학회지 '캔서 리서치' 1월호에 간내 저산소층이 간암을 일으키는 물질을 생성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저산소증을 억제하는 약을 개발하면 간암을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얌체 금은방 환차익 챙겨

금모으기운동에 편승, 일부 업자들이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금을 사모아 국민들의 애국심을 퇴색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서울서초동 H금은방은 최근 신문삽지 광고를 통해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금을 현찰매입한다'며 금을 사들이고 있다. 이 업체는 사들인 금을 외국에 팔아 얻은 달러를 국내은행에서 원화로 환전, 환차익을 챙기고 있다.

생활苦 비관 자살 잇따라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에서 사는 이명철씨(32)와 아들 윤제(12) 윤협(10)군, 딸 아련(7) 아민(6)양 등 일가족 5명이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울산시 언양읍 어음리 야산에서 최창현씨(24)가 나무에 목을 매 숨졌다.

김당선자 명의 사칭 전집 판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명의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국민회의는 소년소녀가장 돕기를 위장해 김당선자의 저서를 5권짜리 전집으로 구성 90만원에 판매하고 있다며 21일 경찰에 수사의뢰.

이렇게 들었다

감사원은 14일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국제금융및 외환위기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 경제위기가 정부의 안일한 외환관리에서 기인했다고 보는 대다수 국민들의 시각 때문이다. 하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노·사·정을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에게 있다는 것도 상식이다. 이와관련 경전속에 나타난 '책임 의식'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책임의식 직무태만은 나라 무너뜨린다

▨나라의 중신(대부)이 직무를 태만히 하면서 사리만 생각하고 부지런히 뇌물을 챙기면 나라의 기강이 급속히 무너진다. 백성이 서로 속이고, 강자가 약자를 때리고, 귀족이 서민을 학대하고, 부자가 빈자를 착취해도 법의 제재가 없으면 도덕이 무너지고 혼란이 극에 달한다. 부정직한 공직자들은 백성의 복리를 훔치는 도둑일 뿐 아니라, 임금과 백성을 속여 나라를 불행하게 하는 원흉이다. 그러므로 임금은 그런 중신들을 가려내서 엄벌해야 한다. 〈대실차니건자소설경〉

▨6찰제리왕은 또 스스로 생각했다.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세워진 나라라 반드시 정승될 사람이 필요하다. 누가 이 책임을 맡을 수 있을까. 저 큰 전존 같은 이라야 마땅히 이 나라 일을 겸해 맡을 수 있을 것이다.' 때에 6 찰제리왕은 곧 전존에게 명령해 말했다. '우리 나라는 정승을 필요로 한다. 그대는 마땅히 우리를 위해 나라 일을 겸해 맡아 다스리라.' 그래서 6국은 각각 정승의 인(印)을 주었다. 때에 큰 전존이 정승의 인을 받자 6왕은 궁중으로 들어가 즐기면서 놀았다. 때에 6왕들은 모두 나라 일을 큰 전존에게 맡겼다. 큰 전존은 6국의 일을 다스려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전존경〉

▨통치자는 백성이 고통을 호소하기 전에 그것을 제거하고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 그렇게 해도 백성이 태평한 삶을 누리지 못하면 그 통치는 불완전한 것이다. 백성이 나라의 보배임을 알고 소중히 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통치자는 항상 백성을 염려해 잠시도 쉬지 않고 어렵게 사는 백성을 번영케 할 일을 계획한다.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많은 충고와 조언을 받아들여 온갖 일을 알아야 한다. 백성의 안락과 슬픔을 알고, 공과 죄를 확연히 가려 상과 벌을 엄정하게 해야 한다. 자신의 권력과 위엄으로 백성을 잘 보호해 주는 치자는 백성이 왕이라고 부를 만하다. 〈대실차니건자소설경〉

▨승단을 화목하게 이끌어 가는 데 긴요한 일이 여섯가지 있다. 첫째 성실한 말, 둘째 성실하고 친절한 행위, 셋째 성실성과 동정심, 넷째 공유재산을 평등하게 이용하기, 다섯째 순결한 마음으로 같은 계율 따르기, 여섯째 사물을 모두 바르게 보는 일이다. 이 여섯가지 중에서 다섯가지는 주변조건이다. 〈팔리, 율장대품〉

생상품 삼보금고 복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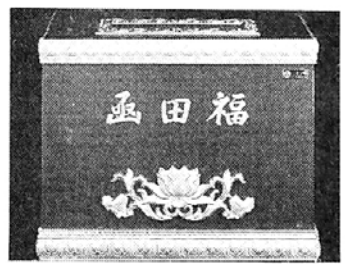
사용자 임의선택 이중 안전장치

불교미술전시관(관장 김성호)은 '삼보금고 복전함'을 새 상품으로 내놓았다.

복전함 뒷편의 잠금장치가 열쇠와 첨단 컴퓨터 버튼키 등 이중장치를 갖추고, 사용자가 임의로 선택한 비밀번호를 1단위부터 8단위까지 쉽게 바꿀 수 있다. 6㎜ 두께의 강철관과 60~120㎏의 무게때문에 파손되거나 통째로 도난당할 염려도 없으며 상·하 연화문양으로 조각·주조돼 중후한 세련미를 자아낸다.

금고 안에는 톱니바퀴가 장착돼 있어 외부에서 철사나 실 등을 이용 일체 돈을 꺼낼 수 없게 설계된 아이디어로 특허를 받기도 했다.

복전함은 야외·노천법당용등 6종류가 있다. 가격은 88만원~1백 38만원. (02)733-4800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화씨
작목반 박 래 환

TEL 053)943-9371
02)3431-0743/0522)61-4424
FAX 053)943-9371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연락주시는 대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관 팔각형
· 만다라 : 알미늄관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45㎝

◎ 보급가 : ~~W 300,000~~ ⇒ W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손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지하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짤아놓았던 동관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시 론 IMF 극복의 지혜 ③

독불장군은 없다

옛말에 '독불장군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세상의, 숨쉬는 모든 것은 서로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고 있다. 싫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싫은 일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다. 연기법(緣起法)이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으로 인하여 이것이 있게 된다'는 진리를, 서로가 주체와 대상이 되고 존재상 필요불가결적인 요소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 고통받는 이웃에 보시하는 삶 살자

아무리 좋은 약이 있더라도 병이 났을 때만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며, 의사도 환자가 있어야 그 존재를 알릴 수 있고, 자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 병은 약을 필요로 하고, 약은 병으로 인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법 산 〈동국대 불교대학장·본지 논설위원〉

사람은 누구나 내 몸, 내 집, 내 가족, 내 나라 등 '내 것'에 집착한다. '내 행복'에만 시선을 집중하고 '자기의 모양(我相)'만 지키면 영원히 자기 것인양 생각하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은 착상이다.

불교에서의 무아(無我)사상이란 자기만을 고집하는 벽을 무너뜨리라는 것, 즉 아상(我相)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다.

또 불교의 가장 중요한 수행법이 육바라밀인데 그 첫번째가 보시(布施)이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말로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 아상의 벽을 허물지 못하면 남의 모양이 보이지 않고, 남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마음의 창이 열리지 않아 세상을 두루 보지 못한다. 남을 돕기는 커녕 독단·독선·독재로 남을 못살게 하고 세상을 시끄럽게 한다.

세상이 허물어지는 판에 '자기의 행복'인들 누가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요즈음 IMF 한파가 엄동설한을 더욱 매섭게 몰아치며 사람들의 마음이 날로 경색되어가고 있다. 봄도 잊고 여름마저 앗아갈 사상초우의 IMF 한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사람들은 살아남을 걱정만 태산같이 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부처님을 믿는 굳은 신심으로 의지처를 삼아 기도와 참선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지혜롭게 장애물을 정리해 나아가야 한다. 서로 돕고 같이 산다는 마음, 더불어 사는 보살의 마음을 일으켜 실천해야 한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진리임을 믿고 허둥대거나 공포에 떨지 말고 초조하고 불안할 때는 더욱 신심을 일으켜야 한다.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나보다 더 고통받는 지구촌의 이웃을 생각하며 슬기로운 삶을 일구어 가노라면 반드시 따뜻한 봄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대승불교의 보살행을 '공생(共生)'이라고 한다. 공생의 의미는자기·사회·자연의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 자기와의 공생은 몸과 마음의 조화도 있겠지만 마음에서 솟구치는 선과 악의 갈등을 잘 다스리는 것이다. 불안·초조·시비 등의 번민은 스스로 조복하여 조화롭게 다스려야 한다. 찰나간에도 몇번씩 뒤집어지는 마음의 갈등은 억제라는 이름의 투쟁으로는 제어할 수 없다. 오직 기도와 정진으로 자신을 다스린다면 마음의 평온은 반야지혜로 찾아올 것이다.

초조 불안할수록 마음을 다스려야

둘째, 사회와의 공생은 남과 더불어 사는 삶에 있어서 남의 어려움과 불행한 고통을 나의 괴로움으로 느끼고, 나보다 남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세상 사람 모두 각자의 마음을 열고,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우리 사회는 분명 평화로운 이웃이 될 것이다.

셋째, 자연과의 공생은 개인의 생명이 자연환경 속에서 숨쉬며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는 것이다.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더럽히지 않는다면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무한한 생명을 영위할 수 있다.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불어 사는 삶, 함께 하는 보살심을 일으켜 공생의 의미를 올바로 새기고 실천하자.

열린마당

문화재관리 지자체 이관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문화체육부 조직개편안 가운데 문화재관리국의 축소와 일부 문화재 관리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문제가 거론돼 문화 학술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화재 관리는 전문성이 요구되는만큼 일반 행정기구의 구조조정과는 다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 문화재관리국의 축소와 일부 문화재에 대한 관리업무의 지자체 이관은 문화재의 보존과 민족문화 계승의 당위성을 저버리는 처사란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이와 관련 조직개편위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 문화재관리국의 개편과 관리업무의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각단체의 반대입장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지자체 문화재관리 역부족"

범하 〈통도사 박물관장〉

국가 경제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새정부가 출범하기전 상당히 의욕적인 자세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문화재 관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일반 행정기구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문화재관리국과 그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은 매우 염려스럽다.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보호와 발굴이라는 측면보다는 지역개발 이익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구성된 지방문화재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채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련 업무 능력 부재는 쉽게 드러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발굴되어 그 가치를 조명 받아야 할 문화유산은 부지기수다. 이같은 현실에서 정부조직의 개편이라는 논리에 문화재 관리 업무가 축소되고 분산된다는 것은 21세기 전통문화를 통한 세계화 작업을 포기하는 것일 뿐이다.

일괄적인 조직의 개편보다는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가치와 자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개발 관리할 수 있는 거시적 개편이 우선되어야 한다.

"오히려 문화재보호법 보완"

정재훈 〈前 문화재관리국장〉

문화재관리를 중앙정부가 관장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상품개발의 도구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 재력있는 상공인이 지방의회에 대거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주도하는 지자체가 문화재보호는 아랑곳없이 개발에만 주력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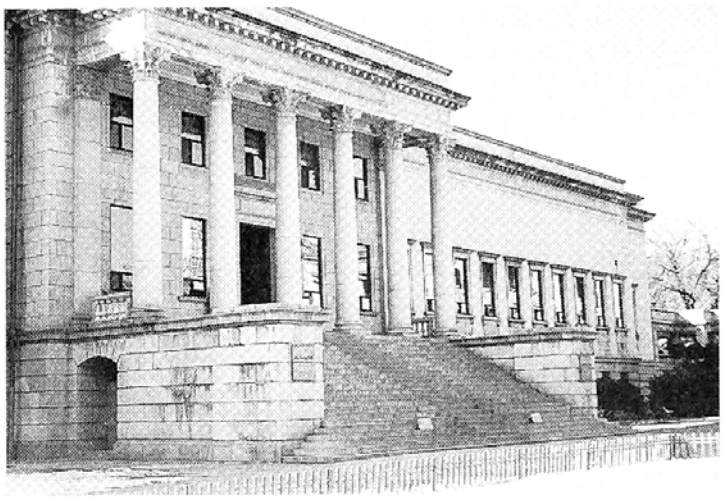
또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지자체에는 전문 인력이 없다는 점이다. 비전문가 한 두 사람이 날로 증가하는 지방문화재를 관리한다는 것은 민족문화보존의 적신호라고 아니할 수 없다.

IMF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 민족 고유의 본질과 개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관리국을 내국화 하기보다는 청으로 승격, 문화재관리의 고유한 기능을 살리는 용단이 필요한 때다. 문화재보존관리는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이지 행정가가 할 일은 아니다. 내국화할 경우 집행업무라든가 장관 등에 따라 정책이 좌우되기 때문에 원형보존 의미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청 승격과 함께 문화재보호법을 보완, 정부조직 변화나 국토개발과정에서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적극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한 때다.

"廳으로 승격…문화정책 강화"

임효재 〈한국선사고고학회장〉

우리나라는 전국토가 박물관이라고 불리울 만큼 전국에 많은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문화유산이 없다. 문화유산은 국가의 소유이므로 마땅히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만약 문화재관리를 개발우선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지자체에 맡긴다면 최근 경주의 예처럼 문화재 훼손이 가중될 것은 뻔한 일이다. 더욱이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지자체장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문화재관리의 지자체 이관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문화재관리국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덕수궁내 문화재관리국 전경.

오히려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걸맞게 문화재관리국을 '청'으로 승격시켜 문화대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IMF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60년대 초 문화재관리국과 같이 출범한 통계국, 치안국 등은 모두 청으로 승격됐는데도 문화재관리국만이 '국'체제로 남아 있다.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무관심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가 상실된 채 경제적 논리만으로 지배되는 사회는 21세기 문화선진국의 대열에 설 수 없다. 효율성과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문화재관리국의 기능을 극소화하는 것은 문화정책이 퇴보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비문화적 발상 훼손 우려"

김정기 〈前 국립문화재연구소장〉

문화재는 중요한 문화재, 중요하지 않은 문화재로 나눌 수 없다. 중요문화재는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중요하지 않은 문화재는 지자체가 관리한다는 정부구조개편심의위원회의 제안 자체가 바로 비문화적인 발상이다.

한나라의 문화정책은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문화재관리는 중앙정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만약 지방에서 유물이 발견됐을 경우 중요문화재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그렇지 않은 유물은 지자체에서 관리한다면 혼란만 가중돼 유물관리의 통일성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해당 시·도가 개발우선 정책을 펴고 있는 이때 중앙의 문화재관리국이 없다면 문화재 훼손은 일일이 막기 어려울 정도로 가중될 것이다. 지자체 어느 한 곳에도 전문가가 없는 현실에서 국가적인 문화재를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한 지자체에만 맡길 수는 없다. 중앙정부의 철저한 견제와 지도속에 지자체와의 밀접한 협력관계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지난해에는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문화재관련 제도와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활발했다. 이러한 노력이 허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문화재관리국의 '청'승격과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한층 성숙해진 문화대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위원장 박권상)가 문체부 조직개편과 관련, 15일 확정 발표한 시안은 두 가지. 제1안은 '문화부'로의 개편. 체육기능을 대폭 축소, 대한체육부 등 관련 민간단체로 이관하고 문화재관리 기능도 국보·보물 등 중요문화재를 제외한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경우 문화재관리국은 내국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제2안은 문화체육부의 기능을 대폭 줄여 교육부와 통합, 가칭 '교육문화부'가 되는 것이다.

차기정부 문화재정책 문화재위·고고학회등 이구동성 '반대'

이 경우에도 주요골자는 1안과 별 차이가 없다.

이에대해 문화계 일각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IMF위기에 직면, 문체부를 축소해야 한다는 상황론은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문화재관리국의 기능강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영역과 기능축소에만 신경쓰고 있다고 한다. 특히 문화재관리의 지자체로의 이전에 대해서는 비관의 소리가 높다.

문화재위원회(위원장 고병익)는 20일 건의문에서 "문화재관리가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자체로 이관된다면 지역이기주의와 무분별한 개발로 문화재 훼손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해 문화재관리청 설치법안을 추진해왔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고고학회(회장 김종철)도 같은날 성명을 통해 "비지정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다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민족문화유산의 운명과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재관리국의 내국화는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며 문화부를 교육부로 통합시키자는 것은 문화는 어디에 두든 무방하다는 식의 발상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강내희 중앙대교수는 민예총이 15일 주최한 '문화정책 포럼'에서 "기존 문체부 업무 중 청소년·체육·관광기능을 분리, 타부서로 이관하고 문화재관리국도 문화재보호청으로 분리, 독립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기석 기자

현대불교 지사지국 안내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43-5599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 1580
진주지사	0591-747-0106
아산·청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춘천 옥산가옥의 신비!

아래와 같은 사연 수백통씩의 건강체험 사례집이 4권에 이릅니다. 성인병 난치병에는 玉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십시요.

옥침구

41세 주부입니다 박 진 97.6.20

저는 3년 전에 수와인사 즉 (와사풍)이라는 병이 나서 침을 맞고 약도 많이 먹고 (中略) 불원하여서도 한번 속아보라 하여서 그날 옥이불 옥배개를 샀습니다 그날 저녁에 옥이불 덮고 옥배개 베고잤는데 땀이 흠뻑 났습니다 옛날 귀대하 제가 옮기 알통했던 몸도 가볍고 머리도 지끈 기미가 든 것처럼 기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 옥이불 옥배개 함께 것에는 이런 증세가 없었는데 현액순환이 너무 잘되어서 이렇게 가뿐구나 하는 것은 느꼈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이튿날부터 가렵고 지렁이 기미가는 것같은 증세가 없어지고 몸이 아주 홀가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순은 씨는 지금은 너무나 건강합고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것도 그렇고 주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산시 양덕2동 한일다운 / 초 / -68 /

백옥 옥 옥 옥 옥
팔반팔 벨 내 이
염주찌 트 외 불

※ 춘천옥이라는 제품은 수입 유사품옥입니다. 진옥은 王山家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번지 王山家 是空 合掌
쁘렝땅백화점 지하상가 을지로쪽입구 777-0105(우린관매가)

부처님조성·석탑·석등·석비·부도·불사건축·제작시공

효성석재공예사

귀의 상보히옵고,
석불상 조각을 비롯하여 석탑 석등 등 사찰 경내의 모든 설치물과 조각품 뿐 아니라 어려운 현장 작업도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물러주시기 바라옵니다

김 인 호 합장



◆ 주요불사실적 ◆

- 남한산성 성불사 - 아미타석불 석탑 석등 공덕비 제작설치
- 안 양 삼성사 - 석가탑 석등 사자상 제작설치
- 인 천 송도선원 - 원형천지탑 및 십이지신상 조성
- 경기연천 육군5사단 205부대(옛 심원사) - 아미타불 조성설치
- 日本京都 영산법화사 - 석물제작 수출 (그외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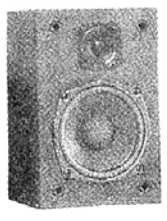
주소: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227번지
전화: 전시장 (0357)542-1527 야 간 (0351)874-4685
공 장 (0357)542-1528

사찰 법당 음향설비

-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
- 뛰어난 소리가 보장되는 -
- 가장 경제적인 법당 음향시설

● (상담역) 음향 연구가
무선설비기사 김 문 화
아마추어 무선사 HL 1ACU
무선 마이크 전문

법당전용 스피커 YM-520 개발



YM-520
2 way : 벽걸이형
100W

전국 사찰 법당의 소리를 웅장한 소리로 바꿔 드리겠습니다.

스피커 한조(2개) : 500,000원
● 설계자 : 음향연구가 : 金文華

최고의 吸音力
법당의 필수품

스페셜마이크



T - 7



TM-108
염불전용 목걸이 마이크
■ 공급가 : 85,000원

초 고감도
유선핀 마이크
가격 50,000원



● 가장 멀리서 들어간다!
● 자체에서 흡음력을 조절한다!

DX-707
스페셜 마이크
가격 200,000원.

유코전자

본사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226-7
☎(02) 697-9976, 605-3235
FAX (02) 695-9676

종단소식

조계종

교육원 학술논문 공모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밀원)는 3월말까지 '근대승가교육사'를 주제로 한 학술논문을 공모한다. 응모자격은 스님과 석사학위를 소지한 재가불자로 분야는 한국불교근대사에서의 승가교육, 근대교단의 승가교육, 근대전통강원, 일제의 종교정책 등이다. (02)732-4921

월정사 복지시설에 성금

진부 월정사(주지 현해)는 18일 불우이웃돕기 일환으로 원주·강릉시립복지원, 소쩍새마을을 비롯 관내 노인정과 영세민 가족들을 방문 성금과 백미, 위문품을 각각 전달했다.

한편 월정사는 원주·강릉문화방송국에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금일봉을 기탁했다.

봉선사 간월암서 방생법회

남양주 봉선사(주지 밀운)는 2월8일 충남 서산 간월암 일대서 방생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사찰순례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이 실시될 계획이다.

태고종

독거노인 20명에 백미

총무원(원장 인곡)은 16일 성북2동 독거노인 20명을 방문 불우이웃돕기행사를 실시했다. 고무부장 우담스님 등 종단간부들은 이날 노인들에게 1인당 1가마씩의 쌀을 전달하고 이들을 위로했다.



충남교구 종무원 주지총회

충남교구종무원(원장 대연)은 15일 아산 산수회관에서 교구산하 주지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예산 및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총회에서는 또 현재 건강상 이유로 종무원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대연스님(아산 영원사 주지)을 대신해 종무원 부원장인 만성스님(아산 수암사 주지)과 일로스님(천안 천왕사 주지)이 종무원장직을 대행하기로 결의했다.

부산교구 주지·교임연수

부산교구종무원(원장 상도)은 15일 경남 양산 광천사에서 부산교구산하 각 사암 주지스님 및 교임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회에서 참석자들은 승풍기강 확립, 승려 수행능력 증진, 신도교육 강화, 종무행정 쇄신 등 종단 신년도 사업계획에 적극 협조키로 의견을 모았다.

천태종

말사·신행단체 본사 참배

총무원(원장 운덕)은 무인년 정초를 맞아 3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종단 신행단체와 전국 각 말사별로 총본산 단양 구인사 참배를 실시한다.

신행단체별 신년하례회와 말사신도들의 종정 도용스님 친견법회를 겸한 이번 본산참배는 전국에서 30만명의 신도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진각종

해병대에 세탁기등 전달



성초 통리원장은 15일 통리원장실에서 해병대 제9258부대 흑룡사 군법사에게 컴퓨터와 세탁기 각 1대씩 위문품을 전달하고 부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재선출



중앙종회(의장 법륜)는 15일 충남 천안 보명사에서 제35차 정기중앙종회를 열고 제7대 총무원장에 현 총무원장 홍파스님을 재선출했다.

이에 따라 홍파스님은 81년 4대 총무원장에 오른 이래 4대째 연임하게 됐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설맞이 이웃돕기 자비행 '밀물'

신흥사 무연고자 합동차례 지내
직지사 모자가정에 백미 전달
중리복지관 소년가장에 떡국·의류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떡국보시, 무연고 합동차례 지내주기, 의류전달 등 교계의 온정이 잇따르고 있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속초 신흥사(주지 도후)는 설날 신중기도와 함께 명부전에 마련된 합동위폐에 제를 올려준다. 특히 무연고자나 후손없는 친척의 영가천도, 영구위패 봉안과 불자가족들이 직접 사찰을 찾아 조상들의 극락왕생을 천도하는 차례를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진부 월정사(주지 현해)는 28일 불우이웃들에게 떡국보시를 하기로 했으며 춘천 석왕사(주지 백운)는 31일 춘천소년원을 방문해 위문법회와 다과회를 열어 비행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용기를 심어줄 계획이다.

강릉자비원(이사장 부동)도 15일부터 27일까지 '자비원 후원자선바자회'를 개최했다. 바자회의 수익금 전액을 자비원생들의 후원금으로 쓰게 되는 이번 바자회는 생필품 젓갈류 쌀 한과 건어물 등을 시중가보다 10~15%정도 저렴하게 판매해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흥을 얻었다.

이에앞서 김천 직지사(주지 녹원)는 22일 김천시 대항면내 장기와병자, 모자가정등 불우이웃 15세대에 백미40kg씩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천안시불교사암연합회(회장 묵조·보광사주지)는 19일 다가동 유길운할머니(75)를 비롯 관내 불우가정 26가구를 방문, 백미와 성품을 전달했다.

속초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홍)도 23일 지역내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을 방문, 가래떡과 의류 60여점을 전달했으며, 26일에는 장수식당에서 노인 2백여명에게 만두국을 공양했다.

또 부천 덕유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영담)은 21일부터 3일간 생활보호대상자 1백52세대를 대상으로 '설날 떡지원' 행사를, 마산 중리종합사회복지관은 소년소녀가장, 장애자등을 대상으로 '재가세대 설맞이 떡국보내기' 운동을 전개했다. 또 부산 개금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여)은 '떡가래와 내복 나누기' 사업을 실시해 불우이웃 50세대에 전달했다.

한편 속초 신흥사 신도회장 윤두욱씨(신흥사 매표소장)를 비롯 신흥사 매표소 임직원들은 24일 틈틈이 모아온 보시금으로 관내 불우노인을 초청, 점심공양을 베풀었다.

이밖에도 각 사찰과 사암연합회 등 단체들은 설을 전후해 지역내 불우시설과 이웃을 찾아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있다.

김중근 기자

제2 석굴암 건설 구체화

토함산 구릉지에 부지선정…2000년 완공

경주 불국사(주지 설조)가 제2석굴암 조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불국사측은 21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석굴암(국보24호)의 모조상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경주시에 신축예정지에 대한 현상변경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신청서에 따르면 제2석굴암의 위치는 기존 석굴암의 남쪽 요사채옆 구릉지로, 총 1백59억여원을 들여 올 3월에 착공해 2000년경에 완공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불국사측이 지난 2년동안 한국미술사연구소와 등국대불교미술연구소에 제2석굴암 조성계획을 위한 용역을 의뢰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불국사 관계자는 "지난 20여년간 내부통제로 석굴내부 참배가 어려워진 현실에서 기존의 석굴암을 보존하는 한편 제2석굴암을 완전개방해 예불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석굴암과 똑같은 크기와 모양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시는 "제2석굴암 조성 예정지가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이자 국립공원지구로 지정돼 있다"며 "법적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문화재관리국에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팔공산 주차장 추진 자연경관 훼손 우려

도립공원 팔공산 수태골 입구에 대형 주차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팔공산 자연공원 관리사무소는 동구 용수동 906 907-1, 908-4, 909-2 일대 임야와 논 등 1천4백여평에 유료주차장 건립을 위한 공원계획 시설결정 요청서를 지난해 10월 대구시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 공원과의 관계자는 "수태골에는 1백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시영 무료주차장이 있다"면서 "그러나 행락철에는 평일 1백50여대, 휴일 5백여대가 몰려 도로변이 주차장으로 변하는 등 혼잡을 빚고 있어 시설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일대는 동화사 부인사 파계사로 이어지는 팔공산 순환도로변에 위치한데다 주변경관이 수려해 대형주차장이 건설될 경우 자연경관 훼손이 확실시 된다.

추가비용 1백억 불가피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IMF한파 영향으로 현재 건립중인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건립비용이 최소 1백억원 이상 추가될 전망이다.

풍림산업 최일환 차장은 21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원자재 값이 엄청나게 상승해 김포학사 건립에 1백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와 관련해 중앙승가대측과 회사측간의 공식적인 접촉이나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중앙승가대측 역시 "공식적인 얘기는 없었다"며 "만약 풍림산업측이 추가부담을 요청할 경우 종단과 긴밀히 협조해 방침을 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명대사 친필작성문집 〈용담선생유묵〉

사명대사 친필문집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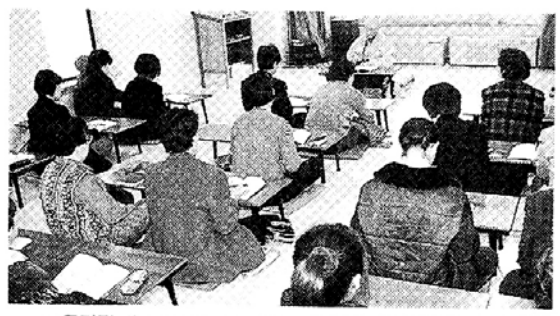
김재학씨 '용담선생…' 공개…호·낙관등 적혀

사명대사가 친필로 작성한 문집 〈용담선생 유묵〉이 발견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문서전문가 김재학씨(밀양시박물관 연구원)는 풍천임씨 대종회가 소장하고 있는 대사의 친필집 〈용담선생 유묵〉을 최근 확인해 본 결과 진본임이 틀림없다고 밝혔다.

김씨에 따르면 책의 맨 앞에 '용담집을 쓰다'란 문구와 함께 사명대사의 낙관이 있으며, 글에도 '만력경자년(1660) 만추송운일서'라는 집필연대와 대사의 호(松雲)가 기재돼 있다는 것.

문집은 가로 30㎝, 세로 35㎝의 크기로 사명대사가 입적하기 10년 전인 57세(1600년) 때 경북 의성, 영주 일원에서 일가친척인 임휴장군을 만나 그가 지은 시 61수를 한시로 옮겨 적은 것이다. 시는 주로 당시 정치 산수 풍류와 관련된 내용이며, 사명대사 특유의 힘있는 필치가 잘 드러나 있는 반면 초서로 쓰여져 난해하다.



◇금강정사는 1인1수행법 갖기 운동으로 도심포교의 새 지평을 열고 있다.

도심포교 새지평 연다

광명 '금강정사' 청사진 마련

1인1수행법 갖기·노인복지원 개원

'수행으로 돌아갑시다.' 경기도 광명시 금강정사(주지 벽암)가 창립 7주년을 맞아 내놓은 포교복안이다. 이를위해 금강정사는 올해부터 1인1수행법갖기 운동을 실시하는 한편 노인포교를 비롯 각종 포교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금강정사의 1인1수행법갖기 실천지침은 경전읽기, 계율지키기, 염불, 보살행, 참선수행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가불자 수행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도심포교당의 포교활동 한계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포교전략이란 게 사찰측의 얘기다.

금강정사는 재가불자수행을 처음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95년부터 일부 신도들을 대상으로 경전읽기, 참선수행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신도들의 반응및 포교에 큰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강정사는 수행활동지침서인 〈재가불자수행법〉를 발간하는 한편 각 부문별 교육과정도 개설해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즉 참선수행의 경우 6개월 과정 입문반, 수련반을 개설하고, 계율지키기는 재가불자 관련 계율덕목을 정리 제공한다는 것.

주지 벽암스님은 "기복적인 신앙형태가 아닌 교육과 수행, 실천이 조화를 이룰 때 정체된 포교활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강정사는 올해를 노인포교의 원년으로 삼아 발판다지기에 나선다. 이는 광명시 소하동에 건립중인 금강복지원(가칭) 운영을 위한 기초단계다. 하안동일대 독거노인및 불우노인 시설및 현황을 상반기내로 파악하고 '노인의 집'을 개원한다는 방침이다.

금강정사가 추진하고 있는 수행을 통한 포교활동과 각종 포교활동은 향후 도심포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근〉

최신간

붓다들이 벌이는 영혼의 축제

월계수 꽃의 냄새를 맡았는가

오쇼 라즈니쉬의 이규선사 강의 · 이경옥 옮김



아름답고 슬픈 감성의 소유자,
비범한 통찰력을 지닌 구도자 이규선사!
오쇼 라즈니쉬의 눈과 마음으로 그의 시를 듣는다.

눈물·웃음·침묵의 스승, 오쇼 라즈니쉬(Osho Rajneesh)!
그는 일본의 별난 선사 이규(一休)의 시 가운데 주옥같은 13편의 시를 선별하여 그 깊은 메시지를 쉽고 감동적으로 전하고 있다. 이규의 시들은 진하고 깊은 인간적 삶에서 우러나온 것들로, 라즈니쉬의 깊은 각성과 사랑의 빛으로 함께 어우러져 펄펄 살아 숨쉬는 대양의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이규는 별난 선사?!
1394년, 고고마스(後小松) 천황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술과 고기, 여색을 즐기는 등 무애행(無碍行)을 실천하며 일체의 가식과 위선을 버리고 계율마저 넘어가고자 하였다. 깨달음에 대한 철저한 자기 인식이 있었기에 당시 타락하고 있던 일본의 선승들을 가차없이 질타하고 대도와 독설을 서슴지 않았다.

신국판 / 520면 / 값10,000원

법구경 上·下

법구경은 나를 완전히 발가벗겼다!
나는 허상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를 받아들였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국판 / 전2권 / 각권 값8,500원

금강경

벼락처럼 자르는 지혜의 완성!
2천5백 년 전
붓다가 돌렸던 진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국판 / 430면 / 값7,000원

탄트라비전 I II III IV

내 영혼이 눈 뜬 최초의 창문!
"마음을 변형시키고 초월시키는 모든 길이 여기에 다 들어 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이연화 옮김
신국판 / 전4권

부처님의 유언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다.
이제 세상은 모두 다 도(道)를 놓아 버렸다!
공파스님 역해
신국판 / 400면 / 값7,000원

판차탄트라

감로수와도 같은
다섯 토막의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현명하게 바꾸어 준다!
판디트 비쉬누 샤르마 지음 / 서수인 옮김
신국판 / 440면 / 값7,000원

삶을 논하는 영혼의 성자,
깨달음의 스승 마조, 조주, 임제, 남전을 아십니까?

마 MATZU 조 / 조 JOSHU 주 / 임 RINZAI 제 / 남 NANSEN 전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해일출판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대표전화927-9831 팩스924-3236

책장을 여는 순간, 명쾌하고 진한 감동이 메마르고 지친 당신의 영혼에 단비를 내려줄 것입니다.

절마다 'IMF 쉼터' 마련

사찰 신행상담실서 실직자들 '마음 위안'
종단협 소비자보호위 '오뚜기 모임터' 개설

"스님,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낮에 양복을 입고 법당을 찾는 중년 가장, 남편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주부들이 늘고 있다. 서울시내 사찰과 불암산 북한산 등 인근 산사에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는 불자들의 발길이 급증했다. IMF파고에서 실직하거나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사찰을 찾아 고난을 극복할 지혜를 구하기도 한다.

목동 법안정사(주지 대운)에는 최근들어 사찰을 찾는 실직자들이 늘자 신행상담실을 마련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북한산 도선사(주지 동광)에도 하루 평균 10명 이상의 실직자들이 주지스님을 찾거나 법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춘천 석왕사(주지 백운)에는 사찰을 찾는 실직자들은 물론 직장과 생계문제를 상담하는 전화가 부쩍 늘었다. 상도동 사자암(주지 도각)도 일요정기법회에 참석하는 신도가 늘었다.

이같은 현상은 전국 대부분의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IMF시대에 사찰이 마음의 안정과 지혜를 주는 마지막 희망의 장소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류를 반영, 불교단체와 사찰이 실직자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장소를 잇따라 마련하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비자보호위원회(위원장 효강·총지종 법장원장)는 21일 역삼동 총지종 총무원 2층에 실직자와 파산 기업기업주들을 위한 '오뚜기 모임터'를 개설했다.

15평 규모의 방에 전화와 팩시밀리, 사무용 책상, 소파, 대형 책장, 캐비닛, 회의용 탁자 등을 고루 갖춘 '오뚜기 모임터'는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들이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의 협조도 구할 방침이다.

경기 남양주 불암사(주지 일면)는 실직자들을 위한 쉼터를 늦어도 2월중순까지 마련키로 했다. 30여평 규모의 동축당에 숙소와 전화, 팩시밀리를 갖춘 사무실을 함께 두고 직업알선은 물론 전문상담원도 둘 계획이다.

또 대구 동화사 부설 불교사회복지회(이사장 지도스님)도 2월중순까지 복지회 소유 한옥(방 20칸)을 개조해 실업자와 명예퇴직자들의 쉼터를 제공한다. 소비자보호위원회(02)3452-7485, 불암사(0346)65-8345, 대구불교사회복지회(053)427-1907

〈한명우 기자〉



종교벽 허문 '자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21일 충북 음성 꽃동네를 방문 '한민족 공동체를 위한 성금'으로 마련된 5백여만원 상당의 성금과 생필품을 전했다. 월주스님의 이번 방문은 조계종 총무원장이 타종교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처음으로 방문한 것. 월주스님은 꽃동네 원장 오웅진 신부와 환담을 나누고 꽃동네 시설을 둘러보았다. 월주스님은 또 경기도 광주군의 일본군 위안부 시설인 나눔의 집(원장 혜진스님)을 방문, 격려금을 전달했다. 〈음성=고영배 기자〉

교계 북돕기 두 단체 통일준비기구로 전환

북한불교硏등 설립

97년 한해를 동포살리기에 앞장서온 교계 북녘동포돕기운동기구들이 장기적 통일대비기구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북녘동포돕기불교추진위원회(위원장 지선스님)는 '북한불교연구소'를 설립, 남북불교간 문화·학술교류 및 북한불교연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집행위원장 법륜스님)도 기존의 한국불교사회연구소를 통일이후 한국불교를 준비하는 연구기관으로 더욱 확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불교추진위는 사업으로 △불교통일기금 조성 △북한불교 재건사업 추진 △남북불교교류 및 북한지역 전통사찰 복원 추진 △정책실 강화를 통한 연구 및 통일정책 개발 △통일포교사 양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불교운동본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위해 한국불교사회연구소를 활용키로 했다.

금모으기 법회 현장의 화제

금모으기 법회에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2일 조계사와 도선사에서 열린 금모으기 법회에는 5백여 불자가 참여했다.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금모으기 법회에 동참한 신도들이 내놓은 금붙이에는 다양한 사연이 얽혀 있었다.

조계사 법회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지난해 송재건 전국신도회장에게 선물받은 금 거북상과 작년 박찬호선수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던 관음보살 금메달을 내놓았으며 송재건 회장도 집안에서 보관해 온 금제품을 내놓았다.

지난 3년간 총무원장 집무실에 꽃을 보시해 '꽃보살'로 알려진 김명숙씨도 직장에서 상품으로 받은 행운의 열쇠 등을 내놓았다.

강원도에서 왔다는 한 여신도는 조계사 법회에 참석했다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빼 국가에 헌납하는 증서를 받아들고 돌아갔으며 8년간 조계사 법당에서 화주보살의 자리를 지켜 온 노법심행보살도 40년간 아껴 온 금브로치를 내놓아 애국불심을 보였다. "건축업을 하던 남편이 작년 10월부터 일을 못하고 있다"는 이경희씨는 곗돈을 모아 장만했던 20여돈의 금붙이를 내놓으며 하루빨리 경제가 회생되길 기원했다.

광명시 철산동에서 왔다는 박순옥씨는 88년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했던 금메달을 내놓았으며 장현숙씨(송파구 가락동)는 이미 직장에서 받은 기념메달을 은행에 맡기고 두번째로 결혼패물을 들고 나왔다고 전했다. 만자(卍字) 반지등 30여돈을 내놓은 이원만성보살(광진구 구의동)은 "마음이 상할때마다 어루만지던 것이지만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것이 더 값질 것 같다"며 밝은 웃음을 띄어 보였다.

관음보살 금메달
'卍'자 반지
40년된 금브로치
나라사랑 불심

도선사 금모으기 법회에서는 주지 동광스님이 신도들로부터 선물받은 금제품을 모두 내놓았으며 강북구 일원의 스님들이 신도들과 함께 동참해 '황금불심'을 과시하기도 했다.

한편, 9일에는 양산의 한 사찰 주지스님이 부처님 복장에 보관해 오던 금을 은행에 맡겨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뉴스 & 뉴스

경기 경승연합회 창립

경기도내 28개 경찰서 경승모임인 경기지방경찰청 경승연합회가 21일 오전 경기경찰청 강당에서 창립했다. 경승실 개원법회를 겸한 이날 법회에는 경기지단장 정락스님(용주사 주지)을 비롯 경기도내 스님과 신도·경찰관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

이날 회장에 선출된 우담스님(용인 금륜사 주지)은 인사말을 통해 "일선 경찰관들에게 보살의 덕성을 심어주어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공복이 될 수 있도록 교화의 지평을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청교련 전남지부 발족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전남지부(지부장 용진스님·봉우사 주지)가 23일 해남군 봉우사에서 발족.

용진스님은 "청소년들은 미래불교의 주역이기도 하면서 현재 사회를 평가하는 척도"라고 말하고 "청소년 포교는 물론 지역불교의 활성화를 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교련은 이로써 15개 지부와 3개 지회를 꾸려가게 됐다.

부산실업인회 경제강좌

부산불교실업인회(상임부회장 서춘석)는 16일 범어사 휴휴정사에서 1월 정기법회를 열고 범어사 주지 성오스님의 법문과 박수복 감사의 경제강좌를 마련했다.

성오스님은 법문을 통해 "경제적 난관에 처해 기업을 하는 이들은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이겨야 한다"고 법문했다.

이벤트사업본부 추진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법현스님, 이하 포교회)는 지난 19일 대각사에서 제1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벤트 사업본부 '부루나'를 신설키로 했다. 또 신년사업으로 △월요 정기강좌 △여름·겨울 불교학교 지도자강습회 △3월·10월 2급 레크리에이션자격강습 △4월~11월 청소년문화소식 △7월 가족캠프 및 어린이연꽃캠프 △12월 후원의 밤 등을 개최키로 했다.

"불교 유아교육 내실화 시급"

조계종 불교어린이집 종사자 직무교육서 제기

'불교사상에 입각한 교육프로그램개발과 교육환경조성, 교사의 자질함양을 통한 불교유아 포교에 적극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제까지 시설위탁이나 설립위주로 추진만 할 것이 아니라 기존시설의 불교유아교육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이같은 주장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불교유아포교의 활성화를 위해 33개 교계유아시설 종사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처음으로연 불교어린이집 종사자 직무교육에서 제기됐다.

또 이날 참석한 26곳의 교계유아시설 원장들은 격월단위로 정기모임을 갖고 시설간 상호정보교류및 네트워크형성으로 발전을 모색키로 했다.



진흥원 산하 자원봉사단 자광원 위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은 산하 자원봉사단원등 30여명과 15일 부처님마을 성남 자광원을 방문하고 월동 유류대및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와함께 진흥원 불교문화센터 자원봉사단은 노인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을 펼쳤으며 푸짐한 음식을 준비하여 다과시간을 마련,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전불련 회원중심 조직개편키로

운암불교연구원 개설

전국불교운동연합이 98년 한해를 조직개편과 함께 불교운동의 동력 형성을 위한 부설 연구원을 개설하는 등 위상강화에 주력키로 했다.

전불련은 21일 98년도 사업기조를 발표하고 "분단이후 최초로 정권교체를 이룬 사회변화에 발맞춰 미래불교, 생산불교를 지향하는 새로운 대승불교운동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사업으로는 △개별회원 중심으로의 조직개편 △운암불교연구원(가칭) 개설 △정책토론회 활성화 △불교계 통일일꾼 양성사업 등을 설정했다.

또 부설 연구소로 '운암불교연구원(가칭)'을 4월중에 개설, 불교개혁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연구와 함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한편 전불련은 의장 지선스님(백양사 주지)이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2월20일 대의원총회를 통해 신임 의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신임 의장으로는 전불련 지도위원 지원스님(안산 보련사 주지)이 유력시되고 있다.

목탄소리

가야산 이곳저곳 '몸살'

이 윤 호 〈대구 주재기자〉

해인골프장의 적법판결로 가야산의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가운데 가야산국립공원을 가로지르는 또 하나의 교통관광도로가 건설될 예정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건교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97년부터 2003년까지 4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합천군 가야면에서 해인사 신부락과 마장동을 거쳐 가조로 이어지는 총연장 12.9㎞ 노폭 11m의 왕복2차선 도로를 개설키로 하고 작년 11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오는 3월 공사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다.

국가지원지방도로 59호인 이 도로가 건설되면 교량 8개소와 교차로 3개소가 들어서며 국립공원내에 1.1㎞의 가야터널이 뚫리는 등 극심한 환경훼손이 예상된다. 또한 도로를 따라 상권이 형성될 경우 홍류동 계곡의 수질오염은 물론 해인성지의 수행풍토는 크게 저해될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경북 성주군이 가천면 신계리 일대 42만여평에 추진중인 관광휴양단지가 조성될 경우 가야산국립공원 둘레는 거대한 순환도로망이 형성되어 해인성지는 관광위락단지로 전락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해인사 학인스님들은 "도로가 개설되면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 이상으로 종교 및 자연환경이 훼손될 것"이라고 말한다.

개발도 좋지만 수행환경권도 보호되어야 한다. 95년 대법원은 "종교환경권도 환경영향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천혜의 경관과 총 82점의 문화유적을 보유한 가야산국립공원 일대에 개발의 유혹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인골프장 건설저지를 위한 해인총림결의대회에서 세계문화유산 보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한 것은 단적인 예다.

우리민족의 정신적 성지를 품고있는 가야산국립공원은 자연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참된 의미에서의 개발일 수 있음을 관계당국은 모르는 것일까.

차제에 불교계는 사찰의 수행환경과 민족문화의 보호를 위해 전국조직의 환경감시단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불교계가 보다 체계적인 '환경지킴이' 역할을 할 때 가야산의 몸살도 치유될 것이다.

(香妃) 천연방향약용식물을 이용한 여성질병의 치료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香妃(향비)란?
A Queen Consort

향기로운 香(향새)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미를 상징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로 모태에서 영양공급을 받는 것처럼, 향비(香妃)는 인체공학적인 모형의 팬 밴드에 천연방향약용식물(天然芳香藥用植物)인 향비를 넣어 여성이 착용할 때, 피세포에 신선한 산소와 자연의 정기인 파이톤 사이드(Phytoncide)를 공급해 줌으로 향비는 모든 여성을 신세계(新世界)로 창출(創出)시켜줄것입니다.

내분비계 개선효과 큰 (향비)
생리통, 기미효과 탁월

"여성들에게 있어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특히 기미 등이 생기는 것은 쉽게 말해 인체의 신양부족(伸陽不足)으로 인한 내분비계 이상이 그 원인이 된다. 즉 내분비계가 문란해지면 일차적으로 여러 증류의 부인과 질병이 발생합니다. 곧이어 기(氣)가 막히고 혈(血)이 뭉치게 되면서 혈액소통이 잘 안되게 돼 점차적으로는 얼굴 부위에 미세혈관의 순환장애가 오고 그것이오래되면 기미가 생기게 됩니다. 미용허리띠 향비는 바로 인체 내의 이러한 부전상태를 차단합니다."

● 과학적으로 알아보는 향의 효능 ●

20세기초 프랑스의 비교 병리학자 R. U. 갈드판세에 의하여 방향성분이 들어있는 생약과 각종 향신료를 직접 치료에 응용하는 영역을 개발하였다. 이의 결과는 매우 흡족한 것이어서 향기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집중시키며, 수면이나 각종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동의보감에도 향보(香譜)라 하여 각종 향의 질병별 처방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향은 인간의 정신적 안정과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2)755-9821, (080)200-4545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해당되는 증상에 (0) 하십시요.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때 빛깔이 짙고 탁하다. ( )
10.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1.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2.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 )
13.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4.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 ( )
15.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6. 변비가 있다. ( )
17. 당뇨와 갑상선으로 고통을 받는다. (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두통, 관절염, 방광염(오줌소태)이 좋아짐
인천시 북구 산곡동

저는 36세의 주부로서 갱년기 장애로 인하여 건강상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과 후에 심한 피로와 두통 또는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오줌소태 등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좋다는 건강식품 또는 병원에서 권하는 물리치료등을 해보았으나 일시적인 효과일 뿐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향 요법을 써보라는 소개로 "향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주위의 권유로 인하여 향비를 착용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두통과 피로를 느끼지 못하더니 향비착용후에는 관절염으로 인한 다리의 통증이 없어졌고 제가 항상 고민하던 방광염이 좋아졌습니다.
향비의 놀라운 효과에 지금은 나와 가족과 이웃에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신 "향비"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협시보살 · 천사 배치 거의 비슷



◇고려불화 '아미타팔대보살도'.

불화와 성화비교 33장면 ②

고려불화와 바티칸 제단화

구도 · 두광처리도 일치

고려불화의 '아미타팔대보살도'(그림 왼쪽 · 美 샌프란시스코 동양미술관 소장)와 지오토가 그린 '그리스도와 천사들'(바티칸 미술관 소장).

아미타여래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좌우에 협시보살들과 천사들이 에워싸고 있다. 주인공을 돋보이게 크게 그렸으며 손을 들고 있는 모습, 주위 협시보살들과 천사들의 구도, 각 인물들의 두광(頭光) 등이 흡사하다. 고려불화는 14세기 중반, 지오토그림은 1320년으로 제작시기도 비슷하다.

학림〈예천 법화암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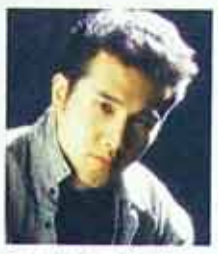


◇지오토作 그리스도와 천사들(부분).

"무소유의 삶 배우고 싶어요"

영화 「성철」 이모저모

김보성 무보수 출연



"성철 큰스님은 우리시대를 영도했던 선각자이십니다. 그분의 삶을 조명하는 영화에 출연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자체만으로 배우이기에 앞서 불자로서 대단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철스님의 일대기를 영화화한 작품 '성철'(감독 박철수)에 노개런티로 '보시출연'하는 불자배우 김보성(30)씨.

'성철'에서 그가 맡은 역은 성철스님의 젊은 시절 친구였던 '무명'. 영화에서는 내면적인 수행에 치열했던 성철스님과는 달리 외부세계의 고난과 어려움을 두 어깨에 고스란히 짊어지려 했던 인물로 그려진다. 일제시대에는 독립운동가, 해방 후에는 인민군 장교로 활약했으나 결국 성철스님을 찾아와 불교에 귀의하며 생을 마치는 독특한 캐릭터이다.

김보성씨는 "성철스님의 생활태도에서 볼수있듯 작금의 물질만능시대는 곧 막을 내리고 영혼의 시대가 올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도 생각하며 살고 싶습니다"며 소박한 바람을 밝힌다. 〈연〉

"정말 스님된 기분"

이혜은 비구니역 삭발



영화 '성철'에서 스님의 유일한 혈육 불필스님을 모델로 한 해달스님 역을 맡은 영화배우 이혜은씨(26)가 18일 부안 내소사 지장암에서 삭발식을 촬영했다.

이날 이씨는 "해달스님은 스스로 구도자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삭발하면서도 미소짓는 인물이예요. 그분의 마음이 우러나는 연기를 잘 해냈는지는 모르지만 윤주라는 속가의 이름을 버리고 삭발을 통해 해달이라는 법명을 얻는 순간 왠지 모를 행복감을 느꼈어요"라며 진지한 자세를 보였다.

불교TV · 불교방송 설날특집

불심다지는 즐거운 설연휴

	프로그램 제목	시간	내 용
불교방송	좋은날 원단아침 1 · 2부	27~29일 07:15	설 전날의 재래시장 풍경, 암탉 차례상 차리는 법, 설날 이벤트, 민속놀이, 한복입는 법, 외국인 노동자의 설 등 연휴표정을 담아낸다.
	고향의 노래, 희망의 선율	27~29일 09:05	우리나라의 가곡과 전통민요를 매개로 고향의 정취를 그린다. 이수인씨의 고향의 노래를 비롯 경복궁타령 미사 마이스키의 첼로연주 감상.
	함께 알아봅시다	27~29일 10:05	불교의 경제관을 통해 IMF 극복의 지혜를 배운다. 또 불교의 설풍습도 알아본다.
	재미있는 설날이야기	27~28일 11:10	민속학자 장주근교수(前 경희대)와 함께 설 풍속의 의미와 놀이이야기 등을 들어본다.
	김흥국의 음악여행 1 · 2부	27~29일 12:10	명절에 어울리는 우리 문화 연구소(떡 차 놀이)를 전화로 연결해 신청곡도 듣는 시간
	불국토를 꿈꾸며	27~29일 17:10	성과 불가에 얽힌 이야기, 설 전후의 불교계 행사를 알아보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긴다.
	다시듣고싶은 애청가요 60	27~29일 20:05	'다시듣고 싶은 노래' '배추노래방'의 최다 신청곡 애창곡 60곡을 성정 들려주고 고향노래 베스트도 선정한다.

	프로그램 제목	시간	내 용
불교방송	특집 영화음악실	27~29일 22:05	'인터넷으로 본 '98 영화음악' 을 준비해 영화음악평론가 성우진씨와 함께 영화소식을 찾아 인터넷 항해를 떠난다.
	특집 생활상담실	29일 11:10	취업전문가 김농주씨와 함께 자격증 시험의 종류와 시기 준비방법과 진출분야 소개
불교TV	특선영화 '엘반의 강'	27일 10:50	선재동자의 구도 여정을 연상케 하는 작품. 세계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진 소년 킴이 라호르에서 만난 스님과 마법사 알리의 영향을 받으며 자신의 실체를 깨달아 가는 과정을 그렸다.
	성창순의 판소리	28일 09:10	판소리 명창 성창순씨의 판소리 한마당
	특집 마당극 서울 뻥파	29일 10:10	심청가 일부를 마당극 형식으로 재구성한 작품. 재담적이 강하고 방당한 뻥파(뻥먹어미)의 모습을 통해 배금주의 사상이 만연된 오늘의 우리 사회를 고발한다.
	특집 다큐 서커스 외길인생	29일 11:20	요즘도 대구 등지에서 순회공연을 하는 봉춘서커스단 박세환 단장의 30년 외길 서커스 백잇기를 잔잔하게 그린다.

신행수기 당선작 〈대 상〉

자등명 법등명 ③ · 〈끝〉

내가 살고 있는 신월동은 그 당시 케이블 TV 난시청지역이어서 화면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미용실을 찾는 손님들에게 불교TV를 보라고 소개할 수는 없었지만 손님 머리를 손질하면서 은근히 불교 이야기를 꺼냈다. 광소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수 있게된 연유와 불교와의 인연 이야기, 부처님의 연기법 등을 말하면서 짬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안방에서 불교TV를 시청하며 기도하고 수행하면 부처님의 가피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곤 했다.

손님들이 정법을 배워 실천할 수 있게 〈법구경〉을 복사하여 나누어주고 맑고향기로운 모임에서 보내주는 책도 주면서 봉사활동에 동참하도록 권했다.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친절하게 보시행으로 영업을 계속하다보니 미용실 운영이 원만하게 돌아갔고, 건강도 좋아졌다. 불교공부를 시작하고부터는 항상 상대방을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감사해 했다. 조금만 여유가 생겨도 작은 성의지만 좋은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렇게 행복한 나날도 잠시, 또다른 시련이 닥쳐왔다. 불교공부를 하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긴 했지만 딸아이 뒷바라지 하랴, 하루종일 서서 손님들 머리 손질 해주랴 힘겨운 날들의 연속이었던지, 결국 지난해 1월 5일 낮 미용실에서 TV를 향해 안면이 마비된 채 쓰러지고 말았다. 무려 5시간 동안이었다. 그 와중에서도 나는 관세음보살을 염했다. 그리고는 살려달라며 움직임 없는 몸부림을 쳤고, 소리없는 아우성을 쳤다. 뇌졸중의 시초였다. 의식을 회복하고 보니 혓바닥은 딱딱하고 머리는 깨어질듯 아팠다. 왼쪽 몸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마비가 돼 있었다.

'야! 살았구나. 부처님 고맙습니다.'

그날 남편과 아이들은 미용실 안을 들여다보고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내가 TV를 보고 있으려니 생각하고 남편은 택시운행을, 아이들은 독서실에 갔단다. 한식구 같이 10년 동안을 살아온 애견 방울이가 의식을 겨우 회복한 나를 2층 집으로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 일이었던 것이다. 딱딱했던 혓바닥이 차츰 부드러워 지고, 움직이지 않던 몸과 의식이 회복되면서 내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이 죽음의 체험과 같이 느껴졌다. 생이란 풀 끝의 이슬이요, 바람 앞의 등불이요, 그림자, 무두각시 물거품이며 번개같고 꿈결같다고 했던가. 죽음을 남의 일로만 생각했는데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내게 생겨난 것이었다.

그후 동국대 한방병원에서 한약을 복용하고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몸이 차츰 회복되자 모든 것이 새로웠다. 다시 태어난듯 했다. 숨을 들여마셨다 못 내 쉬면 그만인데 부처님 가피력 아니고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나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 졌다. 열반에 드신 부처님이 2천5백년이 훨씬 넘은 지금에도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 계신다고 믿었다.

하루도 쉴새없이 미용실을 찾는 손님들에게 나는 내가 겪었던 일들과 부처님의 가피력을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다.

"제행무상 제법무아 일체개고의 모든 현상은 상이다. 집착을 떨치면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며 내 지식도 내 재산도 내 것이 아닌 것이 된다. 내가 벌어서 쓰는 돈이지만 재물의 욕심에서 벗어 나야만이 우린 서로 돕게 되고 항상 상대방에 감사하며 하심하는 마음으로 원망심을 지워버리게 될 것이다. 숨을 들여 쉬었다가 못 내쉬면 죽음인데 숨 쉬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노력해 탐진치의 번뇌로부터 벗어나야 마음의 문이 열린다"고.



그림 · 이준석

"신행의 기쁨은 크다"
뇌졸중 극복한 후
이 생명 다해 포교 발원

그리고는 불법에 귀의하라며 오계수지를 권유한다. 앉아서 받고서서 파하더라도 일단 부처님 법을 알게되면 따뜻하게 세상 살아가는 참 의미를 깨우치게 될 것이라고 말해준다. 또 오계를 실천하면 생활이 즐거워지고 자신이 변화되어 가정이 화목해질 것이라고 역설한다.

올해 둘째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면 꼭 일요일 수계법회에 온 가족이 참여하려고 한다. 그리고 온 가족이 불교계의 후원자가 될 것이다. 숨이 붙어 있는 순간까지 부처님 말씀 포교하겠다는 발원으로 조계종 포교사 시험에 응시했다. 조계사신도로 등록도 했다. 여러가지 불교입문서를 구입해 읽으면서 신행의 길을 찾은 나는 청소년 포교의 시급함을 알게 되었고, 요즘은 청소년 포교를 위한 갖가지 방법을 찾고 있다.

얼마 전에는 고3 아들과 대학 1년생인 딸을 데리고 도선사에서 3천배 기도를 드렸다. 온 몸을 땀으로 적시면서 절을 하는 동안 전신에 일어나는 찌릿한 전율과 환희심은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었다.

이처럼 신행의 기쁨은 크다. 미흡한 나의 글을 통해 많은 불자님들이 부처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우리 다 함께 불퇴전의 정신으로 불법 구현에 앞장섰으면 한다.

이태순〈서울시 양천구 신월6동〉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연미의 피부미학을 추구합니다.

신토불이 무공해 오염되지 않은 피부 ! 신선한 自然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각종 유해 대기속에서 지친피부를 바라보는 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선한 자연속에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
바쁜 일정속에서도 만족하고 싶은 자연의 美!
이제 세안 · 샤워하실 때 만큼은 항생제를 쓰지 않는 천연 무공해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를 사용하세요.



● 오보크린은 알부민푸로테인과 레시틴등의 생리활성물질(호서대학교와 C.T.F. 연구개발팀의 공동연구 개발물)을 기본원료로 하고, 한국인의 체질에 적합한 일곱가지 한방재료 추출물들을 첨가한 천연소재의 비항생제성 피부 천화적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입니다.
● 오보크린은 피부에 감염되는 병원균들에 대해 직접 · 간접적인 생리작용으로 항균효과를 발휘하여 주부습진, 비듬, 무좀등을 예방하고, 피부의 자연면역기능을 활성화 시켜줄 뿐만 아니라, 공해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을 피부로부터 배출시켜 항상 싱싱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첨단 생명공학적 건강미용 비누입니다.

● 한방재료추출물 (오미자, 구기자, 감초, 숙지황, 천궁,계피등)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 피부에 미백효과가 있습니다
● 99% 천연소재 사용
● 공해매연, 산성비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배출 능력이 우수합니다.
● 주부습진, 여드름, 가려움증(비듬, 무좀등) 예방에도 좋습니다.
● 항균 · 항진균효과(anti-bacteral & fungal effect)가 있어 피부에 자연면역 기능을 증진시키며, 장기간 사용시에도 병원균들이 내성을 갖지 않습니다.

추천의 글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 영
"오보크린"은 공해로 인해 오염된 피부를 깨끗이 벗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력과 면역기능까지 부여한 첨단생명공학적 고기능성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 영 준
대기 및 실내에 산재된 각종 유해 중금속입자 및 오염물질등을 신속하게 제거해 주는 "오보크린" 건강미용비누는 이들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강원대학교 축산가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 면
세면비누는 미용필수품이지만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성물질과 피부노화방지물질 등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건강기능성비누"는 차세대 아이디어 상품이다.

신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원 석 희
오보크린"은 피부에 유익한 생리활성물질에 한방재료성분을 첨가하여 만들어낸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건강미용비누로서, 어느 외국제품과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첨단기술력의 제품이다.

(주)씨 · 티 · 에프 호서대학교 호서신기술센터內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02)737-8881

첨단의 생명공학기술과 전통의 동의학으로 탄생한 신개념의 비항생제성 항균 면역피부 미용 비누

C · L · E · A · N